

은행공 사라남 이야기



추억이 보이는 그곳 | 장노현 지음

“은행동 주공 아파트는 1985년에 완공되었다.
 야산에 무허가 집들이 몇 채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서 은행동은 아파트 지역과 빌라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빌라 지역 아이들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신기했다.
 기회만 엿보다가 틈이 생기면 재미삼아 그것을 탔고,
 경비 아저씨들은 아이들을 내쫓기 바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_은행동 현정씨 이야기 중에서

은행동
 사랑을
 이야기

추억이 보이는 그 곳
 | 장노현 지음 |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은행동 이야기북 3
2009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발행인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행일 2010. 2

지은이 장노현
일러스트&디자인 디자인 좋은날 / 김영아
인쇄 디자인 좋은날

©성남문화재단



우리의 강
강남의 이야기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장노현 지음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북을 펴내며

낄낄마녀의 동화책, 별별 이야기 벽화

2007년 7월, 남한산성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은행2동 주공아파트 내에는 다양한 버스들이 드나들며 사람들이 모였다 흠어진다. 그중 유독 즐겁고 밝은 모습으로 정류장 부근에 모여 있는 분들이 눈에 띄었다.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인상적인 모습에 그분들에게 성남문화재단과 작가들로 구성된 '폴장환상' 기획단은 문화모임을 제안하였다. 모두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도 폴장에서의 만남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바로 연락망을 취할 수 있게 멤버 중 한분인 정숙정씨가 반장으로 정해졌고, 이렇게 '낄낄마녀의 동화책 모임'이 시작되었다. 안양에서 살 때 YMCA에서 책임기 퍼포먼스를 해왔다는 신지은씨를 선생님과 모시고 준비해 온 책들을 보여주며, 엄마들이 마녀복장으로 유치원 갔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책을 읽어주자고 제안했다. 엄마들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창피하다며 마녀복장을 꺼려하시더니 어떻게 자신감과 의지가 생겼는지 재미있겠다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할 아이를 생각하며 신이 났다.

기다란 마녀모자, 빗자루, 망토, 책 바꾸니, 그리고 은행2동 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책마을어린이문고’에서 특별히 선별해 빌려온 20여권의 동화책.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낄낄마녀’들은 유치원버스가 오는 곳으로 갔다. 버스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선생님도 깜짝 놀란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낄낄마녀는 근처 놀이터로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었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동화책 속에 빠져들었다.



책 읽는 마녀들과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이 뒤섞여 놀이터는 환상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다. 낄낄마녀 퍼포먼스 후 다시 신지는 선생님과 놀이터에서 만나 동화책 즐겁게 읽기와 동화책 보는 방법 등 여러 이야기와 궁금한 점들을 나누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임을 독려해 주었다.

다음 모임부터는 엄마들끼리 모여 진행되었는데 선생님 없이 스스로 하러니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모두들 모임을 이끄는 역할에 부담을 가졌고, 모임에 대한 기대도 다양하게 달랐다. 하지만 해보자는 의지에 다시 반장이 정해지고 다음 모임 날짜가 잡혔다. 그리고 ‘책마을어린이문고’를 운영하고 계시는 은행2동 주민 장점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보기로 했다. 장점심 선생님은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이나 책에 관련된 정보 등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고 언제든지 도

움을 주고 싶다 하셨다.

‘낄낄마녀의 동화책 모임’은 각자의 일정과 사정, 기대가 달라 많은 이가 함께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끌 힘이 부족해 힘들었지만 모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초대한 집에서 만나서 서로의 동화책을 교환해 읽고, 수다도 떨고, 주변정보도 나누며 친교를 가졌고 ‘각자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자, 독후감을 써오자, 관련정보를 모아보자’는 등의 의견으로 발전되었다. 미약한 시작이지만 아파트 안에서 작은 실천의 힘이 모이고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가꾸는 노력이 엄마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은 ‘낄낄마녀의 동화책 모임’에게 ‘은행동 이야기 영상’을 찍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영화(?)까지 찍냐고 너스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영상에 담으면 그게 ‘은행동 이야기 영상’이 될 거라고 말하자, 그야 뭐 어렵지 않지 하며 은근히 영화 주인공이 된 냥 수군수군 여러 가지 의논거리가 생겼다. 어디서 찍을까? 우리 항상 모이듯이 집이나 ‘책마을어린이 문고’가 좋겠다... 무슨 얘길 하나? 아! 책도 만들구, 음식 만들어서 나눠먹구 뭐 늘상 하는 게 다 멋진 그림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낄낄마녀의 동화책 모임’의 일상을 찍은 ‘은행동 이야기 영상_엄마 말하는 중이거든..’이다.

은행동 이야기 영상
“엄마 말하는 종이거든..”

〈첫째시간, 종이접기 + 공공미술〉

엄마 :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뭐지?

아들1 : 뭐, 동물이요?

엄마 : 아니, 전체 다해서

아들1 : 해님, 번개

엄마 : 해님, 번개, 빛이지

그러면, 해님에서 나오는 빛도 한번 그려봐 좋까?

아들1 : 빛도.. 번개도 그려도 되요?

[자막]

풀장환상(은행2동 문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 ‘낄낄마녀 동화책 모임’을 할때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풀어놓고 앉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다 모아자니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올 수 없고.. 그래서 놀이터에 앉아서 하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시소냐 널이냐! 맞아 (손잡이가) 다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딱 널 같은 거야. 104동은 없어 하나도..

맨 처음 이것(풀장환상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아파트에 뭔가 하나 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설문조사를 처음 했어요.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나. 무얼 고쳐주었으면 좋겠나. 그래서 난 제일 먼저 한 것이 애들 놀이터였거든요.

근사한 분수나 뭐 그런 거..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이 황량한 아파트 담벼락에 뭐라도 부티 나는 거.. 꽃밭이라도 가꾸겠구나. 그랬어.

그러다 아쉽게 끝났지. 정말 아쉽게 끝났지.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어쨌든 거기서 만나서 된 거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 된 거죠. 또 이렇게 아쉽게 끝나줘야지..

미술이나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감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획이라든지 추진력 면에서는 좀 초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딱 시작해서 마무리 짓기까지의 과정이 수월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아파트에 폐쇄된) 풀장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너무 흥물스럽잖아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 팀을 짜서 자원봉사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엄마 : 그게 뭐예요?

아들2 : 구름하고 해하고 비하고 번개가 있어요.

아들1 : 번개가 뭐야 번개지

엄마 : 김동희가 그린 토끼의 아침입니다.

아들2 : 토끼와 번개와 비, 아니 토끼와 당근

[자막]

엄마. 나 근데 살려줘. 살려줘~

알았어. 엄마가 구해줄게

〈둘째 시간, 책만들기 + 우리동네〉

[자막]

(남한산성) 정상에서 산길을 보니까 막 불빛이 반짝이면서 성남시 전체가 보이는
거야, (남편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게 성남이야” 그러는데.. 난 그게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너무 어지럽고.

가을에는 정말 환상이야. 초록색 잔디밭에 파란하늘에.. 와! 정말 환상이야.

내가 이사 갈지도 모를 적이 있었거든 울었잖아. 이 (여항 속에) 금봉어를 바라
보면서..

복정동에서 사거리 딱 건너서 약진로 딱 올라오면 야.. 이젠 창문 열어도 돼! 이
러고 올라온다니까 너무 행복해 그 공기가 너무 행복해.

마을도서관! 난 마을도서관이 있어서 참 은행주공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가끔씩 해.

아들1 : 오 진짜 책같다.

엄마 : 진짜 책 같지? 오늘 너희들이 만든거야.

[자막]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주공하고 빌라 사이의 계단이 있어요. 주공하고 빌라 사이의 계단을 없애 버려야 된다. 주공에서 나온거야? 주공에서 얘기 나온거지.

참 웃기다는 거야. 참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서도 개미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게 나는..

그래도 아이들이 크면서 자꾸 그걸 접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듣는 거겠지. 그런 분위기를 애들이 더 잘 알아. 엄마들이 먼저 깨져야 돼!

엄마들의 바람은 건전하게 크는 것, 그거 하나거든 진짜 건전하게 크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내가 애들 더 잡고 이게 바른길이라고 얘길 하는데 아이한테는 사실 그게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거야.

<셋째 시간, 요리교실 + 여성, 여자>

엄마 : 그런데 밥 색깔이 이상하지 않아?

엄마 : 이건 검정 쌀, 이건 조, 수수도 있고 보리도 있고

아들1 : 아, 맛있다.

엄마 : 맛있지? 밥만 먹어도 맛있지.

[자막]

10년 육아하고 (일을 하기 위해) 끝낼 거야 그랬지... 지금은 “여보 내가 혹시나 일을 안 한다고 해도 당신 구박 안 할 거지?” 이젠 가끔 그러다니까.

나중에 애들이 커서 내가 일을 갖고 싶은데 그 때 가서 못할까 봐 겁나요, 솔직히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가 않죠.

결혼 전이나 애 낳기 전에는 분명 다른 목표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도 있고 나니까 그만큼 목표를 바꿔야지 그런 생각은 없지만 점점 목표가 낮아진다고

할까?

내가 이렇게 쉬었는데 할 수 있을까? 못해 점점 더 그러다 보면 목표도 없어지고 그렇게(포기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근데 점점 그래지는걸 느끼지.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필요 없지만 남들이 보면 바느질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배우러 가는 그 한 시간이 나한테 매우 소중한 거지요.

내가 일을 찾는 게 내 꿈을 실현하는 목적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학원비라도 벌어야지 남편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줘야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없는 거지.

애들 손이 덜 간다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엔 아이들이 또 안쓰럽고 양쪽을 저울질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게 수평이 되더라고요.

남자(시댁)들 식구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여자쪽 식구들 하곤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렇지.

남자는 장가를 가면 이전 시댁가족하곤 끝이야. 시집을 와도 친정생각 엄마생각도 하고 아빠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마음은 있겠지만 표현을 안 하니깐 딸이 시집가서 섭섭하다는 말은 옛말이고 아들이 장가가서 참 섭섭할 거라는 생각을 해.

시어머나가 난 딸처럼 생각해요. 이것도 거짓말이고 나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들, 아들, 아들...

엄마 : 맛있었어요?

아이들 : 네

엄마 : 아, 다음시간에는 어떤 걸 만들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이1 : 햄버거

엄마 : 햄버거 좋아. 1번 햄버거

아이2 : 난 라면. 진라면

아이3 : 난 너구리 라면

엄마 : 라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요리 중에 너무 쉽잖아. 자 그럼 오늘 모두 인사~

‘풀장환상’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아파트 유형 프로젝트다. 2006년 골목길 유형인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를 시작으로 1단계 3개년(2006~2008년) 동안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의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2단계 5개년(2009~2013년)에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면서 통합적 지원체계를 형성하여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실시된 아파트 유형과 공단 유형은 공모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왜냐하면 2006년도 태평4동에서 프로젝트가 끝난 후 너무 반응이 좋아 다른 동에서 너도나도 하고 싶다고 신청이 쇄도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성남에 무수하게 많은 아파트 중 어느 동을 할 것인가였다. 심사도 공정해야만 뒷소리나 불만이 안 나올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공모기간이 끝나고 심사에 들어가자 큰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이유는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지만, 은행2동 주공아파트는 아파트 주민 1,200명이 넘는 서명장부에 엄청난 준비를 해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 준비의 주인공이 바로 이 책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의 다섯 번째 이야기 주인공인 당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 부녀회 총무였던 현정씨다. 현정씨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준비에 철저를 기했던 탓에 심사위원들이 ‘이 정도의 아파트 주민들 관심이 있다면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 토양은 갖춰진 셈’이라며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아파트유형으로 은행2동 주공아파트가 선정된 후 현정씨를 중심으로 아파트 부녀회는 기획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풀장환상’ 기획단이 은행주공 아파트 홈페이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맨 위에 올라있는 글은 ‘아파트 값 두 배 올리기’였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 4~5배나 올랐다는데 아직도 배가 고픈 것이다. 은행주공 아파트 부녀회는 실상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예전에 조직된 것이었다. ‘풀장환상’ 기획단에 쏟아낸 처음의 아이디어는 ‘어떡하면 은행주공 아파트가 멋지게 변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가 관심사

였다. 하지만 부녀회는 기획단과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과 전혀 틀리자 뭘 하려는 건지 어리둥절해 했다.

아파트 안에 근사한 분수대나 비싸 보이는 조형물, 화려하게 조성된 꽃밭 등의 시설이 설치될 거라고 생각한 부녀회는, 버려진 풀장을 아이들과 엄마들이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그게 될까? 하고 의구심에 찬 반응이었다. 몇 년 전에 아파트의 풀장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90년대에 조오련 선수가 와서 강습을 해 줄 정도로 성남시에서는 인기 있는 풀장이었다. 다른 동네에서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고, 다들 은행주공 아파트를 부러워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당이 생기고 탄천변에 훨씬 잘 만든 수영장들이 늘어나자 80년대에 지어진 풀장은 더 이상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풀장이 아니었다. 결국 풀장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폐쇄되었고, 방치된 풀장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아파트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 아픈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런 공간을 아이들과 엄마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다고?

여름의 열기가 아직 채 가지지 않은 9월, 여름내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엄마들의 붓솜씨로 풀장은 변해갔고 드디어 풀장환상의 오픈이 다가왔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계단, 어둡이 질게 드리웠던 벽, 먼지 쌓인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는 밑공사가 먼저 진행되었다. 페인트 칠로 단장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청소도 마무리되고, 전등을 새로이 달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방도 만들었다. 풀장 한 편에 쌓여있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때 쓰던 스폰지 키판을 재활용해 멋진 ‘풀장 환상’의 간판을 달자 그 실체가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떡이며 음료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난감해 하던 스태프들이 부녀회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문제가 술술 해결되었다. 역시 잔치 준비에 부녀회 어머니들의 노하우를 누가 따를 수 있으랴. 은행 주공 주민인 철물점 내 외분도 밤낮으로 나서 풀장 공사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떠맡아 해결해 주셨다. 풀장의 뜨거운 재탄생을 위해 늦은 밤까지 가까이에서 함께 은행주공 주민들이 산파역을 자처해 주신 것이다.

15일 오후, 사물놀이 소리가 아파트를 휘젓고 떠들썩한 소리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주민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들었다. 삼삼오오 가족들이 손을 잡고 풀장에 들어섰고 호기심에 찬 아이들은 금새 웃음소리로 풀장 마당을 메웠다. 풀장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신청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의견도 남기고, 아이들은 작은 나무 조각에 소망을 담은 그림을 그려 풀장 벽에 하나씩 붙이기도 했다. 풀장에 짐볼을 던져 놓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풀장이 떠나갈듯 커졌다. 도시 속에서 커다란 공을 가지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던가. 색색깔 공들이 둥그런 희망을 담은 듯 풀장을 넘실거렸고 왁자지껄, 반가운 담소와 축하가 이어지는 사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도 둥글게,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풀장환상’ 프로젝트는 은행주공 아파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작업이었다. 숲과 오솔길이 아름다운 은행주공 아파트. 101동에서 123동까지 단지 숫자로만 불리는 우리 동네를 촉촉하게, 싱그럽게 기억할 수 없을까? 산자락 아래 새들이 즐겨 찾고 철마다 다른 자태를 뽐내는 은행주공 아파트의 생태적 특징을 담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매미 숲은 동, 참 큰 은행나무 동, 새 옷은 동, 멋진 아까시나무 동, 그리고 딱따구리 둥지 동...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 꽃이 되듯이 은행주공 아파트의 새 이름을 부르면 은행주공 주민들에게 은행2동은 마음의 꽃잎처럼 살아날 것이었다.

남한산성의 지형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은행주공 아파트는 수목이 울창하다. 산도 산이지만 단지 내 조경수들이 하늘 높이 자라 숲과 오솔길을 이룬 곳, 도심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빼어난 경관을 지닌 풍경을 보기란 쉽지 않다. 은행주공 아파트는 여느 아파트와 달리 터가 넓어 아파트 단지 안에 버스 노선이 있을 정도다. 현대 너무 넓은 탓일까? 처음 아파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 쉽다. 그래서 은행주공 아파트만의 생태적 특색을 살려 새로운 이정표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풀장환상’ 추진단은 그동안 은행 주공 내에 있는 텃밭이나 오솔길, 생태적 환경을 눈여겨 보았기에 아파트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공간 재생 프로젝트에 담을 수 없을까 고민했다.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네의 생태적 특징을 담은 이름이 생기면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곳의 환경을 주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주공 아파트 주민이자 생태 활동가인 김현주 씨의 자문으로 아파트 곳곳의 생태적 특징을 잡아내고 ‘은행주공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자료를 모았다.

이정표는 첫째로 동네를 찾아온 손님을 위한 안내역할을 해야 하므로 은행주공 아파트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넓은 단지 구조를 이해하도록 했다. 기존에 있던 남색 바탕의 낡은 이정표는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위치가 모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이정표를 완전히 뒤바꾸는 대신에 새로운 이정표를 통해 보완이 되도록 했다. 찾길을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단지를 나누어 전체를 조감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있던 이정표나 아파트 벽에 있는 표지를 통해 각동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각의 구역에서 발견한 생태 환경의 특징을 통해 이름이 결정되었다. 101, 102, 103동의 이름은 ‘매미 솟는 동’, 104동에서 108동까지는 ‘참 큰 은행나무 동’, 109동에서 117동까지는 ‘새 웃는 동’, 110동 그리고 118~120동은 ‘멋진 아까시나무 동’, 마지막으로 121~123동은 ‘딱따구리 동지 동’으로 정했다.

이정표의 모양새에도 특별함을 담았다. 은행주공아파트 근처에서 수집한 폐전구를 재활용해 밤에도 불이 들어오는 이정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5T두께의 투명 아크릴을 이용해 동그란 함을 만들고 폐전구를 담아 불빛의 재생과 재활용의 의미, 입체적인 모양새를 살려 디자인하였다. 또 낮에는 형광색 글씨로, 밤이면 전력 소모가 낮은 LED로 불을 밝혀 은은한 빛과 함께 각 동의 이름을 알리는 글씨를 돋보이게 했다. 은행주공의 숨겨진 이야기와 환경을 담은 은행주공의 새 아이콘, 새 이정표들을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거는 날, 주민들의 얼굴에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멋진 곳이었나?’ 하면서 뿌듯한 미소들이 번져나갔다.

1구역 (101,102,103동) 매미 솟는 동

매미는 2년에서 7년 정도 유충 상태로 땅 속에 산다. 그런데 101동에서 103동 사이 곳곳에서 매미땅굴을 발견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에 여름을 기다리는 아기 매미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땅에서 나무위로 매미들이 솟아오르는 곳, 그래서 이름을 '매미 솟는 동'이라 붙였다. 땅속에 있다 허물을 벗고 완전한 매미가 되기 이전의 색은 옥빛이다. 그래서 1구역을 대표하는 색상을 옥색으로 정했다.



2구역 (104,105,106,107,108동) 참 큰 은행나무동

은행주공아파트에 3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김현주 씨는 여러 그루의 뿌리가 엮여 거대한 연리목이 아닐까 추측했다. 거기에 가지까지 접이 붙으면 연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나무는 연리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 때문에 이 동네의 이름이 은행동이 되었고, 은행동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2구역은 웅장한 은행나무의 모습과 그 잎의 색상을 고려하여 '참 큰 은행나무동'이라는 이름과 그에 맞춰 노랑색을 테마 컬러로 정했다.



3구역 (109,111,112,113,114,115,116,117동, 상가) 새 옷은 동

넓은 활엽수 그늘에 맞난 열매와 곤충이 많아 새들이 많이 모인다. 곤줄박이, 청딱따구리, 뱀새라고 알려져 있는 붉은머리 오목눈이와 박새 이 외에도 많은 새들이 은행주공아파트에 머문다고 한다. 가끔은 새의 지저귀음이 멀리까지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새 옷은 동'이라 명명하고, 테마 컬러로 파릇파릇한 색상과 새의 활기찬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초록색으로 정했다.



4구역 (110,풀장,118,119,120) 멋진 아까시나무동

쭉 뻗은 몸매를 자랑하며 하늘 높이 솟은 아까시나무의 향기가 감도는 동네. 흰 아까시나무 꽃이 만발한 모습 또한 장관이라고 한다.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에 있는 아까시나무는 참 큰 은행나무 못지않은 크기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은행주공 주민 뿐 만 아니라 은행주공을 통해 남한산성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이 아까시나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다. 등산복 차림으로 산으로 가는 진입로가 어딘지를 묻는 사람



만난다면 이 이정표를 가리키며 아까시나무를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5구역 (121,122,123동) 딱따구리 동지 동

5구역은 오동나무와 청딱따구리가 주제이다. 121동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무 중 잎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오동나무다. 바닥에 떨어진 오동나무 낙엽을 치우는 것도 고될 만큼 굉장히 커서 이 길을 자주 지나는 초등학교생들 모두가 기억할 정도다. 그런데 이 나무에 청딱따구리가 뚫어 놓은 구멍이 있다. 무심코 지나쳤지만 은행주공에는 숲속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 지금은 딱따구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새들이 집으로 사용할 것이라 한다. 오동나무 줄기를 따라 세심히 관찰해 보아야 이 작은 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은행 주공을 방문하는 손님들께 꼭 딱따구리 오동나무를 소개하자!



은행2동 주공아파트의 구석구석에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숨어 있었다. 아파트 5개 구역의 아름다운 이름들은 바로 그 숨은 이야기들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이었다.

〈신비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_120동 양버즘나무 이야기〉

은행주공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골치다. 10여 년 전, 주차장 확대를 위해 120동 뒷마당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양버즘 나무를 기계톱으로 잘라 내고 있었다. 120동 주민들은 깜짝 놀라 다들 뛰쳐 나왔다. 아무리 주차 문제가 어렵다지만 나무를 베어낼 순 없다고 주민들은 완강히 막아섰다. 그러나 양버즘나무는 이미 잘려 나간 뒤였고, 다행히 다른 나무들은 생명을 건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몇 년이 지나고 죽은 줄만 알았던 양버즘나무가 곁가지로 내고 자라고 있는 것이다! 120동 주민들은 너무 신기해 하며, 지금도 '양버즘 나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 주고 있다. 버즘나무는 나무줄기의 표면이 얼굴에 버즘이 핀 것 마냥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속명인 '플라타너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다. 북한에서는 동그란 열매의 특징을 살려 '방울나무'라고 부른다. 버즘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잎의 가운데 열편이 길고 열매가 2~6개 정도 달리면 버즘나무, 가운데 열편의 길이와 폭이 비슷하고 열매가 주로 2개씩 달리면 단풍버즘나무, 가운데 열편이 길이보다 폭이 더 넓으면 양버즘나무다. 은행주공에는 122동 뒤편에 날씬한 양버즘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키 자랑을 하고 있다. 뽕이 심겨진 양버즘나무와 메타세콰이아가 서로 경쟁을 하느라 부피생장은 못하고 키만 자라고 있는 것이다. 나무들이 어렸을 때 속아 주었다면 저런 피 말리는 경쟁은 안 해도 되었을텐데...

〈딱따구리 동지동의_121동 오동나무 이야기〉

은행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청딱따구리가 집을 지었던 오동나무가 두 그루 있다. 그래서 동 이름을 붙여 줄 때 121동 근처를 딱따구리 동지동이라고 이름지었다. 은행주공의 봄은 청딱따구리의 울음소리로 시작된다. 3월 어느 날 갑자기 창밖에서 청딱따구리의 울음소리가 울려오면 영락없이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청딱따구리 울음소리 울리면 명자나무가 먼저 꽃을 피우고 이어서 박태기나무, 벗나무, 조팝나무와 겹복숭아 황매화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우다가, 봄이 무르익으면 은행2동 주공아파트 정문 진입로의 철쭉이 활짝 피어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청딱따구리는 나뭇잎도 나기전인 이른 봄에 날아와서 은행주공의 이 숲 저 숲을 날아다닌다. 딱따구리는 한번 사용한 등지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딱따구리가 한번 사용한 등지는 동고비 같은 작은 새가 진흙을 물어다 작게 리모델링하여 재사용한다. 오동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며, 나무와 잎, 꽃이 모두 오동통해서 오동나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이 파리가 아주 커서 어릴 적에 갑자기 비가 오면 오동나무 잎을 따서 머리에 쓰고 댄 기억도 이젠 차츰 사라지고 있다. 옛날에 딸을 낳으면 시집갈 때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뒤뜰에 오동나무를 심었다.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라서 12년 정도만 키우면 (옷)장을 만들 수 있단다. 빨리 자라다 보니 나무가 무르고 벌레가 잘 먹을 수 있어서, 뒷마당 굴뚝 뒤에 심어서 연기로 벌레를 쫓는다. 시집간 딸

은 친정 부모가 만들어 주신 오동나무장을 쓸고 닦으며 부모를 그리워 하였다.

은행주공의 주민으로 살면서 우리 아파트의 생태탐험을 즐기시는 김현주 선생님의 ‘은행주공 생태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 아파트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도 멋진 아파트인걸... 나도 여기 살았으면 하고 성남문화재단 식구들은 다들 감탄해 마지않는 아파트였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스태프들은 ‘풀장환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행주공의 생태이야기’를 꼭 책으로 만들어 보자고 계획했다. 이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08년엔 ‘은행주공 생태클럽’이 생겨나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김현주 선생님과 1년동안 아파트의 생태를 탐험(?)한 후 ‘은행주공 생태도감’을 만들었다. 또한 매년 ‘풀장환상’ 프로젝트북에는 ‘생태이야기’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향후에 몇 년간의 작업을 모아 「은행주공 아파트의 생태클럽 이야기」(가칭)라는 멋진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은행주공 아파트 부녀회는 신이 났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들 즐거워하고,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멋진 줄 미처 몰랐다면 부녀회가 앞장 선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들 칭찬해주니 너무 보람된 일이었다. 내친 김에 부녀회와 ‘풀장환상’ 기획단은 ‘이야기 벽화’를 아파트 시멘트 담벼락에 멋지게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자연스러운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은행2동 주공아파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민 모두에게 알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벽화가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주공아파트의 3가지 벽화는 이렇게 탄생했다. 2007년도에 ‘풀장환상’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동시에 은행주공의 자연과 생태, 은행주공만의 특징을 담은 벽화 3종 세트!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은행주공의 이야기로 완성된 ‘별별 이야기 지도’, ‘은행주공 생태벽화’, ‘우리동네 주민 얼굴그리기’ 벽화에는 무엇이, 어떻게 담겨있을까?

첫 번째, '은행주공 생태벽화'

플장 바로 맞은편에는 긴 콘크리트 옹벽이 있다. 점점 생기발랄해지는 플장에 비해 여전히 회색빛인 벽을 부녀회와 기획단이 그냥 둘 리 없다. 은행주공 주민인 생태활동가 김현주 선생님의 '은행주공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주공의 생태환경에 대해 많은 자료를 얻게 된 차에 생태벽화를 그려보자는 아이디어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과 은행주공의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와 새, 곤충, 야생화, 오솔길... 닳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새들을 한데 모으니 신선한 내음이 새삼스럽게 다가 왔다. 김현주 선생님의 자문으로 추진단은 자료를 모아 은행주공아파트의 대표적인 동식물을 선정해 벽화를 디자인했다. 그리고 작가의 작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 '은행주공 재발견투어'란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해 주민의 참여를 더했다. 재발견투어를 다녀온 후,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인상 깊었던 동·식물을 비바람에 견디는 소재인 포맥스 위에 유성펜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고, 벽화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붙여 완성했다.

하교길, 아이들은 벽화 앞을 지나며 새 이름, 나무 이름, 곤충 이름을 되뇌는다. 동네의 생태계를 벽화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간혹 아이들 그림 중에 아는 이름이 있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사랑하게 되는 일, 여기 생태벽화에서 자연사랑과 함께 시작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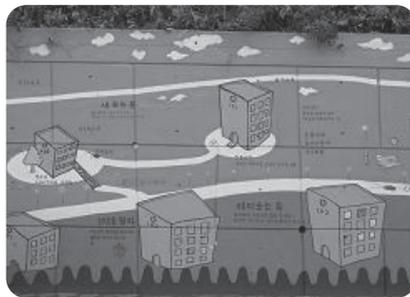
사전답사와 김현주 선생님과 생태투어에 수차례 참여한 김형관 작가는 동식물 도감이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몰랐다면 자신이 디자인할 생태 벽화에 꼭 빠져 있었다. 하나하나 잎사귀마다 이름표를 달아 벽에 붙여놓고 벽화에 들어갈 새와 곤충들을 꼼꼼히 감수 받는 작업을 거쳐 생태벽화가 탄생했다. 추운날씨에 언 손을 녹여가며 붓질을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쏟아지는 하교길 아이들의 질문공세에 작업이 더욱 더뎠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주었다. 말썹꾸러기들이 난로 앞을 떠나지 않아 아이들 돌보라 벽화 그리랴 고생이 말이 아니었던 그 날의 작업은 첫 번째 이야기 벽화가 탄생하는 멋진 날로 다들 기억에 생생하다.



두 번째, '별별 이야기 지도'

은행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관리 사무소 앞에는 2002년 은행 초등학생들이 그려놓은 벽화가 있었다. 그런데 본래의 색상이 퇴색되고 페인트가 떨어져 손질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은행주공아파트의 지도를 크게 펼치고 은행주공아파트의 숨은 이야기를 더해 아기자기한 '별별 이야기 지도' 벽화를 그렸다.

플장환상의 새 이정표 체계에 따라 단지를 5구역으로 나눈 후 5가지의 테마 색상으로 바탕색을 칠하고 놀이터, 쉼터, 오솔길도 빠짐없이 그려 넣었다. 완성된 모습이 마치 땅속의 재미집을 연상케 해서 한 마을에 이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아이들은 지도를 따라 자기 집을 찾아보기도 하고 벽화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 깔깔대며 웃는다. 등하교길이 즐거워진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인 벽화다.



세 번째, '우리동네 주민 얼굴그리기'

관리사무소 내려가는 길은 '우리동네 주민 얼굴그리기'란 테마로 플장환상의 마지막 축제 '낙엽활극'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은행동 아이들과 주민들이 모여 즉석에서 자신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나름 재치 있게 특징을 잡아 그린 친구의 모습, 벅타이를 맨 아빠의 모습, 왕방울만한 눈을 가진 얼굴 등 개성만점의 그림들이 하나 둘 벽면을 채웠다. 붓질이 미숙하여 페인트가 줄줄 흘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함이 생생해서 벽화 작가들은 최소한의 수정만을 가해 완성했다. 참여자 대부분이 아이들이어서 꾸밈없는 솔직함이 친근하게 와 닿는 벽화다.



벽화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모두 오가는 사람이 많고, 시선이 많이 모이는 자리다. 그런 곳에 은행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꾀하고자 은행 주공의 생태와 공간,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드러나지 않았던 동네 곳곳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살렸다. 보여주기에 급급해 현란한 작품을 내세우는 대신, 삶의 터전에서 생겨난 이야기와 체험을 담은 벽화가 다른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은행주공을 따뜻한 이야기로 수놓고 있었다.

은행동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인 ‘폴장환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7년도 ‘폴장환상 1’을 은행주공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맡았고, 2008년도 ‘폴장환상 2’에서는 그 핵심멤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클럽을 형성하고 ‘은행

주공 문화배움터'를 결성하여 풀장을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은 벌써 풀장환상이 3년째 이어지면서, 풀장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더욱 새 단장하고 줌마포토 사진클럽, 한지공예클럽, 나만의 책만들기클럽, 생태연구클럽, 퀴트클럽, 어린이풍물단, 통기타클럽과 어린이밴드 등 은행2동 주공아파트의 '동네클럽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풀장환상 3'의 아파트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이제 은행주공 부녀회는 물론이고 아파트의 주민들은 어떤 '근사한 분수대'나 '비싸 보이는 조형물', '화려하게 조성된 꽃밭'보다도 몇 천배 은행주공의 소중한 보석들이 숨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번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는 2009년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야기북1'의 작업이었던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이어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와 함께 엮은 세 번째 이야기북이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운 후,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과 함께 나누었다. 풀장을 문화공방으로 이용한 프로그램 외에 '은행주공 생태탐험', '미디어수다방'과 '중학생 UCC', '나만의 책 만들기', '킬킬마녀가 우리마을에 왔어요', '씨네-풀', '풀장이 환상이야', '물레를 돌리자', '오라차차 몸 나들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 되었으며 문화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주민들도 많이 발견하여 '점핑클레이', '테디베어', '포크아트', '색종이 접기', '수예교육' 등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숨은 예술적 끼를 재발견하고 그 재능을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은 은행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숨은 재능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으며, 그 사람들 한분 한분의 삶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담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은행주공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야기북3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를 발간하게 된 밑거름이다.

2단계는 1단계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를 통

해 '우리동네 생활이야기'를 '이야기북'으로 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이은 이야기북2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이야기북3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는 3단계 7개년이 끝나는 2020년까지 이야기북 시리즈를 통해 성남의 모든 동네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성남문화재단은 이야기북 시리즈를 콘텐츠로 영화, 다큐멘터리, 연극, 뮤지컬, 전시, 퍼포먼스, 공공예술과의 연계사업에 들어갈 구상을 준비 중이다. 이야기북은 성남의 살아있는 역사다. 지금 주민들이 생생한 동네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생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민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자기 동네 드라마의 창작 주체로서 나가는 모습을 은행주공의 '폴장환상'에서 보면서 성남의 동네 곳곳에서 펼쳐질 '우리동네 생활이야기'에 가슴이 설레인다.

2010년 2월
성남문화재단

서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서사 형식을 찾아서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는 성남시 은행동 사람들의 구술 생애 자료를 서사(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이것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북 시리즈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이미 지난해에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가 시리즈의 첫 권으로 나온 바 있고,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가 시리즈의 두 번째 권으로, 이 책과 같이 출판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파편들로 이루어진다. 삶의 파편들은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을 통해 하나의 긴밀한 이야기(서사)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는 삶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억들은 다시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 삶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기억이 되고, 기억이 다시 삶이 되는 전화의 과정은 고리처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삶은 이야기이며 또한 기억이 되는 셈이다.

삶이 곧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고 싶거나 말해야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 몇 개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Everyone has some stories to tell. 이야기북 시리즈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에 활용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였다. 다른 무엇을 위해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가 중요해지면서 이야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또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데 너무 몰두하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와 같은 공공적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를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미술이나 음악 분야의 예술 작업은 이미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공공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 즉 서사예술이 다른 분야의 예술과 달리 문화공동체만들기 같은 공공적 프로젝트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야기 형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근대소설’이 등장하여 가장 완벽하고 선진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인과성과 필진성을 바탕으로 잘 짜여진 완결된 구조를 갖춘 근대소설을 이야기 완성태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소설은 지고지순한 예술품이 되었고, 더불어 소설가들은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게 되었다.

이야기를 문화공동체만들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예술적 완결성을 추구했던 근대소설의 형식을 벗어나고, 더 나아가 소설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형식이 가능하고도 적합한 대안이 될까? 또한 이야기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기능은 무엇일까?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인과성과 필진성을 중요시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구조적 덩어리가 되는 소설의 형식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형식, 즉 부분들이 파편화되는 형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파편들은 부분적 독자성을 지닌 짧은 길이의 텍스트여야 한

다. 120여 자를 쓸 수 있는 트위터 만큼 짧은 글이 파편들의 가장 작은 요소를 구성해야 한다. 그것은 전체 이야기에서 분리되어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와도 쉽게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디지털서사의 한 형식인 하이퍼텍스트서사의 단위텍스트와 같은 자질을 가져야 한다.

원시부족사회에서 구술 이야기는 공동체의 가치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부족의 연장자들이 모닥불 가에서 들려주었을 자신들의 신과 조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부족의 특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던 근대소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이야기북은 서사 형식 면에서는 디지털서사의 파편화를 지향하면서, 구술 이야기처럼 공동체의 형성과 강화라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개인생애 자료를 구술서사 형식으로 채록하고, 다시 그것을 파편화된 작은 이야기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구술이야기는, 인쇄서사와는 달라서, 이야기 구성 요소 간의 삽입, 중복, 순서의 뒤섞임 등이 심하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구술 이야기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파편화된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구술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구술대상자 선정 작업은 2009년 9월부터, 몇 가지 원칙 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은행동 거주 기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으로, 둘째 은행동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부수적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관심사항 등에서 다양한 분포를 가져야 했다.

실제로 책에 수록된 여섯 명의 구술자들은 은행동 거주 기간이 적게는 20년 전 후에서부터 많게는 70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남녀의 비율은 3:3으로 맞췄다. 연

령대는 40대, 50대, 80대가 각 2명씩으로, 60대와 70대 구술자를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사실, 은행동은 상대원동이나 태평동과 달리, 구술자 섭외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전체 작업 기간 동안 20명 이상의 구술대상자를 추천받았지만 대부분 사전 접촉 과정에서 서사인터뷰를 거절했다. 거절 이유는 다양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와 개인사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많았다. 하지만 자식들이 만류해서 추후에 서사인터뷰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작업이 거의 끝나가던 1월 말에 추천받아 만났던 사람은 서사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생애 전체에 대한 구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은행동의 구술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구술자	출생연도	성별	은행동 거주	하는(했던) 일
박금순	1926	여	67년	농사, 장사
김유전	1926	여	69년	농사, 장사
강지용(가명)	1958	남	21년	사회복지법인 운영
안일준(가명)	1952	남	22년	보험업
이현정(가명)	1966	여	20년	통장, 보험업
정철경(가명)	1960	남	19년	방법대장, 자영업

구술자 선정이 끝나면, 채록과 전사 과정이 뒤따른다. 이 과정은 구술 서사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텍스트 자료로 옮겨내는 것이다. 구술 서사인터뷰는 조사자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구술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술자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애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디지털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다. 녹음된 구술 자료는 다시 텍스트 자료로 전사되었다. 전사 과정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복 어구 등을 삭제하지 않고, 구술 자료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살렸다.

다음은 서사의 재구성 과정으로, 구술 자료를 재구성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재구성 작업은 각 개인들의 파편화된 삶의 경험 영역들을 결합하는 흥미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작업이었다. 그 경험들은 우선은 해체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결합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북 프로젝트의 목적인 생활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강화에 직접 활용 가능한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 수록된 여섯 사람의 생애 이야기는 모두 20개 이내의 작은 이야기로 파편화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파편들은 다시 몇 개의 더 작은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이 요소들은 크게 필자가 재구성한 원고 부분과 구술자의 목소리를 직접 노출한 부분으로 나뉘며, 그것의 분량은 대개 3: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필자가 재구성한 원고는 허구적 내용을 배제하고 구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주로 단문을 사용하였다. 구술자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 인용 부분도 신중한 선택 과정을 거쳤다. 주로 구술자가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은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부분을 위주로 직접 인용 부분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부분은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살려 신뢰, 가독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중복어구와 단순 감탄어구를 제거하고 문장부호를 삽입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정리 작업만을 거쳤다.

한편, 서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간혹 서술자가 아닌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노출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 또한, 완벽하게 통제되는 단일한 서술자의 목소리로만 이야기하는 근대소설의 형식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의 새로운 서사 형식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저자의 목소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서사적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거나,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삽입하거나, 여담을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관련되는 다른 부분으로 하이퍼링크의 연결을 지시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필자는 이런 작업을 위해 로렌스 스티어

쓴 「트리스트럼 샌디」의 이야기 형식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는 구술자들의 삶을 미화하여 아름답게 보여주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은행동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내의 생활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기록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책은 은행동 사람들의 기억을 보관하는 기억상자이며 기억박물관이다. 이 기억들은 은행동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야기 되면서 생활문화공동체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은행동의 기억박물관은 향후 은행동의 스토리텔링 클럽이나 집필 커뮤니티(writing communities)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만든 이야기북이다. 먼저 여섯 분의 구술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구술자 섭외를 도와준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의 이상훈 실장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구술 음성 자료를 텍스트로 전사하는 작업을 도와 준 김나연, 윤기미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덧붙여, 사랑하는 아내 정혜영과, 딸 장강여, 아들 장이루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내는 실제로 가장 많은 전사와 교정 작업을 맡아주었고, 아이들도 열심히 아빠의 원고를 읽어주었다.

2010년 2월 2일

장 노 현 씀



목 차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북을 펴내며 — 7

서문/새로운 서사 형식을 찾아서 — 31



은행동 여자의 일생기 · 금순씨 이야기 — 43

은행골 토박이 장사꾼 · 유전씨 이야기 — 65



은행골에 남겨진 아이들 · 지용씨 이야기 — 85

가장 평범한 가장 이야기 · 은행동 일준씨 이야기 — 105



엄마라는 이름으로 · 은행동 현정씨 이야기 — 125

은행동 방법대장 · 철정씨 이야기 — 147



구술자료/은행동 박금순 녹취록 — 167

구술자료/은행동 김유전 녹취록 — 193

은행동 구술대상 조사카드 양식 — 220

구술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 — 221

은행동 여자의 일생기

금순씨 이야기





은행동 여자의 일생기

...

금순씨 이야기

1

할머니의 이름은 박금순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할머니는 원래 방금순이었다. 올해 나이 여든넷이 되도록 방금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불려졌을지, 그리고 박금순이라는 이름은 또 얼마나 불렸을지, 지금 아득하게 생각해도 별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금순이, 방금순이. 누군가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것이 언제적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멀고먼 시골 고향집 엄마가 그렇게 불렀던가, 오금동으로 시집간 누나는 그렇게 불렀던가, 대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한티재를 같이 넘던 유전이가 그렇게 불렀던가? 아니면 5년 중풍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고 보니, 남편은 중풍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보다 앞서 시어머니도 중풍에 돌아가셨다. 처음에는 지리지 가난으로 고생했고, 나중에는 남편과 시댁 일에 치여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다. 그냥 그렇게 하루 하루 보내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

“고상하다가 나중에 잘 좀 살만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중풍 맞아서 삼년 고생하고, 우리 바깥양반 또 저리 이사 가서 쇠아홉에 중풍 맞아서 예순셋에 세상을 오년 만에 뜨시고. 뭐 잘 살 거 뭐 있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대나무로 엮은 싸리문이 달린 집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땅 농사는 아니었다. 남의 땅 농사를 지으면서 내 땅을 갖는 것이 농촌 사람들의 바람이듯이 우리 집도 그랬다.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땅을 조금은 사들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시쳇말로 강산이 수십 번 바뀌기 전의 일이라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다.

우리 식구는 논 말고 대밭도 조금 샀던 것 같기도 하다. 어머니와 언니는 대밭에서 베어낸 대나무로 바구니며 삿갓을 만들었다. 물론 나도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야 했다. 지금도 텔레비 드라마에서 삿갓 쓴 사람이 나오면 어렸을 적에 삿갓 만들던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만들어진 대바구니와 삿갓은 아버지가 맬빵으로 지고 대명장에 내다 팔았다. 집에서 30리 떨어진 대명장엔 대나무로 만든 생활 소품들이 많았다.

“대까지로 싸리문 해서 다는 집에 살았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남의 논 농사짓다가 나중에는 내 땅도 맨들고 대밭도 조금 사서 그래서 그 대 비어서 대바구니 맨들어서 대명장을. 한 죽은 10개고 두 죽은 20개 아니어요. 그걸 우리들이 맨들어서 친정어머니 우리 언니 나. 삿갓 삿갓 있지요 지금도 텔레비 가끔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으로 지어서 맬빵으로 지어서 대명장으로 팔러 가. 30리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동서. 거길 맬빵 걸러서 지고 대니고 그랬어.”

4

한번은 여름인지 봄인지 갑자기 우박비가 쏟아졌다. 하늘은 시커멓게 변하고 우박은 잠깐 사이에 후드락 후드락 쏟아졌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묘를 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들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그 우박이 지나고 난 후 정신이 이상해지셨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 산소를 잘못 쓴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 할머니 산소를 잘못 써서 우리 집에 변고가 생기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까닥 돌아버린 것이라고 뒷공론이 무성했다. 어머니는 일없이 오막살이 토담집을 들락날락 하셨다. 휘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어느 순간 집으로 들어오셨고, 이내 다시 나가시곤 하셨다.

“그런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산소를 쓰시고 났는데 그냥 겨울 여름에 봄에 갑자기 그냥 우박비가 오드래요. 하늘이 시커머면서, 그냥 우박비가 이런 우박이 후드락 후드락 쏟아지더래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해까닥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언니하고 나 하고 둘이 살림을 하고 살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들락날락 하시고, 집에 오셨다 휘 나가시고, 그렇게 설케 살았어요.”

어머니가 정신 줄을 놓아 버린 후, 언니의 생활은 더 바빠졌고, 삶은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삶도 그랬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서러운 삶이었다. 조선 천지에 그런 서러운 삶이 또 있을까 싶었다.

5

서럽고 힘든 날들이 계속 되었다. 그렇게 또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났다. 언니도 성장하고 그녀도 컸다. 그리고 그녀 나이 열일곱이 되었을 무렵 그 언제부턴가 뽕새 할머니가 우리집을 자주 들락거렸다. 뽕새는 이웃에 살던 준엽이란 아이의 별명이었다. 뽕새 할머니는 욕도 참 잘 했다. 언변이 뛰어났다. 누군든지 뽕새 할머니가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사실로 믿게 되었다.

뽕새 할머니는 언니와 나를 마루 끝에 붙들어 앉히고, 유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 서울의 일류 부잣집에나 있는 뱅글뱅글 돌면서 노래 부르는 유성기에 대해 한참을 설명해 줬다. 중간 중간에 유성기를 통해 나온다는 노랫가락을 들려주기도

했다. 실제로 뽕새 할머니가 유성기를 들어본 적이나 있을지 의문이지만, 젓가슴 탕탕하던 10대 후반의 언니와 나에게 뽕새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런 집에 가면 마루도 방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뽕새 할머니는 그렇게 꼬드겼다. 서울로 시집 가서 유성기나 들으면서 잘 살라고.

“시집을 가면 경기도 가면 서울로 시집을 가면 마루에서 그늘이고 그때 일류 부자나 유승개 있었잖어요. 노래 불리는 뱅글뱅글 도는 유승기라고. (아! 유성기 유성기) 네. 유성개라고 그랬잖어요 옛날에. 그거나 틀고, 그러고 꼬시는 거예요 우리 이우제서 살았던 할머니. 손주 이름도 내가 알아요. 뽕새예요 손주 이름이.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행정서 살았을 때보텀 인자 알았었는데 (중매를 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집을 그렇게.”

6

그녀가 성남시 은행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뽕새 할머니의 중매, 아니 그 꼬드김 때문이었다. 지금은 집들이 빼곡하고 골목마다 차들이 들어찬 복잡하기 이룰데 없는 은행동이 되었지만, 그때는 인근에 집 한 채 없는 외딴 감나무골이었다.

뽕새 할머니가 들락거리던 고향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장성역으로 향했다. 장성역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났다. 전라도 장성군에서 버스가 다닐 만큼 가까운 곳이라면 담양이구나. 할머니의 전라도 사투리와 부정확한 기억과 정보가 담양군을 대명군으로 바꾸어 놓았다. 할머니의 구술에 흥미를 느끼고 있을 독자들을 위해서 네이버 지도를 열어 담양군을 검색해 보았다.

행정이란 지명은 없고 행성이란 지명이 나왔다. 할머니는 행성을 행정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전라도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를 할머니는 대명군 행정이라 알

고 있었다. 언제 한번 그것을 글씨로 써본 적이 없이 어른들의 말을 들어 기억한 것이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대밭을 사고 그곳에서 나는 대나무로 바구니와 샷갓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다는 기억은, 담양군이 죽세공품을 특산으로 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내동, 금바우들, 새천 등의 또 다른 지명은 똑똑 튀는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또 어떤 지명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7

새벽밥을 해 먹었다. 아버지가 대바구니와 샷갓을 지게에 지고 담양장에 나가던 시간보다 더 이른 새벽에, 언니와 나는 뽕새 할머니를 따라 장성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우리를 배웅했는지, 배웅했다면 어디까지 배웅했는지 기억이 아련하다. 이별의 눈물을 흘리기는 했던가?

1943년 장성역의 풍경이 어땠는지도 기억에 별로 없다. 언니와 나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치를 떨며 기차에 올랐다. 뽕새 할머니의 뽕이 아무리 우리를 매료시켰어도 막상 집을 나서는 길은 시골 처자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길도 아니었다. 한번 가면 다시는 오기 힘든 고향을 뒤로 하고 그렇게 맵고 쓰다는 시집살이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꽃가마는 고사하고 팔려가듯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나선 길이었다.

장성역을 출발한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다. 몇 번인가 웅크린 자세로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났다. 내동의 너른 들판과 집 근처 대나무밭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서울역에서 탄 버스는 왕십리를 지나 송파강으로 향했다. 송파에서 똑딱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그렇게 우리 일행은 오금동, 언니의 시댁이 될 오금동에 도착했다.

“기차, 저 버스 타고 장성역 가서 장성역서 저기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면은 서울역서 내리잖아요. 그뻬 서울역서 또 버스 타잖아. 버스 타고 여기 송파 저기 왕십리 지내 와서 송파강이 있었어요. 푹푹이 푹푹 하고 조그만 배가 입작 여기 강이면은 입작 인자 우리가 와서 딱 섰으면은 그 배 타서 푹푹이 접작 끝에다가 내려주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푹푹이, 이름이 푹푹이에요. 조그만 배 찍그만 그 걸 타고 오금동 우리 언니네로 왔어요.”

8

언니네 시택은 문정동 고개 너머 오주중학교 근처였다. 오주중학교를 왼쪽으로 두고 약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골목으로 쑥 들어간 곳에 언니네 시택이었다. 언니는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곳까지 데리고 간 뽕새 할머니는 이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담양 시골구석에서 서울의 오금동까지 연이 닿는 뽕새 할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였다. 인터넷 메일이나 휴대폰은 고사하고 우체국 전보도 쉽지 않던 시절, 뽕새 할머니는 어떻게 그 먼 서울의 오금동을 알게 되었을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뽕새 할머니의 그런 수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것이 아쉽다.

언니의 시택이 될 오금동 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버스와 기차 거기다 푹푹이 배까지 번갈아가며 길고 긴 여정을 보낸 지친 몸이 잠깐 선잠이 들어나 싶었다. 그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왁자지껄하여 새벽 선잠에서 깨어났다. 알고 보니 그녀가 가기로 되어 있는 신랑집에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가마꾼을 보내온 것이었다. 황급히 가마꾼을 따라 나섰다. 언니와 변변히 작별 인사도 나눌 수 없었다. 누가 막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경황이 없었던 것이다. 사방이 채 밝아지지 않은 새벽이었다.

영화 <붉은 수수밭>의 여주인공이 시집가는 장면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가마꾼들이 장난삼아 씩씩이 흔들어대는 가마와 그 안에 타고 있던 여주인공의 표정을 기억할 것이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남편 될 사람의 집으로 가마에 실려가는 여주인공의 처지는, 새벽에 오금동을 떠나는 가마 속의 그녀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 가마는 흔들림 없이 조신했지만 마음은 길을 갈수록 멍멍했다. 멍멍한 마음 속 만큼이나 날이 어둑해졌을 때 가마는 시택에 도착했다.

9

시택이라고 도착해 보니 거지꼴도 그런 거지꼴이 세상에 다시 없을듯 싶었다. 담양의 친정이 아무리 못 살아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오는 것이 그랬듯이, 떠나는 것도 그녀의 선택 사항은 아니었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삶은 은행동 그때 이름으로 감나무골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 나이 열일곱, 신랑은 21살이었고, 외딴 집이었다.

“무슨 쪽지 하나만 뻘러면 그길로 걸어가서 띠고. 남한산성 면사무소 가서. 파출소 불 일 있으면 걸어서 그리 올라가고 그랬어. 그리고 여런 디 파출소 뭐 아무것도 없었어. 저기 송과 있고. 송과장 보고. 송과가 여기서 20리야 걸어 그렇게 멍겼어. 아무 것도 없었어. 산골 군데군데 원주민 몇 집씩 있고. 논밭 있고 산 있고 그렇게 살았어.”

그녀는 피눈물 흘려가면서 살림을 하고 돈을 모았다. 세월도 수상하기 이를 데 없어 태평양전쟁도 겪었고, 육이오 난리도 치러야 했다. 시택 식구들도 무던 애를 먹었다. 시아재는 전쟁 통에 행방불명 되었고, 시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지고 남편도 중풍으로 쓰러졌다. 대소변 받아가며 보낸 세월이 합쳐서 8년이다. 그래도 생

각하면 불쌍하다. 가난한 살림이 갖은 고생 끝에 조금씩 퍼기 시작할 때 시어머니도 남편도 풍을 맞게 된 것 같아 참 안쓰럽다.

“두 내외 결혼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재산 모아서 느이 아들 셋, 두 딸들은 쥐보지도 못하고, 느이 아들 셋이 짝 노나 가졌다 내가 그래. 그리고 너 아버지는 복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나하고 둘이 장만해 노니까. 느이 할머니 오남매 나서서 품팔아 가매 길러놓으시고 우리가 잘 해서 잡수 진지 좀 잡술만 하나까 못 잡수고 그냥 돌아가더라. 그냥도 안 돌아갔어요. 이 감낭구밭 터에서 살 제 3년을 중풍 맞아서 소대변 보고. 아유 나 고상한 거로. 그냥 소대변 본 거를 쳤어요 내가.”

10

그녀의 시택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밑으로 시아재와 큰 동서를 비롯하여 아홉 식구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녀와 얼마 후에 태어날 조카딸을 합치면 열한 식구가 되었다. 그 중에는 네 살 먹은 장조카 성천이가 있었는데, 시집 온 이듬해 봄에 홍역을 앓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큰동서는 얼마 못미처 남편마저 잃었다.

일정 때 면서기는 권력이 막강했다. 그녀의 시아재는 면서기의 권력에 당한 것이었다. 돈 한 주먹 집어주면 부잣집 귀한 자제들은 군대도 빼주었다. 빼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억울한 일은 돈 없는 가난한 집 아들들에게 닥쳤다. 그들은 부잣집 자제들을 대신해야 해야 했다. 그녀의 시아재도 영똥하게 대신 찍혀 군대에 보내졌다.

“면서기가 남한산성 땡이는 면서기가 남문 요쪽으로 담당이었어요. 담당이었는데 그때 일본 정치 때는요 돈만 있으면 군인도 안 나갔어요. 돈 한 주먹 집어 줘요.

돈 많은 집이서 한 주먹 집어 주고 우리 아들 좀 군인 안 가게 빼다오 하면 빼줘요. 그러면 어려운 집 자식 돈 없어서 빼내지도 못할 자식 엉뚱한 사람 찍어 보내요. 우리 시아재 그렇게 찍어보냈어요. 그렇죠 대신 간 거죠.”

그녀의 시아재가 태평양전쟁에 징병 나갈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 되었다. 그중에는 논골 살던 적은들이도 있었고 널문리 사람도 하나 끼여 있었다. 후에 널문리 사람 하나만 돌아왔다. 그는 폭격이 쏟아지던 불구덩이 같던 전쟁터를 헤매고 다녔다고 했다. 미국 비행기들이 폭탄을 지랄 같이 떨어뜨린 전쟁터에서 어찌어찌 살아났고, 해방이 되었다고 했다. 널문리 사람은 자기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의 시아재가 어찌 행방불명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시아재는 장수, 또 논골 사람은 작은돌이, 또 널문리 사람. 널문리 사람도 갔대요. 근데 널문리 사람 소식이 왔어요 우리 집이로. 요 감낭구밭에 살 적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장수는 나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것어요. 불구덩이서 폭격지고 팔일오 해방 뒀잖아요 들부수다가.”

장조카가 죽고 나서 태어난 조카딸은 신여덟에 세상을 떠났다. 네 살에 죽은 오빠에 비하여 모진 목숨 잘 버텨낸 세월이었다. 다만 그녀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어도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다.

그녀가 시집 왔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은행동 일대에는 집들이 듚성듬성 자리잡고 있었다. 응달말에 열댓 집, 옷말에도 몇 집, 그리고 따로 따로 또 몇 집씩 흩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남의 논을 부쳤다. 땅주인은 남한

산성 내에 살던 안경원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시집이 있던 감나무골도 안경원 소유의 감나무밭이 있던 곳이었다. 시집 온 이듬해 시어머니를 따라 된장을 얻으러 간 곳도 안경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은행동 금광동 일대의 땅은 세 뭇 중에서 두 뭇이 안경원이라는 사람의 땅이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거진 다 안경원의 땅을 소작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뭇은 나라 땅이거나 일본사람들 소유였다.

“시어머니가 된장 얻으러 왔는데 나도 쫓아갔었어요. 열일곱 가을에 와 가지고 구정 쇠고 봄에 된장 얻으러 가면서, ‘애 새아가 나 된장 얻으러 남한산성 가는데 쫓아갈래.’ 그래서 내가 ‘네 엄니 나도 가요 나도 가요.’ 꺾죽꺾죽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된장을 한 통을 수북이 퍼주고요. 오만 그집 땅을 우리가 해 묵고 살아요. 이 금광동 아랫니 웃니 안경원 네 땅이야 다아.”

그렇지만 남의 땅 농사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소작농 일년 농사래야 한 해를 넘기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품일을 하러 다녀야 했다. 그녀의 집에서도 시어머니, 큰 동서, 그리고 남편 할 것 없이 품을 팔러 다녔다. 그나마 품삯으로 당장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했다. 소작 짓는 땅은 내버려두고, 품일이 생기면 품일을 나갔다. 비료도 없던 시절이라 풀 베서 농사에 쓸 퇴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품삯으로 하루를 버터내는 것이 시급했다.

“당장은 먹어야 살으니까 저 금광동 저 건너 은행시장 건너 지금 양지동이라쥬. 은응지야 거기야. 동네 이름이 은응지(은응지는 은행정이 혹은 은능쟁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은응지 부잣집이 있었어 몇 집. 또 금광동도 바깥양반 친구들도 더러 살았어요. 그 방앗간 집이 춘수네 춘수네라고. 그 집 가서 우리가 품 팔아다 먹고 이려고 살았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허니까 품 팔러 가는 거야 그냥.”

시아재를 찍어보냈던 면서기는 많은 돈을 모았다. 대신 찍어보낸 가난한 집 자식들의 죽음과 고통의 댓가였다. 그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땅을 사들였다. 땅을 사들이고 나서는 원래 그 땅을 부치던 소작을 다 떼어 버렸다. 졸지에 여러 집이 산 목숨에 밥그릇 뺏긴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시집도 부치던 땅 일부를 면서기에게 넘겨줘야 했다. 하지만 그러던 면서기의 위세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육이오 때 그는 폭삭 망해버렸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참으로 좋았다. 당장 그들 눈앞에서 악질 같던 면서기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고소했다.

“그 면서기 그 집이 고냥 불쌍한 사람 땅만 다 사서 떠드라고요. 그런데 그 집 지금 폭삭 망해부렀어. 돈 한 몽태기씩 면서기질서 벌어가지고 다 우리 땅만 사가지고 떠어버리. 저희가 해 묵는다고 뺏어. 그니까 산 목숨 밥그릇 뺏은 식 아니야. 당장 내 눈 떠서 죄받드라고. 폭삭 망해부렀어. 육이오 난리 때.”

육이오가 나서 남한과 북한이 밀고 밀릴 때, 면서기는 북한 쪽을 택했다. 사람들은 왜 그가 빨갱이 패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함께 쫓아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의 시아재가 그랬던 것처럼,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큰 아들이 일곱 살 되던 1951년 무렵,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끝은 오리무중이 되었다. 중공군은 밀려 내려오고, 미군의 비행기 폭격은 심해졌다. 소마차에 쌀가마와 이불 하나 싣고 피난을 나섰다. 하지만 피난길도 여의치 않아 분당 서구배미까지 갔다가 돌아온 일도 있었다. 한 열흘 만에 되돌아 왔는데 떠날 때 감춰뒀던 쌀은 누군가 가져가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13

시골 사람들은 일년 내내 농사지어도 공출이다 소작료다 내고 나면 동짓달 선달 정월 이월 네댓 달을 넘기기 힘들었다. 결국엔 장리쌀을 빌려야 하는 처지들이 태반이었다. 고봉으로 열 말을 빌리면 가을에 열다섯 말, 가마 반을 갚아야 했다. 시골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어려웠다. 있는 사람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은 평생 못 먹고 못 사는 세월이 계속 되고 있었다. 그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서 서울이나 시골이나 다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는 소리가 남의 땅이라도 내가 하든 거 절대 내놓지 마라.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러더니 상한(상환) 나라로 갚으라 땅값을. 남의 땅을 인자 농사지면 가을에 인자 일본놈이 공출 갚으래지 또 장리쌀 먹고 살잖아 당장. 고봉 열 말 묵으면 열닷말을 갚어요 가을에. 가마 반을 갚어. 그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로 갚으래.”

그녀는 6년을 갚고 나서야 오랫동안 부쳐오던 남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다.

14

신혼 첫날 밤 열일곱 신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족두리를 쓰고 사람들이 앉혀놓았던 상태 그대로 앉아 있었더니, 신랑이 족두리도 벗기고 옷도 벗겨내고 안아다 자리에 눕혔다. 다음날 아침 큰 동서를 따라 서투른 부엌일을 하고 있을 때 신랑이 세수대야를 가져다 대었다. 아침 슷물을 부어달라는 뜻이었다. 그레한 바가지 부어주면서 신랑의 얼굴을 슬쩍 보았다. 처음 보는 신랑 얼굴이었다. 얼

굴을 훑쳐보는 신부를 신랑은 보는 등 마는 등 했다.

신랑은 술을 좋아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술주정이 많아지는 것 같았고, 또 그럴 때마다 화도 잘 내고 손찌검도 잘 했다. 작대기를 들고 그녀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것도 여러 차례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런 남편과 사는 것도 자신의 사주팔자거니 했다. 한번은 새참을 남들보다 늦도록 안 내온다고 신랑이 수령논에 꽃아둔 작대기를 뽑아들고서 때려죽이겠다고 부엌까지 한 걸음에 쫓아온 일까지 있었다.

“저기 우리 영감이. 소도 풍덩 빠질 수도 있고 사람도 지내가다 풍덩 빠질 수가 있으니까 수령논, 그냥 허방이야, 물 짹 짹 솟는. 그래서 그거 표시할라고 작대기 꽃아는 거. 나 그걸로 때려죽일라고 산길로 질러서 요 감나무 밑에서 외딴 곳에. 칼국수를 허고 있는데 나 때려죽일라고 수령논 작대기를 빼가지고 질질 끌고 와.”

그 때 그녀는 새참으로 내갈 칼국수를 만드느라 바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아 마음은 방망이질을 하였다. 그래도 애호박 찹찹 썰어 넣고 꾸미를 올린 후 깨소금까지 살짝 뿌린 칼국수를 내가면 일꾼들은 훌훌 한입에 털어넣을 것이다. 하지만 작대기를 질질 끌고 오는 남편이 뭔가 단단히 심사가 뒤틀렸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얼른 피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녀가 뒷문으로 피하는 동안, 같이 새참을 준비하던 외사촌 형님이 이게 무슨 것이냐며 얼굴에 팔을 벌려 남편을 가로막아주었다. 다행히 남편을 따돌리고 멀리 피할 수 있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붙들려 또 다시 봉변을 당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도 아끼고 잘 쓰지 않던 그릇이 몇 개 있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높은 선반에 그것을 두었고,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가끔씩 꺼내 썼다. 그날은 야매로 금

니를 하는 이를 집으로 부른 날이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가 좋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이를 해 넣었다. 남편은 그 다음 차례였다. 이를 다 해 넣고, 시어머니는 멀리 문정동에서 와준 이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높은 선반 위에 모셔둔 그릇을 꺼내려 올라섰다가 시어머니는 맥없이 쓰러졌다. 시어머니 등에 업혀 있던 애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앉았다. 무당집을 찾아 물어보았더니 허주가 세서 큰 곳을 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밤낮을 굶을 했다. 큰 곳으로도 시어머니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열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열이 싹 가시고 정신이 돌아왔다. 혀가 오그라들어서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증풍을 앓기 시작하여 3년을 갔다. 그녀는 어린 딸을 들쳐 업고 맨발로 동동거리며 병수발이며 집안을 해내야 했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피눈물. 이제 종일 소대변 싸서 이겨놓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갔다 오면은 이겨놓고 계시고 담벼락도 다 발라놔. 이부자리 옷 범벅을 해똥. 그러면 물을 디어서 댕 양재기 떠놓고 동동바리로 애를 업고 세살 묵은 걸 업고 그냥 죄 씻겨드리고.”

그런데도 남편은 그녀를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들쳐 업은 애가 울기라도 하면, 소리소리 질러댔다. 잠 못 자는 것이 그렇게 원통한 모양이었다.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애 보고 시어머니 병수발하는 아내였건만, 남편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안쓰럽기는 했을까?

남편이 안쓰러워 해주거나 말거나 그녀는 자신의 도리만은 다해야 했다. 증풍을

맞은 시어머니는 국수를 좋아했다. 훌훌 넘어가는 국수를 자주 해드린 덕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중풍에도 몸이 나고 얼굴이 좋아지고 살이 찼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착하고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했다.

“와 가지고는 이렇게 날더러 뭘 해드렸기에 저렇게 얼굴이 뿌옇고 몸이 좋으시냐고. 우리 바깥양반이 면에서 불른 이름은 김운식이, 집에서 동네서 불른 거는 김장질이거든. 그러면서 그 할머니 양가네 집 할머니들이 저 양재동서 와 가지고 날 이렇게 머털 쓰다듬으며, 장질이는 장가를 잘 들어서 잘 살을 거라고. 장질이는 장가를 잘 들어 잘 살 테니 이제 두고 보라고. 나를 손을 붙잡고 그냥 고맙다고. 어머니를 뭘 해드려서 저렇게 뿌옇게 살이 찌시고 저렇게 뿌옇게 빨래를 해 입히셔 났냐고. 그렇게 그런 소리 들었어.”

그리고 보니 그녀가 처음 시집오던 그날도 동네 사람들은 새식구가 잘 들어와 집이 잘 될 거라고 했다. 음력 9월 보름날, 올 때도 아닌 첫눈이 내려, 진짜 부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녀 덕분인지 시택은 자꾸 부자가 되어 갔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지를 국가에 상환하고 내 땅이 된 토지가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하지만 금세 부자가 될 것 같다가도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시어머니의 병치레, 시동생들 장가, 시누이 시집, 집안의 대소사가 그녀 앞에 끊임없이 대들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남편까지도 중풍에 걸려 5년을 앓았다. 장판지 살이 물크덩물크덩하고 등창이 나서 살이 썩어갔다.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이 굳어

졌다. 생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식들은 집 한 채씩이라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중풍으로 똥오줌 싸는 영감을 집에 눕혀놓고 그녀는 새벽이면 집을 나섰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형공장으로, 지퍼공장으로, 가방공장으로 일을 나갔다. 야간까지 하고 집에 오면 12시가 되었다. 신갈에 골프장이 들어설 때는 자갈을 빼내고 잔디를 심고, 또 풀이 돋으면 풀을 땀다.

“인자 야간 하고 오면 12시가 다 돼. 8톤 짜리에다 우리들을 잔뜩 실고 대니며 하대원 창곡동 구종점 보통골 다 돌아 내려놓고 우리집 앞에야. 8톤 왜 저 큰 버스보다 조금 적은 거 있잖아. 차 있는 사람이 사람을 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돈 벌라고. 우리 집 앞에 동사무소 앞에 살았었어.”

은행동이 한가하던 아주 옛날에는 가락시장 저쪽으로 당근밭, 뽕나무밭, 미루나무밭, 무밭, 배추밭을 매리 다니기도 했다. 산나물이 나는 철이 되면 나물을 뜯어 삶아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팔았다. 또 감이 나는 계절이면 그녀는 감광주리를 이고 나섰다. 감나무골에는 감이 지천이었다. 모두다 안경원네 감나무밭이었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감을 따다 팔았다. 홍시만을 골라 두점 석점씩 따서 광주리에 이고 첫 닭이 울 때 길을 나섰다. 물 말아 찬 보리밥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나서야 하는 길이었다. 다섯 명이 나설 때도 있었고 네 명, 혹은 여섯 명의 아낙이 같이 갈 때도 있었다. 그중에 어떤 이는 우는 애를 업어야 했다.

“여기 논골 앞에 한터고개라고 걸어서 넘어가면 안 아팠제 입쪽에서 올라가면. 접쪽에 또 까그매서 내려가면 창말 원주민촌 나오잖아요. 그리 또 질러서 가면은 군영지 별. 군영지 별 지나가면 소새울 잔버들이 김니 오금동. 오금동서 지나가면. 오금동 읍쪽이고 읍쪽 길 있잖아 한길이. 그리 가면 천호동 가서 넘겨. 배시는 600원 천호동 이고 가면 한 집에. 고종시 뽕족뽕족 한 거는 400원, 또 저기 참수시도 400원, 또 당수시 잘잘한 거 뽕그랏고 씨가 많아. 그거는 300원”

천호동 가서 감을 넘기면 점심 먹을 새도 없이 길을 되짚어 돌아왔다. 젓 먹일 시간도 없어 포대기 채로 앞으로 돌려 젓꼭지를 물렸다. 광주리는 애기 없는 사람이 착착 포개서 대신 이었다. 그렇게 잔걸음으로 돌아와도 창말에서 논골로 넘어가는 한티고개에 이르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했다. 아낙들은 칠흙 같은 숲속 고개를 넘을 때면 무서웠다.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지만 어떤 때에는 짐승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어떤 날은 마른골 사는 색시의 신랑이 고개마루까지 마중을 나오기도 했다.

18

감나무골에서는 14년 이상을 살았다. 그리고 외사촌 형님네 옆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는 집을 뜯어 통째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처음에 살던 감나무골 집은 미루나무로 만든 집이었다. 방천 따라 논두렁 밭두렁에 줄지어 심어진 부잣집 소유의 미루나무를 시어머니가 사정사정 하면서 한 그루 두 그루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 남편이 그걸 베고 집지를 터로 옮겼다. 그리고 목수를 얻어 여섯 칸 반 집을 지었다.

집을 옮기면서 썩은 서까래는 버리고 새 목재를 보충하여 끼워 맞췄다. 큰방, 마루, 부엌이 있었고 아랫방 둘에 또 건넌방이 하나인 일곱 칸 반 짜리 집이 다시 올라갔다.

“일곱 칸 반이었다. 방은 큰방 여덟자 짜리 간 반. 말래 큰 말래(마루) 간 반. 부엌 간 반. 여덟자 짜리 한 칸 반. 또 부엌 아래 아랫방 둘. 또 거른방이 하나. 그러는데 작은방 뒤로 부엌이 컸어. 쇠죽 쑤고 간 반을 했어. 그랬는데 간 반을 나중에 방을 만들어 버렸어 또.”

몇 년 뒤에는 237평 집터 한쪽으로 행랑채도 지었다. 은행동에서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변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은 사람들이 와르르 터져서 들어왔다.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1970년대 초반 철거민들의 이주로 시작된 성남 개발 초기의 변화를 그녀는 그렇게 기억했다. 시에서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해 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관에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다.

“집터 하나만 주인네 맘대로 하게 주고, 논밭은 전이라고 그래서 내 도둑놈들이 림도 잘 짓네 그랬어. 논밭은 그냥 뺏어버려. 논 한평에 350원 주고, 밭은 340원 30원. 20원 띠어. 또 밭은 더 싸다고. 그렇게 뺏었어. 우리 농사 지어 먹던 거 다 몽땅. 응 원주민 땅들 다 뺏어서 저희가 응 비싸게 다시 팔아먹고. 좋은 자리는 집 다시 지어서 팔고, 또 한지 띠 준 거라곤 달나라 별나라 꼭대기 팔아도 돈 안 나갈데, 싼 데, 한지 띠어서 주고. 눈쁜 도둑놈들이다. 내가 그랬다고.”

논밭은 혈값에 빼앗기다시피 내놓았고, 집터는 6개동으로 쪼개 하나만 남겼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고 8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그녀의 식구들은 집을 다시 고쳐지었다. 아니 손때가 묻은 목재를 다 버리고 이번에는 3층 벽돌집으로 새로 지어 올렸다. 주변의 다른 집들도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어 갔다.

19

할머니는 이름이 방금순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박금순이다. 수원 사는 큰 아들이 하나 있고, 은행동에서는 둘째 하고 같이 살고 있다. 방금순이 박금순이 된 사연, 그것도 성이 바뀐 데는 무슨 대단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런 것도 아니다. 단순한 사고이거나 실수였다.

“나는 방싯데 박가로 나왔다니까. 똥그래미를 하나를 더 쳤다나 덜 쳤다나. 저 도

민중 혈 때는 방금순으로 나왔는데. 얼마 안 된 거지 뭐, 주민등록증도 두 번째 맨 들었잖아. 얼마 안됐지. 안 그래. (두 번째 바뀔 때 박으로 바꿨다고요?) 응.”

할머니는 인구조사 할 때 통장이나 반장이 잘못 써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 그런데 아들 말을 들으면 동사무소에 불이 나고 서류가 다 탄 적이 있는데 복구하면서 잘못되었다고도 했다. 남편이 동으로 법원으로 쫓아다녀 봤지만 고치기 힘들었다. 며칠 후에 남편이 하는 말이, “아유 애덜 결혼식 금만큼 해놨으니까. 어머니 도장은 아들 딸 혼인신고 할 때나 쓰잖아요. 아버지 도장은 많이 써도.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냥 듭시다.” 그랬단다. 그래서 그녀도 “그래요. 알아서 하슈.” 했단다.

할머니는 열일곱 되던 가을에 은행동에 들어와 지금 여든넷이 되었다. 예순일곱 해의 모진 삶을 은행동에 기대어 살았다. 살아온 날을 되짚어 눈을 감으면 은행동이 먼저 보인다.

“남한산성 여기 아랫녘 금광동이잖아요. 옛날에는 금광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응달말이라 그러고. 응달말. 저 아래 지금 금광동은 금광이 아랫니 금광이. 그리고 저쪽으로 보통골 사그막골 상대원 하대원 다 그렇잖아요.”

은행골 토박이 장사꾼

유전씨 이야기





은행골 토박이 장사꾼

...

유전씨 이야기

1

나는 공부가 하고 싶었다. 12살 무렵이었다. 기억도 분명하다. 동네 가까운 곳에 야학이 하나 생겼는데 그곳에 나가고 싶었다. 민패 도배지를 잘라 공책을 꿰매서 하루 저녁을 다녀왔다. 다음날 저녁에도 요만한 토막 연필 하나를 가지고 야학을 다녀왔다. 이를 뿐이었다. 둘째 날 기어코 사단이 나고 말았다. 아버지가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서는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여자 아이가 밤에 나돌아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여자 아이의 희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인자 공부 할라구 책을 저런 종이를 그냥 되배지를 그전에 민패 썼어요. 그거를 꿰매 가지고 가고 연필을 요만한 도막을 어서 하나 얻어가지고 하루 저녁 나갔다 이를 저녁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패시는 거야. 기집애 바람날라구. 거기는 양학 학교. (양학인지 야학인지 분명치 않다.) 못나갔죠 뭐. 못나가고 배우고 싶고 울고 그랬죠.”

그날 계집애가 바람나려고 어딜 야학에 다니냐며 아버지에게 물썬 얻어맞고 난 이후, 더는 어떤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공회당에 직조틀을 갖춰 놓고 인근 사람들을 모아 옷감을 짜는 직조공장에 나가던 기억이 살아난다. 착실하게 생긴, 13살 정도 된 푹망푹망해 보이는 여자 아이가 맘에 들었는지 반장을 시켜주었다. 실을 나눠주고 다 짠 옷감은 거둬들이는 역할을 맡았다.

“13살 되면서 직조 짜다고 20명이 공회당이라는 데 틀을 놓고 짰어요. 그런 거 이렇게 짜는데. 실을 노나주는데 공부는 못했어도 공부한 사람보다 정신이 더 좋고, 뭐 그런 거 어디 훔쳐거리지도 았구 그럴 사람이라구, 그러니까 니가 반장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쓸지도 몰르고 그러니까, 막 말루만 허래 그럼 자기네가 쓴다구여.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반장을 해가지구 직조 짜는 실도 노나주구 그러다 이제 한 13살 14살꺼정 그걸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먹을 것을 싸다 주기도 했다. 때로는 자기가 먹을 것을 나한테 내밀기도 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의 그런 행동이 단지 선의만은 아니라는 것을 언제쯤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먹을 것이라도 싸다 주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실이 좀 더 많이 돌아갔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때 나는 공부한 사람들보다 정신이 좋고 계산이 빨랐다. 책임자가 볼펜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머리 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잘 맞았다. 뒷날 내가 은행동에서 땅장사며 전표장사며 일수를 했던 것도 이런 총명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

나는 창곡동에서 태어났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남한산성 서편 비탈이다. 창말이라고도 했다. 군량미 창고가 있었다는 말도 있었고, 예전에 청나라 군사가 진을 쳤던 군용지였다는 말도 들었다. 지금도 육군종합행정학교나 국군체육부대니 하는 것들이 있으니 마을의 연원과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토담이 둘러진 집이었는지 싸리울타리 집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허술하기가 매 한가지였을 것이다. 그 허술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뭐하겠는가? 마을에는 새색시가 하나 있었다. 우리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색시를 참하고 얹전하다 하였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색시가 온순하다 하였다. 얼마 후에 색시가 우리집을 찾아 감나무골에 사는 친정의 남동생을 중매를 했다. 우리집에서는 누이를 보고 동생도 착하겠거니 중매를 받았다.

“우리 영감 누이가 살었어 동네에. 왜정 때죠. 누님이 우리 영감 누님이 살었어 동네서. 인제 자기 누이가 동생을 날 중매 스는 거지. 그러니깐 우리 아버지 허고 어머니 허고 저이가 저렇게 얹전하니까 동상도 착할 거다.”

그 누이의 동생이 내 남편이 된 사람이었다. 자기 누이만큼이나 착실하고, 또 나를 끔찍하게 위해 주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 감나무골에 살면서도 고개 너머 있는 처가의 일도 잘 도왔다. 아니 사람들은 그를 데릴사위라고 말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를 불러들여 머슴처럼 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다.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온순하고 착실하고 또 처가와 나한테 잘 했다.

나를 아끼고 위해 주는 마음만 따지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 뿐이었다. 집안은 세상에 짝이 없을 것만 같이 지독하게 가난했다. 아홉 살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의탁해 살았다고 했다.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신혼살림 차릴 집 한 칸 없었다.

어쩔 때는 그런 곳으로 딸을 시집보낸 친정 부모의 마음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 같은 해에 같은 감나무골로 시집온, 나보다 두 살 위인 금순이도 그랬다. 금순이는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언니와 둘이 중매쟁이 뺑새 할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도착한 곳이 언니는 서울 오금동이었고, 금순이는 여기 은행동 감나무골이었다. 그리고 은행동을 시택으로 삼고 한 평생을 정 붙이고 살았다.

금순이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혼인 생활의 시작은 한심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막상 혼인을 했지만 집은 고사하고, 방 한 칸 세들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시골 인심 덕에 마을에 남는 공짜 방을 얻어둘 수 있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밥을 끓여먹을 솥단지 하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홉 살에 자기 아버지를 잃었대요. 남의 집 가 사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시집을 해서 여기서 방을 그냥 저것두 안 주구 세두 안 주구 얻어들었었어요. 신랑 쪽이 여기 고향이지. 그런데 시집을 왔는데 솥도 없고. 방은 하나 얻었는데, 일본정치 때라 솥 그런 걸 사질 못했어요. 사춘 시누네가 가보니까는 대문 밖에 혼(헌) 솥 하나가 있더라구. 그래서 성님 그 솥 좀 줘, 나 걸구 밥 좀 해먹게.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걸구 그러구 해먹는데,”

왜정 말기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까지 공출해 가던 시절이라 술단지를 새로 구하기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시누이에게서 공짜로 현 술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가난의 고개는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는 법이다. 잘 방이 해결되면 술이 문제고, 술이 해결되면 양식이 문제였다. 오늘 양식이 해결되면 내일 양식이 다시 문제가 되었다. 남편이 하루 나가 일하면 보리쌀 한 되 정도를 가져왔다. 하루 하루 품을 팔아 입에 풀칠할 양식거리를 물어들이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월에는 잊어먹기 쉽다. 아무도 기억하려 들지 않는다.

왜정 때는 보국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보국대라고도 했다. 멸절한 장정들이 영문도 모르고 차출되어 한달씩 어딘가로 끌려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시절이 그때였다. 그때 남편도 보국단이 나왔는데 막막하기로는 양식 걱정이 첫째였다. 한 달 동안 보국단을 나가 고생해야 하는 신랑 걱정보다, 혼자 남게 될 내 외로움보다, 당장 하루 하루의 양식이 걱정되었다. 저녁에 남편을 붙들고 울었다.

“한 달 보국단이 나온 거야 영감이. 보국단이라고 전에 있었어요. 일본 정치 때 한 달 어디 가 일하는 보국단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울은 거야. 나는 당신 가면 굶어 죽을 테니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다 주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인제 친척집이 화장실 불이 나서 거기 가서 5일을 일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뭐 곡식을 달래서 갖다 놓는다구.”

면서기를 보러 다니는 그 집은 형편이 살만 했는데, 남편은 무시로 그 집일을 도와주곤 했었다. 얼마 전에도 불이 난 화장실을 다시 지어주는데 5일 품을 버렸다.

5일치 품삯은 쌀보리 한 되로 돌아왔다. 남편이 보국단에 나가 있는 한 달 동안은 죽으나 사나 그것으로 연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6

남편이 남의 집 화장실을 지어주고 대신 받아온 쌀보리 한 되가 한 달 식량이었다. 다른 방안은 없었다.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것으로 한 달을 버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죽을 수도 있었다. 나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멧돌을 빌려 왔다. 그리고 보리쌀 한 되를 멧돌에 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보리쌀 가루를 한 움큼씩 끓여 매일 한 모금씩 마셨다. 며칠을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영양실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걸 가지구 멧돌을 얻어다 싹 갈아가지고 한 달 올 동안에 한 움큼씩 물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인제 한 두 그릇 넘게 끓여요. 하루에 낮이면 그거를 한 모금씩 마셨어. 그러니까 하두 그러다 보니까 사람두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안 보여 일어나 땡길 수두 없구.”

그때 일을 기억하다 보니 문득 며칠 전 텔레비에서 보았던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 8살 때 아버지를 따라 무덤에 갔다가 종아리뼈를 다치면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영양실조로 그해 두 눈마저 잃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절망했지만 훗날 기업을 세우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몸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꿈에 장애는 없다고 말하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 내가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성공담 때

문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는 잘 알 것이다. 다만 나도 것처럼 지독한 가난과 영양실조로 앞이 잘 안 보여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의 시력 장애를 가지는 동병상련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때 언니가 찾아왔다. 남한산성 안 산성리에 사는 언니였다. 언니는 혼자 있는 내가 안쓰러웠던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남편이 보국단에서 돌아올 때까지 만이라도 자기 집에 가 있자고 했다. 그런데 나는 너무 굶어서 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먹은 것이 체해서 걸을 수 없다고 돌려뒀다.

“근데 언니가 왔어, 언니가 와서 애~애~ 우리 언니는 남한산성서 사는데, 애~애 우리집이 가자 그래서, 아이 언니 나 못가! 나 먹은 게 체서 토하구 그래서 못가. 나는 굶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못 가는데, 그렇게 핑계를 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먹니? 아유 그 전에는 먹은 게 체면 식소다 그거 밖에 없었어요. (식소다?) 그래서 그걸, 언니 나 약 먹었어. 소다 먹었어.”

7

봄에는 나물을 뜯어다 팔았다. 은행동에서 왕십리까지는 50여리, 천호동까지는 40여리였다. 무거운 나물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걸으면 왕십리는 서너 시간, 천호동은 두세 시간이 족히 걸리는 거리였다. 15살에 시집 와서 16살 어린 나이에 쪽진 머리를 하고서, 나물 광주리를 이고 이집 저집을 기웃거리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불러 세워 사연을 묻기도 했다. 젊은 처자가 보기에 안쓰러웠던지 뒷마루에서 밥도 주고 옥수수도 내어주었다.

“나물을 뜯어다 이구 팔러가서 아유 나물 좀 사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젊은이가 이걸 팔러 다니우 그래. 쪽은 이만하게 찌구 아 그럼 15살에 시집 와서 16살이니.

그래서 이리저리해서 신랑이 보국단을 가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걸 뜯어가지구 왔다. 그러면 들어오래 가지구 뿔말래에다 밥두 주구. 또 일본 정치 때라 옥수수 그걸 주구 나물두 사요. 그럼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담그지 인저. 담귀서 그걸 싹 갈 아요 멧돌에다 콩 갈듯. 그래 가지구 죽을 썰먹었어.”

여름에는 솔방울을 따다가 팔았다. 솔방울은 한 가마에 100원이었다. 두 가마 가득 따서 묶으면 부피가 대단했다. 그걸 밑에 널빤지를 대고 머리에 이었다. 그리고 세곡동으로 나갔다. 솔방울은 풀무를 사용하는 곳에서 주로 샀다. 솔방울을 집어 넣고 풀무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면 화력이 좋았다.

8

남의 집 아궁이에 화력이 좋아도 우리 집 형편은 쉬 좋아지지 않았다. 남편이 보국단에서 돌아온 뒤에도 나는 장사를 다녔다. 나와 남편은 자주 나무장수가 되었다. 산에서 뱀비에 밥을 해먹어 가면서 하루 종일 솔가리를 굶었다. 남편도 하루 석 짐씩 나무를 했다. 남편의 나뭇짐은 송파장에서 마차로 나무를 사러오는 큰 장사꾼에 넘겼고, 내가 굶어 모은 솔가리 나뭇단은 다음날 송파장으로 직접 이고 가서 팔았다.

“나는 새벽같이 송파장으로 가리를 팔러가는 거야. 집집마다 땀기면서 낭구 사세요 낭구 사세요 이래는 거야. 그러면 산대는 사람 있구, '안사여!' 이러는 집도 있구, 여 들어와 보라는 집두 있구. 그게 200원이야. 한 단이지 이렇게 묶은 게. 그럼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배고파 죽겠으면 건빵 하나면 1원이야. 낭구는 200원이구, 이제 건빵 한 봉을 사가지고 오다 어디 와서 물을 마시고 먹어두 살것드라구!”

송파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친정 마을을 지났다. 그곳에서 은행동으로 오려면 다시 고개 하나를 넘었다. 1원 하는 건빵 한 봉지라도 사서 먹는 날이면 고갯마루를 넘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그것도 없는 날이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 굶어먹었다. 그런 중에도 오가는 길목에 있던 친정에는 단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뭘 친정엘 들어가랴 싶었다. 죽어도 그냥 죽지 친정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긴 싫었다. 그리고 고갯길이 좀 익숙해지면서는 나뭇단을 지게에 짊어졌다. 한 단 이고 가던 것을 곱절을 질 수가 있었다. 200원의 수입이 400원이 된 셈이었다.

9

내가 장사를 나가면 남편은 농사일을 했다. 벼도 베고, 콩도 꺾었다. 결혼하고 처음은 논 서마지기를 얻어서 부쳤다. 논일은 많았다. 가래질도 해야 할 텐데 사람 셋이 필요했다. 줄을 양쪽에서 붙들고 끌면 뒤에서 한 사람이 가래를 조정해 나간다. 그런데 일꾼에게 밥 해 줄 쌀조차 없었다.

“그래서 이장 집에 쫓아갔어. 쪽은 이렇게 찌고 쫓아가서 나 배급패 좀 해달라고 그랬어. 논 서마지기를 얻었는데 가래질을 해야 할 텐데 가래질은 인저 사람 셋이 해요. 그러는데 밥 좀 해주게 배급쌀 좀 달라 그러니까, 누구유? 그래. 아무개 병인이 처라구, 영감이 병인이야. 그러우 그러더니 배급 납작보릿쌀 두 대 허구 쌀 두 대 허구 저 수진리가서 타라구 배급표를 해주더라구.”

왜정 때의 이야기였다. 그때 수진리에는 배급을 해주는 집이 있었다. 그곳에 가서 쌀 두되, 보리쌀 두되를 타왔다. 그렇게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타작하는 날 땅임자가 찾아왔다. 땅임자에게는 점심상을 특별하게 따로 챙겨 대접했다. 한 상 잘 먹고 나면 땅임자는 수확한 쌀을 저울로 달아서 반반으로 나눴다. 하나는 자기네

내가 신일곱에 혼자 됐어요.”

감 400개 너 접을 이고 가서, 두 접은 도매로 넘기고 나머지 두 접은 노상에 직접 팔고 오는 날이면, 한티고개는 깜깜한 칠흙이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자주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영감이 등불을 데려가지구 그 한티고개라는데 와 가지구 우~ 군홧 해요. 우~우~ 이제 내 목소리가 오나 안오나 그걸 들을라구 우우~하면서 등불을 들구서 넘어 노는 거야. 그럼 나두 마주대구 우~우~그러죠. 그러면 가며는 광주리죠, 광주린 데 들을라구 그러구 또 업자구 그래요. 업자구 그래요. 아유 여보 괜찮어 괜찮어 괜찮어. 쩡일 그 고생했는데 업어 다리 아퍼 업어 업어. 그러면 어떤 땐 조금 업혀도 오구.”

해마다 10월 보름이 되면 동네에서 회의가 열렸다. 근처 4개 동네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벼 한 말씩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다. 벼는 한 해 동안 마을 일로 수고한 마을 이장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되었다. 일종의 수당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 네 동네야. 웃던대 던대 은응리 논굴. 이장이 인저 (다시 웃던대) 응 웃던대 던대 (던대) 은행동 (은행동) 논꿀 (논굴) 그런데 그 4부락에서 이장이 하나야. 이장이 하나면은 10월 보름날 회의를 하면 벼 한말씩 가지고 가는 거야.”

하지만 우리 집은 벼 한 말을 마련할 수 없어서 동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은행동에 살면서도 정식 마을 주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았다.

12

해방이 되고 나서도 나는 나물 장사, 열무 장사, 떡 장사, 나무 장사, 감 장사,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다. 밤에도 잠을 안 자다시피 하고 일을 했다. 빨래도 낮일 끝내고 밤중에 했다. 감나무골 다섯 집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른 새벽에 일을 나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사람들은 우리집 싸리문이 늘 닫혀있는 것만 보았다.

그렇게 일을 해서 해마다 땅을 사 들었다. 내 땅이 8000평이 되었을 때 나는 근처 4부락 중에서 제일가는 땅부자가 되었다. 솔 하나 얻어다 걸고 시작한 살림이 그렇게 커진 것이다. 그 솔은 해방이 되자마자 원래 주인이 돌려달라기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송파장에서 한 동이들이 솔을 사다 걸었다. 솔 하나로 물도 끓이고, 밥도 해먹었다. 아니 밥이라도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살림이 아니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악착스러움을 무슨 말로 할 수 있을까?

“죽 썬먹죠, 밥이나 제대로 해 먹어요? 그렇게 해 먹는데, 그 뭐 오죽 허겼어요. 오죽 허겼어. 그래서 내가 뼈가 부서지나 내가 못 사나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잣말로. 내가 속으로 난 자식을 나 같이 고생을 시키면 어떡허랴? 인제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드라구.”

13

열심히 살았고 살림 형편도 조금씩 나아져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울 나가서 유학을 하게 되자, 역시 돈 대기가 어려웠다. 고추를 따다 팔아도 아이들에게 가져갈 돈은 부족했다. 포대를 풀어 실로 감아다 주는 일도 했는데, 막내딸 하고 같이 종일 포대 풀는 일을 해도 하루 30원 벌이 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수를 내야 했다.

“그래서, 에이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아무 것도 몰라두 일수를 해 봐야겠다. 일수를 헌 거야. 한 집인 만원을 주구 한 집인 오천원을 준 거야. 그래 가지구 인저 일수를 했어요. 근데 이저 내가 마흔살서 70살꺼정 했어. 칠십살꺼정 한 거야. 40살서부터 30년을 헌 거야.”

다른 사람이 6부 이자에 일수를 놓으면 나는 3부로 줬다. 그래서 더 많이 놓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것이다. 그것으로 아이들 서울 유학이며 시집 장가를 보내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내가 지금 쓸 것도 그렇게 챙겼다.

14

철거민들이 은행동으로 몰려들던 때가 언제인지 나는 잘 헤아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말이 70년대 초반이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금새 잊어먹는다. 나는 그때 천막촌에서 살던 철거민들 덕에 많은 돈을 벌었다. 철거민들은 당장이 궁해서 8평씩 받은 땅 분양권을 팔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딱지라고 불렀다. 하루하루 일하고 품값 대신 받은 전표도 있었는데 그것은 보름에 한 번씩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내 이름도 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들을 샀다. 그리고 그것을 되팔아 이윤을 남겼다.

“철거민 들어올 적에도 인제 8평씩 타요. 집터를 타면 그걸 2천 원씩 팔어 먹어요. 철거민들이 인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2천 원씩 사요. 또 일 허는 사람들 하루에 8백 원씩 품값을 인제 표루 줘. 그럼 전표 장사도 한 거야 내가. 저녁 되면 그냥 우리 집으로 나래비서 들어와요 그 전표 팔러. 우선 보름 만에 나오니까 먹고 지낼 수가 없으니까 팔아야 먹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사요. 자꾸 사가지고 집장사도 하구 그렇게 땅장사도 하구 전표장사도 하구 안 한건 없어.”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었다. 대대로 지역에서 땅부자로 살아오던 사람들도 일제와 해방과 육이오를 거치면서 권세가 예전만 같지 못하기도 했다.

16

있는 사람은 생전 있고, 없는 사람은 생전 없는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화장실 지어준 5일치 품삯으로 고작 쌀보리 한 되라고 생각했던 집안 형님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해서 자꾸 입바른 소리를 해대지도 않는다. 오히려 불쌍하게 알고 친절하게 대하려 하였다. 그게 내가 살아 나가는 방법이고 원칙이었다.

큰머느리는 전라도 처자였다. 아버지는 면장이었고, 어머니는 선생이었다. 녀석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길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았다고 했다. 토막진 기억들에 따르면, 나무를 직접 해다 땀다고도 했다. 아들이 머느리감이라고 집에 데려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알량한 처지였다. 그래도 나는 머느리를 받아들였고 또 잘 챙겼다. 그럴수록 한 눈 팔지 말고 잘해야 한다고 아들한테 외려 충고를 했다.

“내가 아들 보구두 그랬어. 그 머느리를 내가 잘 그늘러야 내가 밥을 먹구 살것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구 저렇게 굴러댕기는 재를 한 눈을 팔면 안돼. 그러구 인제 그 머느리가 다 해 가지고 온 거 마냥 집안 보는 텐 해주구 그랬는데. 머느리가 지금 무척 잘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르던 메누리두. 그래서 이런 머느릴 내가 잘 그늘러야 내가 복을 받지 밥을 먹지.”

스물네 살 머느리를 얻던 날의 기억도 새롭다. 은행동 일대에 천막촌이 조금씩

물론 그 후로도 다녔다 안 다니기를 반복했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장로가 되었고 사람도 괜찮아졌다. 나는 그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입바른 모진 소리 안한 덕이라고 생각했다. 없는 사람의 사정이라곤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못했던 집안 형님에게까지 잘한 덕이라고 생각했다. 또 보잘 것 없던 며느리를 괘시하지 않은 덕이라고도 생각했다.

18

몸에 밴 일하는 습관은 무섭다. 수많은 행상으로 단련된 몸은 일하는 습관을 기억했다. 여든이 넘은 지금도 나는 크고 작은 집안을 계속한다. 그렇게 몸서리치던 일이 요즘은 몸과 마음을 놀리는 놀잇감이 된 느낌이다. 나는 새벽 다섯 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행상 다닐 때 붙은 습관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탓일 수도 있다.

“일 없어도 일어나서 인저 내가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나가서 밥통에 쌀 씻어가지구 좀 담귀두면 불어지면 밥 얹혀놓고 찌개 얹혀놓고, 여태 지금까지정도 그렇게 해 주구. 토요일 날이면 쓰레기 해 주구 다. 하루 걸러 쓰레질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죄 쓸구 흠치구 그래요. 지금두 그렇게 놀진 않아여. 일허던 식이 있어서. 놀으면 답답하구, 허구 싶어서 못 배기구 그렇게 해요.”

방이 여덟 개인 큰 집을 다 쓸고 닦고 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래도 쉬엄쉬엄 어쩔 땐 늘상 쓰는 방만, 또 가끔씩은 방 전체를 쓸고 닦는다. 혹시 이 큰 집에 몇 식구가 사는지 궁금한 독자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짐작했던 대로 나와 큰아들 며느리 세 식구가 산다. 빈 방을 세를 줄 수도 있지만 아들이 그냥 마음 복잡하지 않고 한가하게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지낸다. 겨울이면 빈 방들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일러를 가끔씩 돌려야 한다. 사실 그런 데 돈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깝기도 한

은행권에 남겨진 아이들

지용씨 이야기





은행골에 남겨진 아이들

...

지용씨 이야기

1

사람들은 은행1동을 달동네라 불렀고, 은행2동을 별동네라 불렀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불렀다. 지대는 좀 높고 오르막도 많았다.

90년대 초반, 은행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골목마다 평상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평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 그러다 술에 취하면 그대로 쓰러져 잤다. 그러면 또 옆집에서는 부부싸움으로 시끄러웠다. 빨래줄에 널린 남의 속옷도 부지런히 주워갔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이었다. 밀리고 밀리다 갈 데가 없어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다. 도망간 마누라를 찾으러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경마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꽤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대거 한 곳에 몰려 살기도 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거의 농촌이나 비슷하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친족 여기 누구 한 명이 왔다 하면은 이제 지방에서 그 친척 따라서 쭈루룩 쭈루룩 해서 올라와가지고 뭐 자기 친척들 꽤 많이 살아요. 이제 그러고 해서 이제 보면은

그런 시골적인 뭐 이런 냄새도 좀 있었고.”

사람들이 다양한만큼 은행동 골목들은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분위기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삶의 활력도 있었다. 물론 은행동 주민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개 은행동이 감나무골과 논골로 불리던 시절부터 살던 원주민들이었다. 그들은 1970년 초반 불하받은 땅을 잘 굴렀다.

“뭐 8평씩 불하받은 거 그거 그냥 거저 먹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해서 거의 뺏다시피 해서 먹거나 혹은 뭐 말뚝 쳐가지고 자기 땅 뭐 이렇게 해서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고렇게 해서 재산을 늘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로 고단한 삶들이 웅크리고 사는 공간이 은행동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은행동을 택하기 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났다.

2

그의 기억 속의 순창은 배고픈 곳이었고, 어울리지 않게 반공과 국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곳이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의 식구들도 봄철 보릿고개 때는 진달래 따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었다. 학교에서 옥수수 죽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면 그는 그걸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집에 가지고 와 식구들이랑 나눠먹었다.

동네에는 라디오가 하나 있었지만 스피커는 여러 군데로 연결되어있었다. 라디오 소리는 시시때때로 온 동네를 흘러다녔다.

“이제 저희들이 순창 쌍치면에 있을 때가 그 동네에 있어서의 제일 가난한 계층은 아니었고 한 중간 정도 됐는데요. 중간 정도 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동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스피커만 각 집에 있어서 김삿갓 북한 방랑기 고걸 들으면서 이제 고구마를 점심 대신에 그렇게 고구마를 먹던 기억이 좀 나고요.”

점심 무렵에도 라디오 소리는 어김없이 흘러나왔다. 그때 들었던 5분극 김삿갓 북한 방랑기는 반공을 최우선으로 하던 그 시절을 대표했던 소리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선거 때에 작대기 하나는 누구 작대기 들은 누구 하면서 동네 어귀의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나붙었던 선거 벽보는 그 시대를 대변하던 풍경들 중 하나였다.

3

형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할머니는 형을 데리고 읍내로 나갔다. 그때 그도 묻어서 읍내로 갔다. 순창 읍내에는 고향 마을에 없던 휘황한 전기불이 들어왔다. 순창 읍내의 시장통에서 처음 경험했던 전깃불과, 그리고 하수도시설은 웬일인지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다시 형을 데리고 광주로 갔다. 그러나 그는 따라갈 수 없었다.

“순창에서 이제 저희 형이랑 같이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이제 같이 살았는데, 또 형이 고등학교를 광주로 가야 되니까 또 할머니는 형 데리고 광주로 갔고 저 혼자 이제 친척집에 맡겨져 있었죠. 제가 가만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굶었던 적이 그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옷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노란 세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진 걸 한 몇 달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가 다니던 중학교 앞에는 중국집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냄새가 풍겨왔다. 그토록 지독하게 구미를 자극하던 음식냄새를 여태껏 다시 맡아보지는 못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런 데서 자장면을 꼭 사먹어 봐야겠다고 수백 번도 더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는 운동장 수돗가로 가 물을 배부르도록 마셨다.

자장면을 먹을 때면 그는 가끔은 그 시절을 생각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머니도 함께 생각났다. 할머니는 손주들 교육을 위해 맹자의 어머니처럼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부족하면 손주들 손을 잡고 직접 친척집이나 아는 집을 찾아가서 빌렸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고향 순창에는 중학교마저 제대로 졸업한 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드물었다. 하나같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자식 교육도 급선무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때 그의 형제들은 순전히 할머니 덕분에 학교를 이어갈 수 있었다.

4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텔레비전을 처음 보았다. 장소는 작은 할아버지 집이었고 그곳은 광주 시내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는 무슨 일 때문인지 기억에는 없지만, 다섯째 작은 할아버지네에 들렀다. 방 안에서는 작은 할아버지가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 표면에 착륙하는 걸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같은 장면을 몰래 저 뒤편 멀리서 보았다. 고향에서 마을 전체를 상대로 대놓고 울려 퍼지던 라디오 소리와는 달랐다. 텔레비전은 언제나 할아버지 방 안에서 비밀스럽게 작동하였고, 그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켜보았다.

수돗물과 공중전화에 대한 첫 번째 기억도 광주에서 만들어졌다. 그는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그것들을 틀어보고 돌려봤었다.

“광주에서 처음 수도를 봤는데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서 물을 틀더라고요. 그리고 잠그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 봤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틀었는데 뭐 이게 잘 안 잠가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답에 이제 공중전화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몰랐죠. 아무리 동전을 넣고 해볼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왼쪽 거꾸로요.”

어떤 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작은 할아버지는 부자였다. 집에는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책들도 많았다. 그가 거기를 드나들며 이런 저런 책들을 빌려다 보았다. 로빈슨크루소, 톰소여의 모험 같은 이야기를 읽은 것은 그때의 일이었다. 책을 읽은 것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훨씬 자유스러웠다.

5

대학 3학년 때의 일로 그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사건,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 이제 역사는 그것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언론은 광주사태라고 불렀다. 그는 다니던 교회에서 그 소식을 처음 들었다. 그중에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간다는 얘기도 섞여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 전해지는 말들을 믿었다. 소문을 믿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광주 소식을 듣고 가만히 또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같이 유인물 작업을 해서 이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 교회나 혹은 뭐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유인물 작업을 하다가 채 제대

로 하지도 못하고요. 이제 시위도 같이 준비하고 했는데 못하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제가 당시에 감옥에서 한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후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고민의 세월이었다.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시절이었다. 친구랑 보낸 율분의 시간도 많았다. 하지만 열매가 썩으면 썩이 돌듯 고민도 무르익으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듯 했다. 서남동 목사님과 남병무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이후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6

그가 성남의 은행동으로 이주한 것은 1987년이였다. 그 즈음 한국은 86년 아세안게임을 치렀고 88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한국인을 즐겁게 만들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도 생겨나게 했다. 국가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좋은 일이었고 신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이에게 좋고도 신나기만 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일에는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도 칙칙하고 어두운 이면이 있었다. 서울의 뒷골목들에 닥친 운명도 그중 하나였다. 그것들은 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철거되어 나갔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낡고 불편했지만 오래되고 안정되게 삶을 지탱해 주었던 생활 기반을 잃어갔다. 누구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했고 또 그들을 도와야 했다. 비단 서울의 뒷골목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가 바라본 1980년대의 한국사회는 도시빈민 문제로 광범위하게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로 결심한 바 있었다.

그가 아내를 만난 것은 1985년 무렵이었다.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은행동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비영리 민간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 후 그녀를 보러 성남에 몇 번씩 놀러 왔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내가 사는 성남시 은행동으로 옮겼다. 아내와 함께 은행동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성남으로 이제 옮겼고요. 제가 87년도 오면서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후배들 해서 한 4명, 5명을 팀을 짜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노점상들 성남의 노점상들, 철거민들 하대원 철거민들, 그 당시에 철거 싸움이 좀 활발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은행동 지역에 탁아소나 공부방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일반 빈민 지역 단위에서 좀 활동을 좀 하게 되는데요.”

7

은행동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동네였다. 동네 자체에 특별히 무슨 위험요소가 잠복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맞벌이 부모가 많은 은행동의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일 나간 낮 시간은 위험한 시간이었다. 부모가 나가면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놀았다. 집안에서 놀다가 지루하면 골목으로 몰려나와 놀았다. 그러다간 속절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에 둔 채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일을 나갔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불장난을 하였고, 부주의로 불을 냈다. 죽는 아이들도 있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은행동 뒷산에 올라가 몰래 몰래 가스나 본드를 흡입했다. 어수선한 동네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놀았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은행동 뒷산은 비닐봉지들이 날아다녔다. 아이들이 본드 흡입할 때 켜던 비닐봉지들의 어수선한 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아메리칸 뷰티>가 떠올랐다.

중산층 미국인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위기들을 표현했던 이 영화에서도 비닐봉지들의 춤이 나왔다. 비디오광 키티가 보여주는 비디오에는, 일체의 음향이 배제된 정적 속에서 점점이 흩어진 장미 꽃잎들 위로 바람의 흐름에 맞춰 너울거리는 한없이 가벼운 비닐봉지의 춤이 등장한다. 가볍게, 정말 가볍고 자유롭게,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신비로운 리듬감을 가지고 너울거리는 비닐봉지의 춤은 한없이 나약한 인간 존재와 그들의 흔들리는 삶을 극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었다.

은행동 뒷산에서 나무끼던 비닐봉지들도 은행동 아이들의 흔들리는 삶의 극적인 상징이자 은유였으며, 실로 그 자체였다. 가스를 흡입하다가 담뱃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면 그 순간 뽕하고 폭발이 일기도 했다. 그때마다 천장이 날아가거나 아이들이 날아갔다.

8

맞벌이 부부를 위한 비영리 민간 탁아소의 아이들은 최소한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런 일에 헌신적이고 열성적이었다. 탁아소 시설을 이용하여 한글 모르는 어머니들을 위한 한글교실도 열었고, 한자교실이나 노래교실도 함께 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밥 굶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밥 먹는 모임’도 만들었다. 밥 먹는 모임에는 아이들이 많으면 열두세 명까지 모였다.

탁아소의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로 갔다. 그러나 학교로 간 아이들은 매일 일터로 가야 하는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아이들은 지희들끼리 놀았다. 그러면서 점차 말썽꾸러기가 되었고, 스스로를 소외시켰다. 그러다가 본드를 마시거나 가스를 흡입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자기 삼촌네 냉장고를 팔아먹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 삼촌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팔아먹더만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지네 삼촌 집인데. 생활신문 이런 데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그래서 사람 오라 그래 가지고 즈그 삼촌 집에 가서 팔아먹더만. 그런 황당한.”

부모나 어른들의 관심권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은 위태로웠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출을 하였다. 가출한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며 함부로 살았다.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물건을 훔치다 들키면 도망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중에서 한 둘이 잡히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한꺼번에 다 잡힌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나가서 잡히면 사실은 혼자 잡히는 게 아니라 일고여덟 명 같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죠. 다 튀면 될 텐데 한두 명 잡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다 잡힐까. 이제 그 중에 튀면 그 아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니까 자기들이 무서워서 못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요즘 세상이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9

그 아이도 그랬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강인은 양말에 과도를 꼴고 다녔다. 아이는 형사들처럼 매서운 눈초리를 하고 다녔고, 번득번득 경계하는 눈빛에는 살기마저 묻어났다. 아이는 사회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아버지나 모든 사람이 적이었다. 그에겐 어른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그 새끼 그 자식으로 통했다.

강인은 머리도 좋고 운동 신경도 발달했다. 그는 좋은 머리 좋은 신체 조건을 거짓말과 나쁜 일에 썼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훔치고 더 많은 일을 만들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한번에 300만원 정도를 털기도 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떠듬거나 얼굴을 좀 붉히거나 좀 생각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앞뒤가 안 맞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청산유수예요. 주욱 거의 앞뒤가 맞아요. 나중에 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고 보면 사실은 한 20퍼센트 정도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 근데 이제 거짓말도 태연자약하게 아주 유창하게 그냥 즉석에서 막 그게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가능한 거겠지요.”

그런 아이도 감옥에서는 뉘우치고 반성했다. 감옥에서 온 편지를 읽으면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기술도 열심히 배워 나왔다. 하지만 사회는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들이 배운 기술을 써주지 않았다. 강인은 그렇게 해서 전과 9범이 되었다.

10

은행동 아이들 모두가 강인과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틀림없었다.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어떤 아이는 강인의 전철을 밟아 갈지도 몰랐다. 세상을 적들의 세상이라 생각하면서 분노에 휩싸여 삶을 소진해갈 아이들도 생겨날 수 있었다.

그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기로 결심하고, 공부방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무허가 지역에 방 한 칸을 얻는 데도 전세 100만원이 필요했다. 과천 지역에 있는 성당과 교회의 도움을 받아 현웃 바자회를 열어가면서 준비자금을 마련해 갔다. 그리고 육칠 개월 준비한 끝에 공부방을 열었고, 은행골 공부방이라 이름 붙였다.

“이제 은행골 공부방을 무허가 지역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공부방을

열었죠. 지금은 이제 공부방이 스물 몇 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제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아이들은 공부방을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더 큰 문제더군요.”

은행골 공부방은 방과 후 아이들이 부담 없이 모여서 함께 놀고 공부하고 배우는 공간이었다. 그것은 탁아소의 연장이었고,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한 노력이었다.

11

은행골 공부방 아이들은 놀이 활동을 많이 하였다. 전통놀이나 고궁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자주 진행되었다. 학과 공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숙제를 도와준다거나 부족한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정도였다.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무게가 놓이다 보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학교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했다. 나름대로 아이들의 성취가 눈에 들어오기도 했다. 특히 글쓰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아왔다. 그의 아내가 헌신적으로 글쓰기를 지도한 덕분이었다.

후에 그는 다시 마을도서관을 만들었다. 탁아소를 하다가 공부방을 꾸렸듯, 공부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마을도서관에서는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이랑 같이 책 읽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무허가 지역이 은행동 전체의 모습은 아니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았던 무허가 지역은 90년대 초반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외관을 가진 빌라촌으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이상하였다. 도로도 상하수도도 놀이터도 만들지 않았다. 1960년대에 순창 읍내에서 보았던 하수도도, 고등학교 시절 광주에서 보았던 상수도 시설도 30년 후의 은행동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런 기반시설 없이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래 취지가 아 이게 이제 용적율이라던가 건폐율을 최대한 높여주고 주차장 없이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은 사실은 이제 지방 차치 단체나 공공 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뭐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이렇게만 해주니까 건폐율만 최대한 해주니까 이제 슬럼가가 되는 거죠.”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사업을 반대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뿌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가옥주들은 찬성하고 환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평당 100만원 하던 땅값이 단숨에 300만원으로 뛰었다. 철거는 집주인의 판단에 따라 한 집 한 집 시간 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세입자 중에 일부는 은행동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다.

“무허가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분당 영구 임대 그래서 청솔이라든가 저쪽 야탑에 있는 게 뭐죠 그쪽으로 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로 가고. 그래서 동네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이죠. 예 91년에서부터 94년 이 정도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93년 1월의 어느 날 그는 공사장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자는 아이들을 보았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은행골은 사방에서 집들이 철거되고 건물이 올라가는 어수선한 공간이었다. 비닐봉지의 춤처럼 흔들리는 아이들이 어수선한 은행동 곳곳을 배회했다. 겨울바람 한 자락이 폐부를 파고드는 듯했다. 그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이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은행동 어딘가에 있을 아이들의 집은 아이에게 없는 것과 같았다. 집을 떠올리면 악몽처럼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폭력과 구타로 아이를 괴롭혔고, 아이는 그것을 피해 집을 나왔다. 다른 아이는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 하루를 지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사 가고 가족은 흩어졌다. 자세한 사정을 아이는 알지 못했다. 그 후 아이는 가출 청소년이 되었다. 둘 다 원해서 한 가출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공사장을 떠도는 아이들은 낮에는 빈 공사장에서 잤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자는 것보다 그것이 조금은 나았다. 그리고 밤이면 그 곳을 빠져나와 거리를 배회했다. 하지만 철거공사로 어수선한 거리는 아이들을 반기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낮에 자고요 밤에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추우니까 93년 1월이니까. 밤에 주로 돌아다니면서 가게에서 먹을 거 훔쳐 먹고, 포장해 놓은 거 이런 가게 앞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이제 사회적 대책이 없을까.”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찾아야 했다. 당장 두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했지만

비슷한 상황에 내몰린 이 지역의 다른 아이들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가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시 차가운 겨울 밤거리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함께 살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가 그룹홈을 생각해 낸 것은 이때였다.

그룹홈을 하면서 그는 그룹홈협의회를 조직하였고 아동복지법 개정안 작업을 주도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인 아동복지 시설의 한 종류가 되었다.

14

은행동에는 인구가 참 많다. 많을 때는 5만 명을 넘었고 적어도 4만 전후를 유지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활동가들도 많았다. 어떤 이는 탁아소를 열었고 어떤 이는 공부방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은행동 지역신문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여성모임을 꾸렸다. 탁아소는 성당 같은 데서 모아준 헌 옷 바자회 수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했고, 여성모임은 ‘은행골 마을잔치’를 열어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뭐 별건 아니었고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노래자랑 대회도 좀 하고, 주로 그런 행사였어요. 호응은 꽤 좋았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마당에 가득 찰 정도였고,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스폰을 받고 동네 가게 이런 데서 스폰을 받고 우리가 인제 요걸 하는데 꽤 이게 힘들더라고요. 3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안했더니 지금은 이제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7회가요. 한 3년 정도 중단됐다가 지금 이제 시에서 매년 그거 하고 있어요.”

은행동 지역으로 몰려와 살던 사람들은 가난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떠돌았다. 어느 곳도 내 땅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니었다. 마을잔치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정

착시키고, 생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 뜻도 좋고 호응도 좋았다. 하지만 마을잔치는 주민들의 손에서 지속되지 못하였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선의가 지속되고 결실을 맺기까지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15

은행동 앞으로는 단대천이 흘렀다. 단대천은 남한산성 남문 아래 계곡에서 시작하였다. 흘러내린 물줄기는 가장 먼저 은행동 앞을 지났다. 그리고 흙이 붉은 곳이라는 이름의 단대를 거쳐, 종합시장, 풍생중고등학교 앞을 차례로 지나 모란 부근에서 탄천으로 합류하였다.

맑은 물이 흘렀던 단대천은 지지분했다. 아마도 70년대 초 철거민들이 들어오면 서부터 생활 오수로 더러워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는 단대천이 거대한 하수도로 묘사되어 있다. 성남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남에 대한 첫인상이 되었다. 그는 그것이 늘 안타까웠다.

하지만 안타까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0년대 한때 하천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단대천이 1998년 들어 완전 복개되어 버렸다. 모두들 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였다. 지지분한 하천을 덮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이었고, 덤으로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올라서 좋다고들 하였다.

“물론 좀 지지분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하천을 잘 살렸으면 하는데 그걸 이제 복개를 하더라고요. 복개하면 뭐가 좋냐면은 첫째가 양쪽 특히 저쪽 양지동 쪽에 땅값이 올라가요. 주로 이제 이쪽이 은행동 쪽에 상가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교통,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것이 전부였다. 복개공사는 아무런 장애 없이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환경단체가 일부 반대 운동을 전개해 보려 했지만 역부족일 수 밖에 없었다. 단대천이 복개되어 중앙로가 되어 가는 현장에서 그는 일종의 절망감 같은 것을 느꼈다. 90년대 초반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상충되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사실에 때문에.

16

사회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했다. 꽤나 열심히 지역사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시절 따라 현실적 무력감을 느낌면서 변해갔다. 은행동을 떠나거나, 시의원을 하기도 하고, 지역 언론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향해 변했다, 변질되었다, 혹은 변절했다고 손가락질 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씩은 낭만적인 사회운동이 가능하던 때가 과연 있었던가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기초의원 선거 때가 떠올랐다.

기초의원 선거에 주민후보를 내세웠는데, 선거운동은 힘들고 고단했다. 주위 사람들은 다들 낙선을 예상했다. 우선 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다. 후보도 운동원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선거자금도 없었다. 선거자금을 만들기 위해 세타를 판매하였고, 그것이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추렴하였다. 50만원을 내기도 했고, 100만원을 낸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도 그랬지만, 신탁에서 돈을 빌려서 내놓기까지 했다. 자기 돈 써가면서 소신과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했던 낭만성이 가득 찼던 때였다. 그때는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빛을 따라가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근데 우리가 당시 일한 사람들이 20명 정도 있었는데요. 코피 쏟아가면서 매일

아침에 다 쓰러져 가지고는 링게루 맞고요. 그 담에 일어나서 또 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순수성 살리기 위해서 정당에서 들어와라. 그럼 공천 주겠다고 했는데 정당 공천은 이제 노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은행동 시의원을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냈죠.”

17

은행동 주공 아파트는 1985년에 완공되었다. 야산에 무허가 집들이 몇 채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서 은행동은 아파트 지역과 빌라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빌라 지역 아이들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신기했다. 기회만 엿보다가 틈이 생기면 재미삼아 그것을 탔고, 경비 아저씨들은 아이들을 내쫓기 바빴다. 그만큼 두 지역은 처음부터 많이 달랐다.

“지역의 분위기가 막 아무리 10평에서부터 31평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빌라 부분 하고는 그 전에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났어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호남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주로 직업이라든가 성남에서 가장 도시 빈민 지역 중 하나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지금도 양쪽 사람들이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다. 생활 자체가 어울릴 수 없는 구도를 갖고 있었다. 빌라 사람들은 은행시장에서 차를 탔고, 아파트 사람들은 을지대학이나 은행주공 정류장에서 차를 탔다. 한때 아파트 사람들이 빌라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에는 빌라 사람들이 도리어 아파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다.

“이제 지금은 저쪽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새로 좀 집값이 싸가지고 온 세대들이

좀 꽤 있고. 예예 이쪽도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저쪽은 주거 환경이 이제 주차 문제에서부터 뭐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 공동체 개념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현실을 돌아볼 때마다 그는 안타깝다. 자괴감까지는 아니지만 은행동 주민들과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흔적이나 자취도 세월 따라 지워지는 것 같은 쓸쓸함도 없지 않다.

18

그는 은행동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이곳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룹홈협의회를 조직했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바쁘고 치열했지만 낭만성이 남아있던 90년대는 이미 저만치 지나가 버렸다. 2000년 들어 처음 1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은행동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아무리 올려다 보아도 길을 인도해 주는 별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뭔가를 욕심껏 해 보기에는 어려운 세월이 되었다. 타성에 젖어 합리화시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도 젊지 않다. 그래서 그는 간장 종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였다. 간장 종지에는 간장만 담으면 된다. 국이 국도 담고 밥도 담고 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국을 담고 밥을 담고 싶다면 새 밥그릇 국그릇을 챙겨야 한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고 그는 아직 은행동에 남아 있었다. 은행동의 희미한 별빛을 올려다 보면서.

가장 평범한 가장 이야기

은행동 일준씨 이야기





가장 평범한 가장 이야기

...

은행동 일준씨 이야기

1

영주시 순흥면에는 소수서원이 있다.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는 소수서원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게 유명한 소수서원의 맞은편 동네가 이번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태어난 곳이다. 그는 유교색이 짙던 전통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 어른들 중에는 향교나 서원 일을 맡아 보시는 분들도 계셨다. 7남 3녀의 10형제는 유교 풍에 따라 조용하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몸이 약했던 그는 다소 예외적이었다.

“저는 본래 몸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옛날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나무를 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런 걸 잘 못했었어요. 동생도 하고 형도 하고. 나는 대체적으로 소꼴 정도를 좀 밴다든지 요런 정도 하구요.”

100여 호나 되는 꽤 큰 동네였지만 동네에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은 없었다. 초등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다. 그런 마을 분위기에 비춰 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좀 납달랐다. 인삼 농사도 짓고 사과 농사도 지었지만 어머니는 또 따로 채소를 머리에 여다 팔았다. 많은 아이들 학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많은 형제들을 다 가르쳐냈

다. 심지어는 여자애들에게 관대하지 않던 시절이었을 텐데도 누님까지 모두 학교를 보냈다.

2

70년대 초반 해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공업화를 이루지 못하던 때였다. 영주공업고등학교가 처음 생길 때 중학교 선생님을 따라 기계과로 진학을 하였다. 영주에서 순흥까지는 30리 길이었다. 입학시험을 보던 날도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허리춤까지 빠지는 30리 눈길을 걸었었다. 그는 그 후로도 주말이면 걷거나 때로는 버스를 타고 고향집을 다녀가곤 했다. 오고가는 편에 김치나 된장을 날랐고, 용돈을 받아가기도 했다.

그는 공업고등학교에는 적성이 안 맞았다. 공부가 자연 소홀해졌고, 또 대학 진학에도 실패했다. 그리고 안동에 있던 36사단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원통에서 군 생활을 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라는 말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하기 어렵다. 외지고 추웠다. 어렵긴 해도 국방부 시계는 무사히 잘 돌았다. 제대 후에는 1년 정도를 농사일로 소일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리엔트 시계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3

오리엔트 시계회사를 소개해 준 사람은 별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누님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조카 정도 되었나 싶다. 학교 다닐 때는 마음에 들지 않던 기계과 졸업장이 도움이 되었다. 삶은 그렇게 조금은 우연적인 운명선을 따라 진행되었다. 잘 짜여진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다고 해서 삶이 한 자리에 멈춰

서 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물론 그렇다고 청춘의 방향 같은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도 그때는 나름대로 방향하는 젊은이었다.

그는 회사 금형 공작 부서에서 일했다. 시계의 틀을 찍어내는 일이었다. 단조로운 일과 일상이 반복되면서 야간대학에라도 갈 요량을 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1977년 들어서는 성남으로 확장 이전을 했다. 그가 성남이라는 낯선 도시에 발을 디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꺼린다. 어떻게든 서울에 붙어 있으려 한다. 돈 많은 사람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혁신도시나 공기업 이전이니 하는 것을 추진해도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회사가 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따랐다.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불만을 가졌던 직원들도 별로 없었다. 순진했던 것일 수도 있고, 생계가 그만큼 더 절박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오리엔트는 잘 나가는 탄탄한 직장이었다.

“그때는 오리엔트 시계가 좋았어요. 그때는 자가포커스 이렇게 선전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자동시계라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가는 그런 시계였는데. 그거 없어서 못 팔 때였으니까요. 그때는 80% 정도 수출했었거든요. 국내는 뭐 없어서 못 팔았고. 중국이나 파나마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중동지방도 많이 팔고. 그때는 수출 많이 했었어요. 시계가 없어 못 팔 때니까 공장을 확장해서 일로 왔는데 시설이 참 좋았어요.”

성남에서의 직장 생활은 편안했다. 큰 걱정거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몸이 약하니

자취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신구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 곳에서 하숙을 했다. 앞길로는 239번 대성여객 버스가 지나다녔다. 그때는 단대동이었는데 언제 부턴가 금광동이 되었다.

하숙을 전문으로 하는 집은 아니었다. 20평 대지에 방 두 개와 부엌 하나가 있던 단층집이었다. 하숙생이 방 하나를 차지했고, 다른 방 하나가 그 집 식구들 차지였다. 이미 시집간 두 딸이 있었고, 몸이 약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다 큰 아들, 고등학교 생과 중학생 하나씩, 그리고 하숙집 아줌마. 결국은 다섯 명이 한 방에서 용기종기 살았다.

아줌마는 깔끔했고 식사는 따뜻했다. 눈을 자꾸 깜박거렸는데 지병이 있는 탓이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하는 일도 잦았다. 가끔 밤늦게 돌아오는 막내딸을 그가 마중 나갔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분이 옛날에 동경에서 태어났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와서 그 때 뭐 배로 오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거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막내딸은 홍릉 근처 정화여상을 다녔다. 낮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실험용 쥐에게 시간 맞춰 먹이 주는 일이 끝나면 밤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11시 반을 훨씬 넘었다. 그럴 때면 그는 239번 버스 정류장에 나가 막내딸을 데리고 왔다. 하숙집에서 서로 자식처럼 부모처럼 여기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성남으로 거처를 옮긴 지 1년 만에 그는 청량리에 있는 누님댁으로 들어갔다. 성남이란 곳은 온통 경사지였다. 비가 오면 사방이 진창이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옛날 성남 초창기 때 유행하던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성남은 부인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서사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은 셋 중 하나가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도로도 안 좋고 수도 사정도 열악했던 성남을 떠나 청량리로 가 보았다. 하지만 그곳도 별 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대신 출퇴근 길만 너무 멀어졌다. 회사 버스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청량리로 천호동으로 실어 날랐지만 출퇴근 길의 고단함을 저감해 주지는 못했다.

그는 다시 물가도 싸고 인심이 넉넉한 성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1년 이상을 자취집으로 하숙집으로 옮겨다녔다. 상대원에 있던 하숙집은 잠깐 살다 나왔다. 그때 하숙집 아줌마는 아마도 무당이었던 것 같다.

“상대원에 있는 하숙집에서 하숙을 할 때는 아줌마가 무당이었나 봐. 굿하는. 나가서 굿하고 돌아오면 돼지머리 싸가지고 남편은 뭐 성남 큰 구두 만드는 회사에 운전기사로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아줌마는 재혼을 했더라구요. 아줌마가 나이차가 있고, 우린 아침 저녁만 먹으니까 그 사이에 어디에 가서 굿하고 오는지 막 이렇게 싸가지고, 그게 싫어서 하숙도 옮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당골네의 남편이 성남의 큰 구두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작업의 첫 작품이었던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구보씨를 다시 한 번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상대원 구보씨도 역시 성남의 큰 구두 공장에 다니면서 배운 구두 기술에 창의적 생각을 합쳐 구두세탁소라는 것을 전국에서 처음

6

열었던 이였다. '마님밭 구두세탁소', 지금 생각해도 재미있고 근사한 이름이다.

지금의 금광2동은 그때는 단대동이었을 것이다. 그는 80년에 결혼하면서 그곳 성산교회 앞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전세 80만원의 부엌 딸린 단칸방이었다. 직장 하고도 가깝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가까웠다. 또 전에 살던 하숙집 큰딸이 공주에 살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가깝게 지냈다.

성남서고 바로 뒤편에서도 2년을 살았다. 아침나절에 문을 열면 햇빛이 방안 깊이까지 환하게 들어오는 집이었다. 하지만 그 잠깐이 지나면 하루 종일 어두웠다. 지형이 푹 꺼져 있는데다가 주변 집들도 틈 없이 붙어있었던 탓에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햇빛은 사라져 버렸다. 이사를 위해 집을 보러갔을 때는 햇빛이 방안에 남아있던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이었다.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들 부부는 점잖게 그 집에서도 2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남서고 뒤편을 피해 서고 옆쪽으로 이사를 갔다. 2층인지 단층인지 기억할 수 없다. 그 집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요소보다는 후각적 기억이 지배적이었다.

“그 집에는 아저씨가 쓰레기 청소차에 따라다니신 분이었어요. 아줌마도 따라다니구.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폐이가 괜찮다 그래서 인제 따라다닌다. 좀 나쁜 게 그분들 옷이라든가 몸에 아주 쓰레기 냄새가 지독하게 났었어요.”

그것은 은행동과 그 주변 여러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었다. 버스에서도 이곳 사람들의 고된 일상은 흔들거렸다. 서울 마장동에서 상대원으로 돌아오는

70번 버스 승객들은 유독 자주 싸웠다. 어떤 사람은 안내양을 붙들고 싸웠고, 다른 이는 모르는 사람과도 싸웠다. 모두가 서울 가서 힘든 막노동을 하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한 잔 술기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

7

야간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것은 결혼 직후였다. 2월에 결혼하고 3월에 입학하였다. 낮에는 회사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여 밤공부를 했다. 주변에도 주경야독하는 이들이 조금 있었고 회사에서는 그들을 조금 배려해 주었다. 특히 여직공들은 돈 벌면서 여상을 다니던 친구들이 많았다. 성일여상은 그런 대표적인 학교였다.

대학에 직장에 가장 노릇까지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여러 가지로 무리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번 때를 놓치면 앞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무리를 해가면서 버텼다. 그렇지만 정작 무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내였다. 부족한 월급봉투에서 애 키우고 학자금 내기가 수월치 않았을 테니까. 아내는 가끔씩 서운한 속내를 비쳤다.

“인제 80년대 말에 애기를 낳았는데.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낳았는지 요즘 같으면 계획대로 해가지고 졸업이나 하고 낳았으면 고생을 덜할 텐데. 애기가 나서 단칸방에 막 애기가 울면 숙제도 해야 되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했었어요. 자기도 하고 뭐. 우리 집사람 지금도 섭섭하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애 울면 좀 봐주고 그러면 좋은데. 다락에 내 혼자 숙제한다고 올라가고 피곤해서 자러 올라간다고.”

대학을 졸업하고 생산직 대신 공정관리 부서로 옮길 수 있었다. 그 후로는 생산

계획, 관리본부 등에서 일하다가 IMF 직전인 1995년 오리엔트 시계회사를 그만 두었다.

“95년도에 퇴사 했지요. 그때 뭐 IMF 바로 직전이어서 회사들이 좀 경제가 안 좋았어요.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흔들어보고 좀 그러더라구. 오래 다닐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그때가 제과점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구요.”

8

1987년 5월에 은행주공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처음에 아파트는 미분양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좋지는 않았다. 평당 가격이 95만원이었고 600만원 용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20평대 아파트는 2200이 조금 넘는 분양가에서 용자 600을 빼고 1650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돈을 준비하는 것도 벅찼다. 아내는 아파트 이야기만 나오면 시비를 걸어왔다. 분양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는 시절은 그보다 좀 더 지난 시절의 이야기였다.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둘이 싸웠어요. 아! 진짜 어렵게. 그때는 평당 가격이 95만원 밖에 안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600만원 용자도 받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거는 2200 얼마에 600만원 해가지고 1650만원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때 월급이 십몇만 원이었을 때니까 그것도 컸었는지. 근데 한 달에 10만원 적금 부어놨던 거 하고 조금 있던 돈하고 해가지고 갈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은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가 주인이

될 운명이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처제가 있었는데 애기를 낳게 되었다. 사실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이해가 잘 안될 이야기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이십하고 몇 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책의 다른 페이지에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독자들이 어리둥절하지 않도록 미리 귀뜸을 해 놓고 가자면, 압진단을 받은 어린 아들을 당당하게 키워낸 보험아줌마 이현정 씨도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언니네 부부와 같이 살던 이야기를 구술했다.

어쨌든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 처제가 애기를 낳게 되었는데 언니가 산간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

“처제가 성남에서 결혼을 했는데 애기를 낳아 되는데 산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한테 와가지고 삼년만 살고 가게. 언니가 산간도 해주고 우리 삼년만 살자. 그 대신 전세 빼가지고 우리 집 이사할 때 하자. 그래가지고 동서네 처제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때 뭐 조그만한 아파튼데.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도 애들 어리니까 저쪽도 애들 더 어리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거실에서 네 명을 재우고 우리는 각자 부부는 방. 그때 방 두 칸였으니까 방 두 칸 거실 한 칸 20평대였으니까. 그래서 3년을 딱 3년을 살고 이사를 갔어요.”

9

처음 입주했을 때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라곤 몇 대 되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란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자가용 자동차를 보면서도 자신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자가용을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은 너무나 적절한 판단이었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 없는 것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가끔씩 아파트 10층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면 저 밑으로 은행2동의 판자촌이 눈에 들어왔다. 허름한 판자촌은 오랫동안 거기 그렇게 있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8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한참 지났는데 오성수 시장 할 때. 그때 막 20평에 다 면적을 내준다 해가지고 한 2, 3년 만에 거진 많이 거기 찼죠. 판자촌이 많이 없어졌죠. 참 오랫동안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때가 오성수 시장님 하실 때였거든요. 그때였는데 조금 너무 잘못된 것 같애. 너무 주차공간도 하나도 없고 아주 도로도 좁고 그냥 기존에 있던 도로 그냥 내비두고 그냥 다 저걸 그것 해줬어요.”

독자들은 강지용 씨의 <은행골에 남겨진 아이들> 12번째 이야기 토막에서 90년대 초반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들었거나 앞으로 듣게 될 것이다. 비록 정확하게 사업 명칭을 지칭하지 않지만 그가 기억해 낸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다음의 엘리베이터 이야기도 강지용 씨의 17번째 이야기에 나온다.

“처음에 동네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구경을 못했으니까 타고 1층부터 15층까지 불 다 켜놓고 올라가고 또 다 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경비아저씨들이 애들 붙잡아가지고 혼내고.”

10

은행주공아파트는 출입구가 여러 곳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서 무시로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네 청년들도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녔다. 술 먹고 밤 늦게 고성방가 하는 청년들을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 붙잡아 혼내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가 한번은 시비가 붙어서 경비아저씨가 파출소에 불러가는 일이 생겼다. 지금의 양지동 파출소였다.

양지동은 원래 은행2동에 속했다. 은행주공과는 단대천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었다. 지금은 단대천이 복개되어 중앙로가 지나고 행정구역도 수정구에 편입되는 바람에 중원구에 속하는 은행2동과는 서로 다른 지역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어쨌든 경비아저씨는 단대천 건너서 파출소로 불러갔다.

“청년들이 막 술 늦게 늦게까지 고성방가하면 경비들이 막 야단치고, 그러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인제 경비아저씨가 저 파출소에 불러간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양지동파출소였어요. 거기 갔는데, 주민들이 다 간 거예요. 아저씨 잘못 없다. 그랬더니 막 경찰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 와 경비아저씨 한 분이 왔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줄 몰랐다. 경비아저씨가 고생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거진 120가구가 한 반은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풀어주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랫동네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했다. 생활수준 차이 난다고 같은 학교 다니는 것도 덜 좋아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더니 그런대로 마찰 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아랫동네가 한 차례 재편되어 판자촌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이후였다.

11

그가 사는 10층에는 8가구가 살았다. 일자 복도형 구조였는데 다들 문을 열어놓고 살았다.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라도 사람들 마음은 오히려 넉넉하고 편했다. 8가구 중 여섯 집하고는 참 가깝게 지냈다. 후에 어떤 집은 용인으로 이사 갔고, 어떤 집은 일원동, 또 어떤 집은 일산이나 잠실, 그리고 필리핀 등지로 모두들 일을 따라 흩어져 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갈마들어도 그는 거기에 있었다. 직장이 성남이라 굳이 아파트를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이들끼리도 친했다. 이사 올 때 여섯 살이던 작은 아들은 동갑 친구 3명과 함께 2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해 왔다. 여름이면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의 수영장에서 놀았다. 좀 지난 후에는 아시아의 물개 조오런 씨가 직업 와서 수영 강습을 했다고도 했다.

“그때만 해도 성남에 수영장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방학 동안만 되면 아주 거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주 진짜 물 반 고기 반 아니라 애들만 뽀뽀한 거였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은 이쪽에 현대수영장 있고 중앙수영장 있고 몇 군데 생겼는데 옛날 수영 배울 때는 여름에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있었나 봐요.”

물론 부인들끼리는 더 친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은행동을 떠난 사람들은 남한산성을 그리워했다. 모일 때마다 남한산성 이야기를 했다. 남한산성 바로 밑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멀리 떠나고 나니 남한산성이 그리워진다고들 했다.

12

오리엔트 시계회사를 퇴사하고 그는 사업을 시작했다. 열심히 했지만 IMF 구제금융 때 바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흑독했던 1999년이 시작되었다. 그는 온몸으로 살았지만 힘든 세월이었다. 은행동에는 그런 비슷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공근로로 시작한 야간 순찰 일이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였다.

“순찰은 상대원1동 대원파출소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어요. 양지동파출소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 광주로 넘어가는 이배제가 택시강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경

찰들이 지금 소각장 앞에서 검문검색을 해요. 검문검색을 하고 음주단속도 하고. 그냥 거기 따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한 분하고 전경하고 또 내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상대원1동 골목골목”

새벽까지 근무하다 보면 경찰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먹는 일도 있었다. 적잖은 나이와 공공근로, 새벽에 먹는 라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는 사람마다 또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젊은 경찰들이 보기에는 참 안돼 보이는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뒤로 몇 번인가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당장 급했다. 낮에는 가락동 컴퓨터 학원에 나갔다.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빠르게 바뀌어 가는 컴퓨터를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주어지는 15만원의 교육보조금도 챙겨야 했다. 그렇게 해를 넘겼다.

13

힘든 한해를 그렇게 넘기고, 2000년이 되어서 그는 동부화재에 입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적이 없는 초짜 보험설계사의 보수는 투잡이 필요했다. 낮에는 보험을 하고 오후 6시에 도로공사로 다시 출근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야간 숙직을 섰다. 격일제로 근무했었다.

“도로공사 가서 숙직 서는 거죠. 숙직 서는 건데 보조로 서는 거죠. 도로공사는 보니까 교통사고 나면 빨리 처리 돼야 되거든요. 누가 짐 실고 가다가 뭐 떨어뜨렸 다든가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면 경찰 순찰한테 연락해주고,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며는 그 다음날은 쉬어요. 그러니까 격일제로 그렇게 해서 회사를 두 개를 다녔죠. 1년을 했더니, 관리과장이 한 달도 안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오래 계셨다구.

했던 두 번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부동산을 좀 할까 싶어요. 아직은 나이는 들어도 공부하는 쪽이나 한 다 그러면 좀 강점 있더라구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하면 할 수 있다 된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투잡도 가능하고요.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도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역시 쉽잖은 일이다. 오리엔트에서 20년, 또 동부 화재에서 10년을 다녔다. 예전 같으면 직장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한 직장에 일편 단심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몸값을 불리면서 새 직장으로 계속 옮기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는 시대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스스로가 참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생각이다.

“이제는 다들 오래 살잖아요. 팔십을 다들 넘기니까. 중간에 뭐 큰 병 아니면은 대체적으로는 팔십은 다. 사실은 한 칠십대쯤 죽으면 좋은데 중간에 팔십까지 가니까. 사실은 노후준비가 그렇다고 안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건강할 때까지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투잡도 해야 안 되겠다.”

15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다 보면 아이들 초등학교 때가 생각난다. 지금은 남한산성 순환도로로 변해버린 길이 그때는 버스만 다니던 산책로 비슷한 길이였다. 그는 아침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곤 했었다. 아이들은 하원초등학교로 등교하는 길이었고, 그는 상대원공단 쪽에 있던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이였다.

특히 아카시아 철이 되면 꽃향기가 좋았다. 은행동 뒤쪽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참 많았었다.

아이들에게 한참 목돈이 들어가야 할 무렵에 IMF를 만났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대학 입학금이 아버지로서는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했다. 큰 아들은 지금 신학공부를 위해 독일 유학을 떠났고, 작은 아들은 장사를 하고 있다. 아직은 학부과정이지만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돌아오면 큰 아들은 신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아들이 나온 모교에 기회가 있을 듯도 싶다. 또한 아직은 작은 피자점을 하고 있는 작은 아들은 더 크고 덜 힘든 가게를 갖게 되면 좋겠다.

“벌써 24살 때부터 지가 했는데, 한 5년차 하고 있어요. 자가계 장사를. 지가 알바를 거기서 했는데 알바를 했던 거 물려받아 가지고 지가 하니까. 지가 했던 거 알바 했던 데라서 시행차고 없이 첫 달부터 입금 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피자란 게 오래할 거는 아닌 것 같애. 나이가 뭐 맨날 배달가고 이랬는데 사실은 내가 부모 된 마음으로서는 결혼시켜 가지고 저거까지 시키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16

은행동은 서민들이 살기에 참 좋은 동네이다. 은행시장은 물가가 싸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이곳을 종점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버스들이 줄을 서 있다. 또한 인근에는 남한산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쉬게 만든다. 은행동 사람들은 24시간 산을 오른다. 산책로를 따라 가로등이 켜지면 일에 고단한 하루를 마감한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할아버지들은 새벽 1시나 2시에도 산을 오른다.

그가 은행동을 여전히 좋아하는 것은 그뿐이 아니다. 은행동은 가깝고 다정한 사

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예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은 옛 고향을 방문하듯이 은행동을 찾아오고, 집 가까운 교회에는 20년 넘게 사귄 사람들이 넘쳐난다. 어려서 살던 순흥예를 가끔씩 내려가 봐도 이곳만큼 정이 가지는 않는다. 이미 낯선 곳이 되어 버린 느낌을 받고 돌아오기 일쑤이다.

“가까운 교회를 한 이십 몇 년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좀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가면 다 거진 아는 사람. 참 좋아요. 저는 시골에 이렇게 한번 내려가서 보면 고향에 내려가서 보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애. 성남이 내가 평생 살 곳이다. 내가 죽어도 성남에 살다가 성남 화장터에서 화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17

그는 이제 신여덟이다. 애들은 잘 커 주었고, 아내 하고는 사이가 좋았고, 꾸준히 월급을 받았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남는다.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일도 후회스럽고, 경제적 마인드가 투철하지 못했던 것도 후회스럽다.

“직장 오리엔트시켜 다닐 때까지는 크게 월급 타다 주면 집사람이 생활했으니 크게 어려운 줄도. 사실 집사람은 고생을 했겠지만 나는 월급만 타다주면 몰랐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욕심이 좀 없었는 거 같애. 욕심이 좀 없었지 않았나. 좀 그런 쪽에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지금 같으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더 열심히 했어야 됐었는데 좀 후회스럽죠.”

후회스럽다는 말을 쉽게 꺼내기 어려운 나이인데도 그는 그 말을 굳이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다가올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궁리 중이었다. 새로운 삶

엄마라는 이름으로

은행동 현정씨 이야기





엄마라는 이름으로

...

은행동 현정씨 이야기

1

4월 초까지도 눈이 내렸다. 강원도하고도 영월은 몹시 추운 고장이었다. 사람들은 영월하면 청령포를 기억해 냈다. 숙부에게 쫓겨난 단종 임금의 슬픈 이야기가 강물 되어 전해졌다. 그녀는 청령포에서 평창과 정선이 있는 북쪽으로 좀 더 치우친 산간오지에서 태어났다. 산에 막혀 살았고, 눈에 막혀 살았다.

사람들이 다 떠난 고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별초하러 갔다가 만났던 동창생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세월이 흘렀다. 그래도 그녀는 고향이 좋았다. 그녀는 해마다 고향에 들러 고들빼기를 캐 왔다. 잘 씻고 소금물에 이틀을 돌로 놀렸다가 김치를 담갔다.

“그걸 해 놓면 겨울내 씹스럽하면서도 그 맛이. 우리 오빠들은 그래요. 아 우리 막내는 진짜 이런 거는 안할 거 같은데. 지난번에 한통씩 다 나눠 줬어요. 저희 형부가 전화가 왔어요. 처제 이거 처제가 담군 거냐. 드시고 싶으시 않으면 관두세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 제 솜씨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위로 오빠들이 셋이었다. 큰 오빠는 그녀하고 14살 차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오빠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오빠들을 따라 성남으로 왔다. 오빠들은 성남시 금광동에 살면서 서울 성수동으로 출퇴근했다. 그녀는 성남중원초등학교로 전학한 후, 성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쳤고, 여상을 다녔다. 그녀가 학생이었을 때, 그녀는 집하고 학교, 학교하고 집이 전부였다. 학교에서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끔 반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방을 가지 말아라 나이트를 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인제 학생부에 불려가서 맞는 소리. 이런 걸 보고 저는 왜 학생이 저렇게 해야 되나. 해서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학교 집 밖에 몰랐어요.”

생활은 너무 모범생 스타일이었고 성격은 너무 내성적이었다. 거기에 담임선생님 효과가 더해졌다. 그녀는 거의 매일 집 근처에 살던 선생님과 같이 등교했다. 하루 공부가 다 끝나도 먼저 돌아올 수 없었다. 도서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선생님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혹시 미팅을 하거나 탄짓을 좀 해보려 해도 그럴 틈이 좀체 나지 않았다.

오빠들조차도 내성적 성격이 지나쳐 사교적이 못한 그녀를 걱정했다. 큰 오빠는 나이차가 많아 어려웠고, 막내 오빠는 너무 가까웠다. 적당한 것은 둘째 오빠였다. 오빠의 훈육은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친구를 만나는 일까지 두루 미쳤다. 하루는 월급날이었다. 오빠가 돈이 가득 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종합시장에 나가 친구들과 실컷 놀다오라는 것이었다.

“하루는 오빠가 월급이 봉투로 나올 때였어요. 하루는 월급봉투를 통째로 딱 주

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거 가지고 종합시장에 가서 오늘 다 쓰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거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하느라고 못 나갔어요. 이거를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오빠가 와서 저한테 너 바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합시장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변화한 곳이었다. 직장인이나 주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많았다. 굳이 물건을 살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재미삼아 나와 보는 곳이었다. 청바지도 사 입고 친구들을 만나 군것질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단돈 천원을 못 썼다.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 고민거리가 되었다. 오빠는 동생의 성격을 고쳐주고 싶었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주고, 북한산이나 관악산을 같이 오르기도 했다.

3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여상을 졸업할 무렵에도 아주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성적이었다. 1985년 한화그룹의 한 계열사에 입사를 했다. 조용한 생활은 학생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는 스웨덴과의 합작회사였고, 스웨덴 사람이 반, 한국인이 반이었다. 그래서 근무 여건은 다른 곳보다 좋았다. 격주 5일제 근무에 출산휴가 등도 마음껏 써 먹을 수 있었다. 분수대가 있는 쉼터가 있었는데, 그녀는 점심을 먹고 나면 친구랑 거길 산책하는 것이 취미였다. 그녀는 책이며 영화 이야기가 마냥 즐거웠다. 그것은 23살 미혼의, 조금은 내성적인 여성에게는 가장 일반적인 즐거움이었다. 20대는 찬란하거나 혹은 치열하거나 혹은 고달플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일상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조용한 20대를 보냈다. 찬란한 삶도 치열한 삶도, 그리고 고달픈 삶도 그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회사 식당이며 점심 산책길에서 어떤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자주 있었다. 얼마 후에 그런 느낌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회사 식당에 근무하던 친구의 이모 되는 사람이 그녀를 불렀다.

“현정아, 너 애인이 없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 누구 있데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인제 아유 만나봐라. 니 애인 없으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당장 그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녀는 당장 만나자는 말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 남자친구는커녕 미팅도 한번 못해보았던 그녀는 그가 미친 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특전사를 제대하고 같은 회사에 갓 입사한 남자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5남매 중 장남이고 집안 형편도 보잘 것 없다고 했다. 한번 만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 솔직함에 반해 결혼했다. 결혼하면 내가 열심히 벌면서 살면 되겠지 생각했다.

4

남편은 진짜 없는 사람이었다.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다. 도리어 시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혼 전 전라도 시택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다. 그녀는 가까운 석촌호수도 나가본 일이 없었다. 전라도 땅이 그렇게 먼 곳인지도 몰랐고, 장거리전화도 지역마다 번호를 달리 쓴다는 것도 몰랐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딱 맞았다. 그렇게 순진하던 그녀에게도 시택의 형편이라는 것이 정말로 앞이 깜깜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막내딸의 결혼을 반대했다. 엄마를 일찍 잃었던 막내딸이 넉넉하고 편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길 원했다. 더구나 아버지는 전라도에 대한 편견과 최씨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곱슬머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은 모두에 해당했다.

“막내딸을 그래도 좀 편안한 데 보내고 싶은데 다 맘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전라도 에다가 최씨에다가 장남에다가 머리도 고수머리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내 딸은 맘머느리 될 자격이 없네. 그런데 젤 힘을 준 게 저희 큰 오빠가 그래도 막내가 자꼬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막내도 시집가면 잘 한다. 같은 장남끼리니까 이제 서로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절약하고 모으는 방법 밖에.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내가 이런 집에 시집을 오면 다 내 몫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근검절약을 실천에 옮겼다. 1년 반 동안 데이트 할 때도 처음 외에는 레스토랑을 가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길에서 만났고, 길거리 데이트에는 떡볶이와 순대가 주메뉴였다.

5

단지 솔직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던 그녀도 그랬지만, 세상물정 모르기로 치면 남편이 더 심했다. 남편은 가난한 살림에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꾸릴 건지도 무지 대책이랄곤 없었다. 그냥 되는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정도였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라도 받으려면 주소를 옮겨 세대주로 등록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는 돈이 없어 분양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답답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녀의 남편이 평균 이하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보

기는 힘들다. 당시 많은 남성들의 융통성이라는 것이 약에 쓸래야 찾을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특히 남성들의 경제적 무감각이라는 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어쩌면 한때 한국사회를 휩쓸던 복부인 열풍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남성들의 책임일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고 그 시절에 결혼도 안한 아가씨가 주소지를 옮겨 단독 세대를 만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세대주 해놔야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애길 하면 자긴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는데요. 일단 세대주로 해 놔라. 사귄 때는 아가씨니까 따로 세대주로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나는 주소를 갖다놓을 데가 없네요. 그러면 저희집이 2층집이니까 1층에 전세를 냈어요. 1층으로 주소를 해놓자. 이래 갖고 세대주로 해놓고 그때부터 인제 둘이 버는 거를 계속 저축한 거예요.”

6

그녀의 결혼살림은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결혼 전 남편의 주소지를 자기 집의 아래층으로 옮겼다. 남편을 세대주로 만들어 아파트 분양을 준비했고, 데이트 비용을 아껴 두 사람의 월급으로 분양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분양 신청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다. 결혼하기 1년 전쯤에 회사에서 주택조합이 결성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분양 신청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아직 돈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빨리 인제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돈 없다고만 하면 다냐. 일단은 세대주로 해놨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 갖고 인제 처음엔 32평 했어요. 중도금 넣는데 나중에 좀 힘들더라고요. 둘이 아무리 벌어도 동생들 학비도 줘야지 되죠. 부모님들. 나중에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26평이랑 바꾸

자 직원하고, 그때는 솔직히 프리미엄 받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다른 직원의 작은 평수와 맞바꾸었다. 그렇게 힘들게 중도금을 붓는 한편으로, 입주에 맞춰 결혼 준비도 시작했다. 하지만 계획은 조금씩 빗나가라고 있는 것, 아파트 공사는 조금씩 늦어졌다. 결국은 1990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들어가 살 집이 없었다. 중도금을 해결하느라 손에 쥔 돈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언니에게 사정을 말했다. 언니는 은행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주공에 언니네 집에 방 한 칸을 달라. 그래서 신혼 1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니까 뭐 잘 됐죠. 저희 남편은 돈도 없는데. 저희 형부랑은 한 살 차이래서 되게 또 마음이 잘 맞아요. 형부는 또 전라도 목포라 갖고. 그래서 일 년 동안 거기 살면서 돈을 좀 더 모았죠. 생활비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두 몸만 들어가서. 신혼살림도 장만 안 하고 언니네 꺼 있는 대로 그냥 다 쓰고 먹여주는 대로.”

언니네 부부와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기억력이 좋은 독자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가장 평범한 가장 이야기>에도 등장했던 사실을. 은행동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이리 닮았는지? 이런 요소들을 하이퍼텍스트로 연결해 가다 보면 은행동 사람들의 거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즐겁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니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녀는 스물다섯에 결혼하고 언니네에서 1년 더부살이를 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한 후 스물일곱에 아이를 낳았다.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갖겠다는 당초 계획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결혼 생활은 어렵게 시작했지만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행복한 삶에 한발씩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다. 삶을 살다 보면 넘어야 할 높은 고개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나야 할 길고 어두운 터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7

그녀의 남편은 케냐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가 직장암 진단을 받고 급한 수술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녀는 회충 약, 말라리아 약 등 이런 저런 비상약을 준비해 인편에 보내곤 했다. 팩스는 편지를 주고받는데 유용했고, 팩스로 못다 한 이야기는 전화를 이용했다. 데이트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다. 남편도 케냐에 잘 적응했다. 케냐의 공기는 좋았고 주변 환경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남편과 새로 시작한 데이트는 3개월 만에 끝이 났다. 아들의 소아암 진단.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두 돌 생일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수술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남편의 귀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다른 직원을 대체하는 게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유급 휴가로 3개월을 주고 최대한으로 휴가 써줄 테니까 혼자서 인제 감당을 해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차마 아이 아빠한테는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그냥 그때서부터는 팩스를 주고받을 수도 없었고 전화를 제가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다. 언니도 같이 아이에게 매달렸다. 그런데 힘들기는 케냐에 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던 날 그녀는 남편을 못 알아봤다. 아이를 가 퇴원시켜 귀국하는 남편을 마중나간 공항에서 남편을 먼

저 알아본 것은 조카였다. 몇 미터 앞에까지 온 사람을 보고, 조카가 이모부 같다고 했을 때 아차 했다.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케냐에서 논스톱으로 오는 비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솔직히 파리 비행기 타신 분들은 다 바바리에 선그라스에 진짜 다 그렇게 내리시는데. 진짜 거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너무나 그 충격을 이길 수 없어서 몸 몸무게가 15킬로가 빠져서 온 거예요. 저희 남편도 키가 176에 체격이 좀 있는 체격이었는데.”

남편이 귀국하기 직전 회사에서 그녀를 불렀다. 남편이 속한 부서에서는 남편의 귀국을 알려주면서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남편은 케냐에서 삭발을 하고 지냈다고 전해주었다. 후에 남편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불안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이길 수 없어서 머리를 밀었다고 했다. 공항에서 안아 본 남편은 품 안에 쑥 들어올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8

남편이 돌아온 뒤 아이의 병원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남편이 귀국하기 전에 다 끝나기를 바랐던 힘든 과정들이었다. 하지만 일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아이는 상태가 안 좋아졌고 치료 과정은 그만큼 더 길어졌다. 아이를 골수주사실에 들여보내면 얼마 후에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주사실에 의사선생님 남자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섯 여섯 들어가세요. 그리고 엄마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밖에서 있으면 진짜 아이 자지러지는 소리 밖에 안 들려요. 밖에서 저는 울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면, 새우등 구부리듯이 애를 구부려요. 허리를 그 다섯 여섯 분들이 잡고서 구부리면 마취를 안 한 상

태에서 이만한 쇠주사로 그걸로 그냥 댑요. 그니까 거의 구멍이 이 정도로 뚫려요.”

의사선생님들 땀범벅이 되어서 나온 후, 그녀는 주사실로 들어가 수술대 위에 놓인 쇠주사를 봤다. 처음 봤을 때 그녀는 기절할 뻔 했다. 아이는 그런 주사를 6번 맞았다. 그중 3번은 남편이 귀국한 다음이었다. 처음에 남편은 아이를 주사실에 들여보낼 수 없다고 했다. 아이의 고통을 오히려 아빠가 감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지금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의사선생님들이라고. 결국 남편은 아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없어졌다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쏟아냈을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었다.

병실에서 맞는 항암주사라고 쉽지는 않았다. 항암주사는 혈관을 태우는 듯한 통증을 동반했다. 주사를 맞을 시간이 되어서 준비하라고 인터폰이 울리면 아이는 미리 알았다. 그리고 울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섯 가지 주사약 쟁반을 미리 침대 밑으로 들여놨다. 그리고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몸을 구부려 기다시피 들어왔다. 아이들의 링거줄은 처음부터 길었다. 긴 링거줄 한쪽 끝을 침대 밑으로 내려놓은 채로 주사액을 주입했다. 주사액은 혈관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울음을 토했다.

9

아이의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양대 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계속했다. 치료과정은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그러나 가혹하기는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여의도 성모병원 9층에서 내려다 보면, 한강과 올림픽도로가 내려다 보였다. 차들은 도로 위를 소리 없이 달렸다. 강물도 소리 없이 흘렀다. 창밖은 진공 상태 같았다. 아이를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편안한 진공상태에서 자유로울 것만 같았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

다.

소아암 병동은 밤낮이 따로 없었다. 아이들은 언제라도 열이 올랐고, 의사선생님들은 새벽에도 일어나 부스스한 채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또 어떤 날은 한 아이가 죽어나갔고, 다른 날은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다. 병원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텨내야 하는 날들이 오히려 일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회사의 노동조합은 암투병 중인 직원들을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 KBS와 SBS는 취재를 나왔다. 그렇지만 그녀는 원치 않았다. 성금을 받는 것도, 아이의 투병장면이 TV 화면에 나가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노동위원장이 집으로 찾아오고 사장실로 불러갔다. 그리고 간곡한 설득을 끝내 뿌리칠 수 없어 성금을 받아들였다. 멀리 시집가서 살던 친구들은 TV를 보고 전화를 했다. 깊은 걱정과 위로의 말로 전화는 끊겼다. 처음에는 소아암이 무슨 전염병인 것처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신혼 때 장만한 아파트를 팔아 아이의 병원비에 썼다. 또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12년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6개월 이상 수리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였다. 그녀는 30대 초반을 아이와 함께 그렇게 병원에서 보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것이 가장 간절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으니까.

10

그녀는 신혼 초에 TV에서 인간극장을 보고 양로원을 운영하는 어떤 부부를 후원해 왔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지로로 송금하면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병원에

서 수많은 자기를 보았다. 소아암 병동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후원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를 보냈다.

“소아암 병동에 그렇게 와서 후원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드라고요. 어린이날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 보면은 호텔에서라도 와서 해주시고 그러는데. 케익 뭐 다 부페로 준비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결혼하신 분들이예요. 미혼이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참 저렇게 하기가 힘든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들의 소아암은 초기에 발견되었다. 그래서 수술 후 예후가 좋았다. 평탄하게 갈 줄 알았던 삶을 한바탕 들었다 놓은 아이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었고, 완치에 가까워져 갔다. 비록 아이는 시력 한 쪽을 잃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삶을 잠깐 쉬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11

어느 날 그녀는 아주 우연히 TV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화재 소식을 들었다. 자세히 보니 아들을 치료해 주던 의사선생님이었다. 누전으로 불이 났고, 베란다에 피해 있던 의사선생님을 소방관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질식사했다. 훌륭하고 고마운 분의 죽음을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어색했다. 그런데 맘에 안 들었던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서 돌아봐도 언제나 내 이야기처럼 실제 같다.

그도 소아암 병동의 의사였다. 병동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다. 아이를 돌보는 어

머니들도 그를 싫어했고, 간호사 심지어는 수간호사마저도 그를 좋게 보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언젠가 한번쯤은 그가 어머니들한테 크게 혼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아암 병동의 모든 일과에 짜증을 부렸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호출하면 다른 의사는 어떤 누구도 피곤을 짜증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너무 짜증이 심했다. 그가 담당하는 아이의 어머니들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

“근데 고 항암제 약만 들어가면 답날 퇴원을 하는데. 그게 애 몸무게를 재서 그람 수가 정해져요 항암제 약이. 다섯 가지가 정해지는데. 한번은 여기 링겔 꽂고 있는데 약을 던다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약을 한 가지 딱 집어넣는데 여기가 흥건해지더라고요. 거즈를 붙인 데가.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약이 세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이러면서 귀찮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약을 집어넣는 데 쓱쓱 집어넣 거예요. 그거를 나중 보니까 여기에 약이 다 세 버린 거예요. 링겔이 빠져 있는 상태. 아 그래갖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근데도 또 의사선생님한테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결국 남편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를 찾았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남편이 따지자, 그는 이름표를 손으로 가렸다. 부끄러워서 가린 것은 아니었다. 과장 선생님의 사과로 일이 무마되긴 했지만, 그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과거의 일로 퇴색되지 않고 이후로도 언제나 선명한 현재처럼 남아있는 것이 씁쓸했다.

12

그녀는 병원을 벗어나 아이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년 반을 쉬었다. 그 뒤 그녀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의 권유가 있었지만, 사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가 처음 아팠을 때 그녀는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보험금으로 아이의 병원비를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은 어떤 혜택도 돌려주지 않았다.

“모 설계사가 와서 보장이 다 된다 그 말에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가 받은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억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혼 때 장만한 아파트를 팔아서 애 병원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험을 넣길래 이렇게 아이가 그냥 잠깐 감기로 아픈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긴 시간 생활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장애까지 입었는데도 내가 왜 그걸 혜택을 못 받았을까. 너무 몰랐던 거예요.”

단순한 감기도 아니고 소아암에 걸려 한 쪽 시력까지 잃었는데 보험에서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억울했다. 스스로 참 바보 같았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를 선택했다. 억울했던 경험이 그녀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보험설계사로 만들었다.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안녕과 가족의 행복을 팔았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녀를 믿었다. 예전 직장 동료들도 그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았다.

13

아이의 삶은 바뀌놓았다. 보험설계사를 시작한 것도 아이로 인한 결정이었고, 지금처럼 가능하면 많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이 덕분이다. 솔직히 결혼 전부터, 그리고 신혼 초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수고를 들여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이가 아프고 난 이후였다. 더구나 보험설계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라서 봉사활동을 하기가 쉬웠다.

아파트 부녀회 총무를 하면서는 노인정에 삼계탕도 끓여내고 국수도 말아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동네 통장에, 학교로 동네로 지치지 않고 뛰어다녔다.

“솔직히 제가 부녀회 총무 하고, 이거 문화재단 이런 행사하면서 솔직히 많이 힘 들었어요. 시간 많이 뺏기고. 한여름 말복 때 삼계탕 150그릇씩 끓이고 나면, 진짜 집에 오면 아무 것도 하기 싫어. 현관 딱 들어오면 아아아. 이러면 저희 남편은 너는 노인정에 있을 때는 얼굴이 밝대요. 아주 근데 현관문만 들어오면 죽겠다 그런 대요.”

남편은, 그러나, 그녀를 만류하지 않았다. 그냥 허리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면 허리를 주물러 주면서, 그녀가 느끼고 있을 만족감과 행복감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동사무소 자술방법에 추천하기도 했다.

14

그녀는 결혼 이후 줄곧 은행동에서 살았다. 은행동은 판잣집이 많던 동네였다. 그녀는 그것을 예전 한때의 일로 알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은행주공이 생기기 전 은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로 전해 들었다. 그래서 판잣집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기억 속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은행2동 주민자치 센터를 뒤로 하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면 판잣집이 나왔다.

“은행2동에 판잣집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앞을 못 보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겨울이니까 진짜 거기 앉아있는 바닥도 진짜 차가울 정도.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내가 15년을 여기 살았지만 내 아파트만 알고 있었지. 내가 은행2동 끝을 한번 안와 봤던 거예요. 끝을 그때 정말 침 가봤어요.”

아파트 부녀회에서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집이었다. 눈먼 할아버지가 지키는 판잣집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은 행동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다가가서 친절하게 그들을 도와야 했다.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했다. 택시에서 내려 동사무소로 걸어 들어오는 품이 한 눈에 봐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고령이었다. 그녀는 통장 일을 보다 말고 얼른 쫓아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할아버지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러 왔는데, 전에 살던 할머니랑 서류상으로 이혼이 안돼 있어서 연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작성을 도왔다. 며칠 후에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다.

“벨이 막 울려요. 그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통장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양지동 양지동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거기는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혼서류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저희 동사무소에 다시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이리시는 분이 저를 찾아내서 전화를 하신 건데. 답날 동사무소에 갔잖아요.”

그녀는 연금신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혼서류 미정리 때문에 탈락된 것은 아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연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화로 할아버지에게 알렸다. 이름도 모르던 그녀를 굳이 찾아내서 도움을 요청한 할아버지는 우리 사회가 친절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호박죽을 좋아했다. 그녀는 모란시장을 집처럼 오가며 일 년 내내 호박죽을 쑤 때도 있었다. 또한 청국장도 좋아하고 된장찌개도 좋아했다. 피자나 햄버거는 그것대로 좋아했지만 주로 토속적인 식품을 더 반겼다. 그런 건강식 덕분인지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건장했다. 주위 사람들은 키가 183이나 되는 아들을 보면 그녀를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정기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면 같이 병원 생활하던 어머니들을 만나곤 했다. 옆 병상 혹은 옆 병실을 쓰던 이들이었다. 끝내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들은 아픔을 딛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건장해진 그녀의 아들을 보면 눈물을 지었다. 그녀는 그 눈물이 얼마나 진한 것인지 알았다. 아들은 병원을 다녀온 날이면 축복이 형과 미숨이 누나를 기억해 내곤 했다.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얼마 전에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병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양대 병원을 다시 간 적이 있었다. 차를 몰고 병원 정문을 들어서는데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 그 서러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병원은 이미 많이 바뀌었다. 의사도 간호사들도 모두 바뀌었다. 짜증을 심하게 부리던 그러다가 남편한테 혼이 났던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

낮선 간호사가 차트를 한 아름 안고 그녀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차트에 볼펜 글씨는 이미 빛이 바래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병원 정문에서 참았던 서러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암과 싸우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자 오직 생명 자체가 절박하던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날들이 되살아났다.

아들은 실명 장애 6급을 받았다. 아직은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해져야 하는 아들이었다. 왼쪽 얼굴은 뼈가 자라지 않아 변형이 생겼다.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들었다. 스무 살이 되어 골격이 완성되면 수술할 것이다. 몇 번의 수술이 될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아들을 위해 바라는 것은, 우선은 의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술하는 아들이 덜 아프게 보다 완전하게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술비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했다.

사무실 사람들은 그녀가 갑자기 안 보이는 날이면 오늘도 노인정에 무슨 행사가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녀에게서 봉사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무실 사람들은 잘 알았다. 그런데도 지점장은 가끔씩 그녀를 불렀다. 아침에도 지점장은 그녀를 불러 역대 연봉의 보험설계사가 되어 보라고 구슬렸다. 아들의 수술비로 많은 돈을 마련해 두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좇는 건 끝이 없을 일이다. 그래서 그녀는 봉사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판매액 목표를 결정했다.

그녀는 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자신처럼 장애가 있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좋겠다. 물론 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열심히 하다 보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번도 저희 아이도 중증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인제 하니까 하다보니까 되더라고.”

그녀는 은행주공이 재건축되더라도 한동안은 거기서 계속 살기로 했다. 그리고 나이가 충분해지면 전원주택으로 옮기고 싶었다. 거기서는 한지공예 공방을 만들

생각이었다. 공방이 자리를 잡고, 노년의 일상이 평안해지면 그때 다시 개인생애사를 구술해 보고 싶었다.

은행동 방범대장

철경씨 이야기





은행동 방법대장

...

철경씨 이야기

1

70년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고향에 땅 한 뼘 없는 사람들, 형제들은 주렁주렁한데 먹는 것조차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가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다. 간혹은 정분이 나서 야반도주를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작가들은 야반도주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지금 가난을 이기고 공부를 해 볼 작정으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 볼 작정이다.

이것은 팔남매의 일곱째로 태어나 열일곱 살 어린 나이에 상경해야만 했던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가 돌아봐도 나는 남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의 이력들은 내 기억 속에 뒤죽박죽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으려고 하니 망설임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왔던 내 삶에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게 된다.

다섯이나 되던 누나들은 이미 시집을 갔었다. 나보다 3살 많은 조카가 있을 정도로 터울이 심한 누나들이었다. 일곱째인 내 밑으로는 동생이 하나였다. 실제로는 세 살 아래였지만 호적이 늦어서 동생은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 아버지가 일찍

이었고, 고향 선배는 단지 그것을 전해주는 메신저였을 뿐이었다.

거기는 월급 같은 것은 없었다. 두 달에 한번 쉬었다. 그날이면 목욕을 해야 했고, 또 천 원의 용돈을 받았다. 내 기억으로는 버스비가 39원 하고 자장면이 200원 하던 시절이라 그것도 큰 돈이라 생각했던 듯 싶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야간학교는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주야로 호된 일거리만 주어졌다. 그래서 사촌 누나한테 찾아가 못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누나가 어떤 조언이나 대안을 주지는 못했다.

나는 무작정 실공장을 나왔다. 주변에는 다른 공장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신발공장을 택해 들어갔다. 사장은 훨씬 잘 해 줬고, 잘하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공장장이 수급한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고, 공장은 부도를 맞았고, 나는 그곳을 떠났다.

3

서울로 올라온 후로 나는 한두 달에 한 번씩 해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는 편지를 해서 약속장소나 날짜를 정했다. 주로 동대문운동장, 그 이름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되었지만, 어쨌든 동대문운동장은 우리 친구들이 애용하던 약속의 장소였다.

친구들 몇 명이 살던 성남으로 들어온 것은 1978년쯤이었을 것이다. 친구 따라 강남간 격이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곳이 따로 없으니 친구들이 있는 성남도 괜찮겠다 싶었다. 성남에서 처음 간 곳은 수진동의 어느 요꼬공장이었다.

요꼬공장은 스웨터 짜는 곳이다.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편직공장이다. 성남을

훑어보면 중동에도 그것이 있었고, 수진동에도 많았다. 은행동에도 천지산업이라고 있었다. 80년대엔 성남 뿐만 아니라 서울의 삼양동 미아리 할 것 없이 요꼬공장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송기원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골장터 장돌뱅이 동무들 국민학교 졸업식이 끝나기 무섭게 새벽기차 타고 도회지로 나가 사내아이들은 점원, 중국집 뽀이, 신문팔이로 풀리고 계집아이들은 식모, 요꼬공장 시다, 어린 갈보로도 풀리고 시골장터는 홀연히 텅 비었습니다.

수진동 요꼬공장은 수진동 재래시장 통에 있었다. 농협의 맞은편, 여인숙 골목 입구의 지하였다. 직원은 열 명 남짓이었는데, 나이를 먹고 결혼한 사람들은 출퇴근을 했지만, 어린 애들은 공장 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잤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가정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 했구요. 저희는 18-19살 되니까 어리고, 그래서 거기서 바닥 같은 데, 뭐 땅바닥에서 자고 그랬죠. 박스 깔고 자기도 하고, 이불 하나 가지고 푹푹 말아서 자기도 하고.”

4

수진동 요꼬공장 주인도 야간학교를 다니게 해준다고 했다. 친구가 주인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납품 기한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는 공장에서 야간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헌데 그때 공장 사장들은 누구나 하나같았다. 일을 열심히 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야간학교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허튼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장들은 약속 불이행의 책임이 일을 열심히 안한 아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들은 밤낮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하고, 심지어는 월급도 안 받고 일에 매달렸다.

“거기서 그렇게 1년 넘게 있다가, 다시 인제 중동 쪽으로 오게 됐죠. 중동에서 그런 일을 했었구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 때도 목적이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예. 내가 벌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죠. 나이도 어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줬고 그런 것도 있었구요. 그 때는 달란 말도 못 하구요. 처음에 와서는 명절을 한 2년 동안 못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성남에서의 생활은 고달팠다. 라면 몇 개로 일주일을 버티기도 했고,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희망대공원이나 신흥동 팔각정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한번은 초겨울인데 슈퍼 앞 평상 밑에서 박스 깔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어나니 허리와 무릎이 안 펴졌다. 얼어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5

나는 1980년에 자취를 시작했다. 친구랑 친구의 형, 셋이서 함께 방을 썼다. 공장 바닥에서 자던 것에 비하면 자취방은 아무리 허름해도 좋았다. 성호시장 앞쪽에 동영극장이 있었는데 자취방은 동영극장 뒤편이었다.

“극장이 네 개 있었어요 성남에가. 성남극장, 종합시장에 중앙극장, 제일시장의 제일극장, 아 다섯 개구나, 여기가 동영극장, 지금 판콜에이 자리 거기에가 천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다섯 개가 있었는데, 동영극장 뒤편에가 제가 자취를 하게 되죠.

나는 어찌다 한 번씩 자취방을 나와 동영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가곤 했다. 그때 영화들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나는 영화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곳 자취방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인아저씨 때문이다. 나는 그 아저씨의 소개로 합동요구르트를 다니게 되었다.

합동요구르트를 다닐 때는 그렇게 원하던 야간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교회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야간학교였다. 하지만 역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합동요구르트는 주간 일주일과 야간 일주일로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야간을 할 때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일 년 넘게 해 보았지만 공부의 맥을 잃어버리기 일쑤였고, 또 피곤했다.

6

일하면서 야간학교를 다니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공부는 하고 싶는데 불가능한 것을 붙들고 몇 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제주도로 시집간 넷째 누나한테 편지를 썼다. 누나는 띠동갑이었는데, 편지를 받고 제주도로 불렀다.

“넷째 누나가, 제주도로 와라, 뭐를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 때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양복점 같은 데서, 지금은 사 입지만 그 때는 양복을 맞춰 입었잖아요. 공부는 하고 싶는데 기술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양복점에서 가봉도 해주고 카운터도 봐주고, 재단하면 옷 사이즈 재고. 그리고 저녁에 정시 퇴근하니깐. 그래갖고 교회학교를 야간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공민중고등학교는 학비가 없었다. 4시에 시작한 학교는 9시에 끝났다. 낮에는 양복점에서 일하면서 양복 기술도 배웠다. 조금씩 모인 돈은 시골 형님에게 보냈다. 사실 이 기억이 어느 때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제주도의 양복점에서 일할 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뒤 광양제철 때부터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나는 고향 집에 경운기도 사주고, 소도 키우게 하고, 돼지 축사도 늘려 키우게끔 조금씩 도왔다. 형님은 내가 부친 돈을 모아 땅도 좀 샀다. 지금 시골에 재산이 조금 있는 것은 그 덕분이다.

“형은 장남이니까 형이 잘나야 된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고향을 한 번씩 가며는 우리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친구나 선배들은 목포서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학비를 받으러 고향에 가며는, ‘야~ 철경이는 이 달에 또 얼마를 보냈더라’, 비교를 당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배들이 한 번씩 만나면 농담 삼아서, 너는 뭐가 잘라서 달달이 돈 보내고. 가면 니 얘기 밖에 동네서 안한다.”

7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다. 신문배달이나 구두닦이, 그리고 술집 웨이터, 횃집도 했다. 돈을 주고라도 한다는 젊어서의 고생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술집 웨이터나 지배인 같은 일은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수요가 많았다. 그리고 관광 가이드를 겸하는 택시기사도 인기가 좋았다. 돈도 잘 벌었다.

“그 때만해도 외국을 쉽게 못나갈 때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쓰레빠 신고 우리나라에 오더라구요. 그래 내가 한번은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통역한테. 왜 그렇게 쓰레빠 신고 우리나라에 오냐. 그랬더니 친구집에 놀러갔더니 한국 간다고 해서 2박3일 해서 그냥 따라온 거래요. 준비도 없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못가죠.”

관광 수요가 많은 제주도는 내가 관광가이드의 꿈을 꾸게 했다. 그래서 나는 한 동안 사진을 배우기도 했다. 운전은 이미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진을 배우면 관광가이드 택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간착오가 있을 수 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미 운전을 배운 상태인지 아닌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사진을 배우다 도중에 가이드의 꿈을 접었다. 운전면허가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택시 면허를 얻기가 힘들어서

였는지, 혹은 사진이 생각보다 재미없어서 그랬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써는 기억이 불분명하다.

제주도를 떠난 것은 21살 혹은 22살 무렵이었다. 유흥가와 관련된 직종에서 손을 떼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치 군 미필교육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탁탁 털고 제주도를 떠났다. 다행인 것은 그때 고등학교 과정의 공부를 다 끝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늘 생활에 쫓기던 때라 학업에서 내세울 만큼 성취가 있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으로는 검정고시 쪽으로 생각을 돌렸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에 미치면 내가 정말로 공부에 목말라 있었던가 하는 의구심도 생겨난다.

8

제주도에서 나온 후, 나는 전남산업공과대학의 전기과에 다녔다. 그 이름이 정확하긴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은 조선대나 동신대에 통합되었다고도 했다. 그곳에서 전기 2급 자격증을 땀다. 그리고 졸업이나 수료를 못하고 교수 추천으로 현대건설에 들어갔다. 현대건설 소속으로 광양제철소 건설 일을 했던 기간은 1년 남짓이었다. 나는 다시 동아건설로 옮겨 부산의 김해공항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소장의 작업 지시를 받는 팀장이었다. 팀장은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의 일을 진행시켜 가는 책임자였다.

“제가 김해공항 비행기 날개, 거기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비행기 날개를 만드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앰프 시설하러, 거기서 밑에서 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제가 올라갔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갔는데, 밑에 리어커를 받쳐놓고 잡아주라 하고 올라가서 하는데, 리어커를 다른 사람이 다른 팀이 필요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떨어지게 되요 거기서.”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됐지만, 그날은 직접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 3층 높이에 서 해머드릴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안경이 깨지고 시계는 풀어져 내동맹이쳐졌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떨어지면서 사다리와 뒤엉켰던 것이다. 3개월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지금도 걸음을 오래 걸을 수 없는 것은 그때 발목 인대가 끊어진 때문이었다.

9

추락사고 후 1984년 무렵에 나는 성남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때 형님은 목포로 와서 정착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안 되어 나는 목포를 떠났다. 목포는 웬지 정이 가지 않았다. 고향인 해남과도 가까웠는데 왜 정을 못 붙였는지 알 수 없다. 반면 성남은 다른 느낌이었다.

“제가 제주도 살고 부산에도 살아보고, 근데 성남이 호남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 또 저한테는 적응이 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나 큰 빌딩보다는 제가 꿈꾸는 거는 스퀘트집이어도 기와집이어도 죽 여럿이 살아서, 김치찌개 하나 끓여 놓고 야 누구 아빠 누구야 나와라 술 한 잔 하자, 그런 세계 따뜻하게 서로 대하고 정 나누고 그런 세계 살고 싶지. 저는 있다 얘기 하겠지만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을 그 때 와서 오고.”

골목에서 찌개 끓여 놓고 이웃들과 술 한 잔 한다는 성남 생활의 이미지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성남의 상대원동이나 태평동 혹은 은행동 사람들은 각자의 골목에서 이웃들과 술 한 잔 하는 것을 즐겼다.

성남으로 돌아온 나는 전에 다니던 합동요구르트에 다시 출근했다. 회사는 광주

오포 쪽에 있었지만 집은 예전 그 집이었다. 처음에 나를 합동요구르트에 소개해 주었던 집주인 아저씨는 내가 제주도 있을 때도 가끔씩 연락을 유지해 왔다. 경상도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자취방도 내주지 않았었다. 아저씨는 그 후로도 전라도 사람들을 별 이유도 없이 싫어하고 욕했지만, 언제나 ‘철경이는 빼고’ 라는 단서를 붙였다.

나는 여기서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증을 따다. 별다른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다 보니까 운전이라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광양제철 쪽에서 일하던 기억은 다음으로 와야 할 것 같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삶은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한 차례도 그것을 가만히 되짚어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착오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보면 합동요구르트를 두 번 다닌 것도 기억의 착오인가 보다.

다시 성남으로 왔을 때 나는 수축필름 만드는 삼성화성이라는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업무과에서 일하면서 회사 기숙사 사감도 잠깐 했고, 또 친구들이 운전면허증을 따도록 돕기도 했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 운전면허는 특별한 기술이었다. 그 때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운전 기술자라고 했다.

“그 때는 면허증 따면 80년 초에는 기술자였죠. 기술자라고 그랬죠. 운전 기술자. 그때 당시 제가 삼성화성을 면허증 따갔고 들어가니까 기술 수당을 그때 3만원인가 주더라고요. 자격증 수당을. 면허증 있고 또 전기자격증 3만원 해갖고 제가 6만원을 더 받았어요.”

그렇지만 직장 생활은 한계가 있었다. 대충 월급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안일한 것

처럼 느껴졌다. 아니 그보다는 이런저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고당하는 사람을 여럿 보면서 월급쟁이가 크게 믿음직스런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나만의 사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내 이름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찾았다.

그때 둘째 누님이 가락시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 가락시장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가끔 누나 집에 들러 보았던 가락시장의 노점상들 차량을 보면서 나도 저 속에서 뭔가 시작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삼성화성을 그만두었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6만원의 자격증 수당이라는 덤도 포기했다.

11

강남 유흥업소에 납품 넣는 일을 첫 사업으로 시작했다. 초정약수 대리점에서 각 테일용 석수를 유흥업소에 납품하는 것을 보고, 술집에 야채와 과일을 넣는 일을 시작하였다. 시골 형님에게 얘기해서 차를 샀다.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받아다가 강남 유흥업소에 납품을 넣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유흥업소 영업이 끝나는 새벽 3-4시까지 일하는 시간이었다.

일이 익숙해지면서 거래하는 술집이 늘어났다. 하지만 술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은 시간이 갈수록 외상이 깔리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공단 쪽으로 영업망을 넓혀 회사를 대상으로 납품을 넣었다. 한때는 회사 기숙사나 복정동 화훼단지에 연탄 공급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신흥동에 해남식품이라는 가게도 냈다. 쌀과 야채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였다. 가게는 주로 동생하고 조카에게 맡기고 나는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주로 맡았다. 덕분에 집을 세 채나 마련하기도 했지만 선배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다 날렸다.

집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친구 결혼식에서였다. 그녀는 전라남도 함평이 고향이었는데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구미로 내려갔다. 대개 토요일이 되면 일들을 앞당겨 처리하고 구미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주위에서 사윗감을 봐두고 있던 장모는 나를 싫어했다. 어떻게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하는 수 없어 우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허락받지 못한 신혼살림을 서울 거여동에 마련했다.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큰 애가 들어섰다. 아이가 생기자 우리는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다. 결혼식은 김장철이 다 지나서 가락시장이 가장 한가한 때인 1990년 1월 1일이었다. 그리고 성남으로 옮겨왔다. 그때도 나는 해남식품 일이며 가락시장 야채 일들을 밤낮없이 계속하고 있었다. 또 야채 밭떼기를 하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밭떼기라고 그러죠. 야채 사러 전라도 고창 영암 겨울에는요, 여름에는 저 강원도 정선 같은데 고랭지 사러다니구요. 며칠 몇 주씩 안 들어오면, 애들 보고 싶어서.”

큰 애를 가졌을 때 집사람은 임신중독이 심각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다. 나는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간호할 사람을 찾아 광주 기독교병원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처제가 병원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유도분만을 통해 세상으로 나왔지만, 2.2킬로의 미숙아 상태였다. 아이는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면서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다.

“내가 여기서 광주를 2시간 20분 만에 갔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돈을 들고, 그래서 개를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그 때 제가 가게를 20평짜리를 420만원에 했거든요. 그 쌀가게가. 근데 400만원을 들었어요. 큰 돈이죠. 개가 거기서 20일인가

인큐베이터에. 이제 사정사정해서 의사. 병원에 책임 안 묻기로 하고 그 과정에 있었어요.”

13

내가 신흥동에 냈던 해남식품은 처갓집 동생 소유의 건물에 들어 있었다. 나하고는 사돈 관계였던 건물 주인은 해마다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했다. 나는 장사도 그런대로 되고 또 사돈네와의 관계도있고 해서 해마다 인상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자 주변 가게에서 자꾸 말이 나왔다. 주변 가게세가 덩달아 올라간다는 항의였다.

가게세를 올려줄 수도 안 올려줄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서 다른 수를 내야 했다. 그리고 1991년에 둘째 딸이 태어나자 집도 좁아졌다. 그래서 나는 은행동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던 은행동에 빌라 한 채를 사둔 것이 있었다.

새로 이사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맹인촌이 있었다. 그곳은 후에 체육공원과 주차장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맹인촌은 판자촌이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고, 맹인사무실이라고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합판으로 열기설기 엮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은행1동을 두고 말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살고, 눈에 보이는 건 맹인들이었다. 두루 살펴보면 마누라와 장화 이야기는 은행1동 뿐만 아니라 태평동 상대원동 할 것 없이 개발 초기 성남의 전반적인 풍경이지만, 맹인 이야기는 은행동만의 특별한 상황이었다.

은행동으로 이사할 때 나는 신흥동의 가게는 처분해 버렸다. 그리고 가락동시장에서 누나와 같이 하던 야채 일과 공장 식당들에 주문 납품 일을 하고 있었다. 어

느 날은 납품 일로 은행1동에서 은행2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금은 시립 자연 관찰원이 있는 곳인데, 길가로 주차된 차들의 유리창이 모두 파손된 것을 보았다. 또 한 번은 밤에 식구들이랑 은행2동 쪽에서 같은 길을 넘어오다가 이런 일을 겪기도 했다.

“제가 한번은 밤에 어디 갔다가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은행2동 상원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길이에요. 넘어오는데 애들이 청소년들이 길에 땅에 앉아서 술을 먹는데, 안 비켜줘요. 그래서 제가 후진으로 은행 상원초등학교까지 거까지 후진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은행1동에는 파출소가 없었다. 동에서는 인구도 많지 않아서 파출소 지을 땅도 예산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호남향우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민간이동순찰대를 조직하였다. 주로 야간 방범 활동을 동사무소에서 발대식까지 가졌다. 물론 이렇게 작은 봉사 조직을 만드는 데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모당의 모 시의원은 내가 호남사람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고, 또 어떤 이는 자율방범대가 이미 있는데 왜 다른 것이 또 필요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14

그때는 내가 이미 적십자사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던 때였다. 주로 쌀과 김치 등을 독거노인 집으로 배달하는 일이었다. 은행동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나는 민간이동순찰대의 방범활동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결합해 보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았다. 권유를 받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한 끝에 어머니방범대를 만들었다.

“아마 최초일 거예요. 어머니방범대를 최초로 만들었죠. 그 때 당시 신문에 96년

도엔가 한번 실렸었는데, 내일신문이라고 거기 한번 나왔었어요. 제 사비로 요구르트하고 빨래비누 같은 걸 사줘요. 그걸 가지고 그 때 11분이 계셨는데, 은행1동 독거노인, 일주일에 두 번씩 담당을 정해줘 갖고 빨래 청소를 해주게 하구요. 또 밤에는 저희가 방법순찰을 하면서 어디 불편한 데 없는가 물어를 보고.”

은행동 노인정 회장이 언제가 한번은 나를 보고 물었다. 정치할 거냐? 봉사활동은 가끔씩 이런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정치 같은 것에는 전혀 뜻이 없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돕고 싶을 뿐이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 노인정 회장이 나한테 말했다. 정치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어.

정치를 할 거냐는 의구심이 정치를 해 보라는 권유로 바뀐 것을 보면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무슨 돈이라도 생기는 일인 양, 혹은 내가 월급 받고 하는 일인 양 생각했다. 이후 자율방범대와 민간이동순찰대는 통합되었고, 나는 은행동 동대장과 연합대 외 무국장을 맡았다.

15

내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였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해오던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환경문제는 알면 알수록 흥미가 있었다. 방법이나 차량봉사와는 다른 차원의 매력이 있었다.

“환경은 다른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방법이나 다른 거는 가서 보조 역할 하는데, 환경은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그 때 초창기부터 시에서 지도자양성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했어요. 거기 3기 회장도 맡고 하면서 나름대로 공

부를 많이 하게 되요. 이것저것 책도 보고,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모르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나는 다양한 통로로 환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면서 환경운동을 하나씩 실천했다. 탄천 수해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겨울철에는 청계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 봄철이면 산불 예방 캠페인도 펼쳤다.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집 앞에 만든 작은 화단에는 나팔꽃을 심었다. 재활용 물로 키운 나팔꽃은 4층 높이까지 쑥쑥 자랐다. 올해는 나팔꽃의 키가 5층 높이까지도 자라는지 지켜보고 있다.

16

집사람은 최근에야 내가 하는 활동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18년 차의 베테랑 보험설계사이다. 자동차보험이며 화재보험 등을 주로 취급한다. 종합건설회사에서 가끔 일을 맡기도 했다.

한번은 또 보증을 잘못 서서 10년 넘게 살던 은행동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 경매에 부쳐졌다. 선배를 통해 경매 나온 집을 잡으면 내가 500만 원을 얹어주고 돌려받기로 계약을 했다. 그때도 나는 여수의 무슨 환경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선배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 그런데 선배가 마음이 바뀌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얼마 후 이사를 들어왔다. 줄지에 나와 식구들은 갈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앞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에서 이삿짐을 못 빼게 물도 뿌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짐 다 빼내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두 달 가량 제가 모시는 독거노인 집에 가 있었어요. 독거노인 집에서 여름인데 진짜 우리 다섯 식구 딱 누워있기 아주 불편할 정도로. 여름방학 직전이

있거든요.”

IMF 직전에 나는 파산했고 가족들은 집을 잃었다. 아이들은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했다. 지하도 좋고 옥탑방도 좋으니까 같이 살자고 매달렸다. 나는 밤이면 차에서 홀로 울었고, 술로 현실을 잊으려 했다. 그때 은행동 사람들, 내가 봉사활동 하면서 조금씩 돕던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섰다. 어떤 할머니는 밥상을 사다주고, 어떤 분은 이불, 옷, 현금을 3만원, 7만원씩 놓고 가는 분들도 있었다. 소문이 나자 천만 원을 선뜻 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3~4천 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밑천으로 재기했다. 그 후로 나는 도움받은 돈을 많이 갚았다.

17

사람들은 은행동을 달나라 달동네라고 불렀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달나라 달동네라고 했다. 하지만 초기 천막촌 시절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럴 듯한 이유도 전해졌다.

“달나라 달동네는 무슨 뜻이냐. 두 가지래요. 하나는 높아서 달나라 달동네지만, 또 하나는 맹인들이 옛날에 땅을 이렇게 주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쁜 사람들 만나서 자꾸 땅을 팔아먹게 되고, 자꾸 달라개서 달나라 했다 그런 말이.”

당시 업자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분양권을 사들였는지 알 수 있게 했다. 달나라 달동네에는 골목이 많았다. 골목은 비좁아 차량 통행이 힘들고 주차 때문에 시비도 붙었다. 한번은 칼부림이 나는 것을 목격하기는 했다. 그래도 이웃들은 정겨웠다. 고구마 삶아놓고 나를 불렀고, 생선 매운탕 끓여놓고 나를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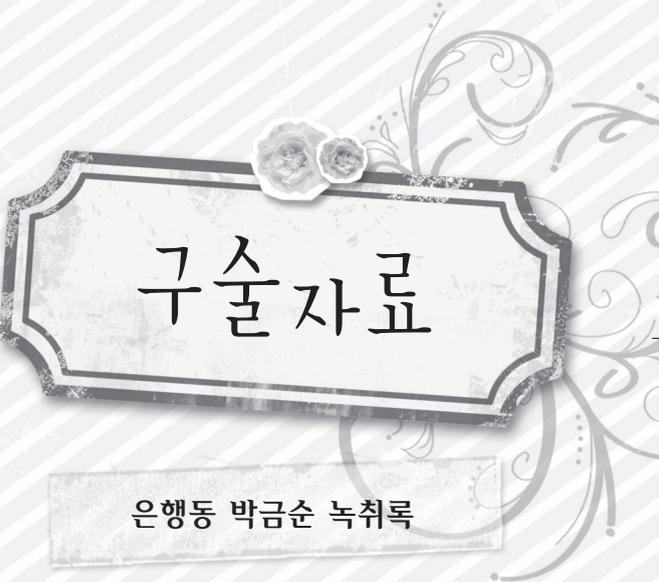
오복슈퍼 앞에서 술 한 잔 하고 걸어올라 치면 술이 오히려 깰 만큼 공기도 맑았다. 맘만 먹고 나서면 수목원 자연관찰원 체육공원이 산책하기 좋을 거리에 있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차 가지고 와야 하는 남한산성도 한 두 시간이면 돌고 내려올 수 있었다. 아침에 창문 열면 빼꾸기 소리가 들렸고, 5월의 창문으로는 아카시아 향이 들어왔다.

18

은행1동은 아직은 개발예정 지구로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개발 바람이 불 것이다. 주위에는 개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빌라를 가진 사람들이나 세입자들이나, 개발 이후에는 여기 남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걱정이죠. 여기서 보상 뭐 일억 오천, 이억,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줘도, 거 가지고 광주 쪽도 못나가요. 곤지암 이상으로 벗어나야지. 그런 것도 걱정이고,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나는 방 하나에 세 들어 사는 독거노인들이 걱정스러웠다. 아무런 대책이 있을 수 없는 사정이 답답하고 가슴 아팠다. 처음 고향을 떠나던 날의 햇빛은 느낌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런 느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맴도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래도 나는 꾀꿀했다. 은행동은 여전히 내 삶의 터전이었고 이후로도 그럴 것이었다.



구술자료

은행동 박금순 녹취록

일러두기

- 조사자와 구술자만을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전사하였다.
- 구술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문단을 나누고 구술자 표지를 첨가하였다.
- 호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어구는 따로 문단을 나누지 않고 괄호 () 속에 전사하였다.
-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는 이중괄호 (()) 속에 표준어를 병기하였다.

구술자료

은행동 박금순 녹취록

구술자 : 박금순

조사자 : 장노현

* 2009년 11월 26일 은행동 박금순 할머니 서사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자 : 인터뷰를 시작할 거거든요. 할머니가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 태어나신 얘기부터 또 은행동에 오시게 된 얘기 그 이후로 쪽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재미있게 이야기 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구술자 : 그런데 저기 처음에 내동은 한 사오년 살다 이사왔었는데. (내동이 어디예요. 아까 저기 고향) 네. (태어난 고향) 그리고 저기 고 앞서서는 날 적에는 행정((구술자는 행정이라고 했지만 구술 후에 지도를 찾아보니 행성리였다))서 났는데 행정. 저 들녘에 한 고개 넘어가면 금바우들이라고. (금바우들) 네 저기 넘어가면 행정 있어요. 행정서 태어나 가지고 살다가 대여섯 살에 내동으로 이사왔었어요. (집이 다 이사오신 거죠?) 네. 집 사갔고. 행랑채 집을 사가지고. (음 큰 대갓집 행랑채를 사셨어요?) 네. 행랑채 집을 사갔고 시온 거 시들어((세들어) 온 거죠 남의 집 (아 남의 집으로) 네.

조사자 : 그때는 식구가 몇이었어요?

구술자 :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오금동 시집온 우리 언니, 둘째로 나, 고 밑으

로 우리 남동상 하나, 또 내동으로 와서 태어났죠 우리 여동상, 우리 여동상하고 남동상. 제일 끝으로는 여동상 (여섯이나 되시는구나)

조사자 : 그래서 내동으로 이사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내동으로 해서 그 행랑채 방으로 인자 행랑채 사랑방을 얻어서요 얻어서 살았었어요. 살다가 고 내동 한쪽에 새천이라고 있어요 까짓동이라고 아니 사서 까짓동이라고. 그리 와서 오막살이집을 한 채 사가지고 오막살이집을 집이 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셨나 샀나 그랬어요. 저 대까지로 싸리문 해서 다는 집에 살았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조사자 : 그때는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셨나요?

구술자 : 네. 남의 논 농사짓다가 (남의 논) 나중에는 내 땅도 맨들고 대밭도 조금 사서. (대밭?) 네. 그래서 그 대 비어서 대바구니 맨들어서 대명장을. 한죽은 10개고 두죽은 20개 아니어요. 그걸 우리들이 맨들어서 친정어머니 우리 언니 나. 샷갓 샷갓 있지요 지금도 테레비 가끔 나오죠. (샷갓도 만들고 대바구니도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으로 지어서 맬빵으로 지어서 대명장으로 팔러가. 30리이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동서. (30리나 되는) 네. 거길 밀빵 걸러서 지고 대니고 그랬어. 그래 가지고는 했는데 그 담에는 행정 행정 저기 그러니까는 그 까짓동으로 오막살이 토담집을 짓고 살았었어요. 토담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더 늘려내고 만들어서 살았었죠 첨에는. 그 집에서 시집을 왔죠 이리.

구술자 : 그런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산소를 쓰시고 났는데 그냥 겨울 여름에 봄에 갑자기 그냥 우박비가 오드래요. 하늘이 시커머면서. (한여름에) 네. 그냥 우박비가 이런 우박이 후드락 후드락 쏟아지고 그냥 산소를 쓰는데요. 밀레(?)를 하는데 쏟아지더라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해까닥 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우리 언니하고 나 하고 둘이 살림을 하고 살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들락날락 하시고. 집에 오셨다 휘 나가시고. (휘 나가시고) 그렇게 설케 살았어요 어려부터.

구술자 : 그래서 시집을 가면 경기도 가면 서울로 시집을 가면 마루에서 그늘이고 그때 유승개 머는 뭐 일류부자나 유승개 있었잖어요. (유승개) 네. 노래 불리는

뽕글뽕글 도는 유승기라고 해

조사자 : 아 유성기 유성기?

구술자 : 네. 유성개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거나 틀고. 그러고 꼬시는 거예요. 준엽이가. (누가요?) 행정서 우리 이우제서 살았던 할머니. 손주 이름도 내가 알아요. 뽕새예요 손주 이름이. (뽕새?) 네. 그래 내가 그 뽕새 할머니도 욱을 엄청 했어요. 여기 시집 와서. 요 감나무골로 시집 와서. (그 뽕새 할머니가 그러면은) ??했어요.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행정서 살았을 때보텀 인자 알았었는데 (중매를 했어요) 네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우리집을 그렇게. 그러더니 우리 언니 오금동으로 (오금동으로) 네 거여 오금동으로. 지금 살아계세요. 몸이 이려고. 나는 (서울에 오금동 말하는 거죠? 거여동 그쪽) 네. 오금동 오지중학교 ((오주중학교가 맞다)) 있죠. 문정동 고개 넘어가면. 오지중학교 요 왼쪽으로 있고. 약방 하나 있고 거기로 쭉 들어가면 우리 언니네예요. (아 거기에 언니가 시집 가시고) 나는 일로 오고 (할머니는 이쪽으로) 뽕새 할머니가 (뽕새 할머니가 뽕을 치셔가지고) 네. 거짓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조사자 : 시집 오시던 날은 어떻게?

구술자 : 시집도 그렇게 불쌍하게 왔어요.

조사자 : 뭐 거기서 여까지 뭐 타고 오셨어요?

구술자 : 저기요 기차. (기차 타고) 네 기차, 저 버스 타고 장성역 가서 장성역서 저기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면은 서울역서 내리잖아요. 그면 서울역서 또 버스 타잖아. 버스 타고 여기 송파 저기 왕십리 저 지내와서 송파강이 있었어요. 똑딱이 똑딱이 하고 조그만 배가 입짝 여기 강이면은 입짝 인자 우리가 와서 딱 섰으면은 그 배 타서 똑딱이 짝짝 끝에다가 내려주고 또 거기서 탈라고 서 있는 사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똑딱이 (똑딱이?) 네 이름이 똑딱이에요. 조그만 배 짝그만 (그 배를 타고) 그걸 타고 오금동 우리 언니네로 왔어요. 우리 언니네로 와 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음 하루저녁 자고) 네 자고 새벽에 여기서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 인자 색시를 텔러 왔어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밤에 왔어요. 새벽에. 여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 그래 가지고 왔어요.

구술자 : 그런데 그냥 아조 어려빠져 거기 중에도 내가 그러는데 지금도 가다가다 내가 일본 경치(정치) 때 응 일일곱 느 아버지는 21살 양쪽 두 내외 결혼해서 피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재산 모아서 느이 아들 셋 두 딸들은 쥐보지도 못하고 느이 아들 셋이 짝 노나 가졌다 내가 그럼. 그니까 그러고 너 아버지는 복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나하고 둘이 장만해 노니가 느이 할머니 오남매 나서서 품팔아가매 길러놓으시고 우리가 잘 해서 잡수 진지 좀 잡술만 하니까 못 잡수고 그냥 돌아가더라. 돌아가게도 그냥도 안 돌아갔어요. 이 감낭구발 터에서 살 제 3년을 중풍 맞아서 소대변 보고 아유 나 고상한 거로 그냥 소대변 본 거를 쳤어요 내가. 3년을 여기서. 네 내가 난리 통에 그렇게 3년을 그러고 계신데 이자 (아 그게 저기 난리통이면 육이오 때) 일본 경치 때 일본 경치 때에. 팔일오 해방 된 뒤로 또 육이오 났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일본 때 일본 시절 때) 네 네 여기서 다 적 것잖아요. 중국놈이 밀고 들어오고

조사자 : 그러면 인제 시집 오서가지고 살았던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구술자 : 그래가지고 인제 시집을 와서는 내가 시집을 오니까는 큰동 시어머니 시 아버지 큰동새 시아재 들째아들이유 우리가 우리 영감 인자 나 또 우리 큰 동새가 네살 먹은 아 이름이 성천이에요. 네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흥역하다 갔어요. (아 바로요. 아이 때) 작년 가을에 내 시집 왔으면 구정 새고 올봄으로. 흥역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우리 시아재는 그저 행방불명이 되고.

구술자 : 팔일오 해방 때 일본 정치 때 저기 일본 놈들이. 그니까 면서기가 이 남을 그때는 내 시집을 때는요. 광주 남한산성 광주 남한산성 여기 아랫녘 금광동이잖아요. 옛날에는 금광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응달말이라 그러고. (응달머리?) 네 응달말 (응달말) 네 동네 이름이. 저 아래 지금 금광동은 금광이 (금광이) 아랫니 금광이, 그리고 저쪽으로 보통골 사그막골 상대원 하대원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기를 허는데

구술자 : 면서기가 남한산성 맹이는 면서기가 이 바깥에 남문 요쪽으로 담당이었어요. 담당이었는데 그때 일본 정치 때는요 돈만 있으면 군인도 안 나갔어요. ?? 돈 한 주먹 집어 줘요. 면서기 가가리를. 돈 많은 집이서 한 주먹 집어 주고 우

리 아들 좀 군인 안 가게 빼다오 하면 빼줘요. 그러면 어려운 집 자식 돈 없어서 빼내지도 못할 자식 엉뚱한 사람 찍어 보내요. 우리 시아재 그렇게 찍어보냈어요. (그면 누구 대신 간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여태 행방불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아재 저 논골 적은돌이 동상 저 작은돌이. 우리 시아재는 저기 장수, 또 논골 사람은 작은돌이, 또 널문리 사람. 널문리 사람도 갔대요. 근데 널문리 사람 소식이 왔어요 우리 집이로. 요 감낭구 밭에 살 적에. 감낭구 할 때 왔어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장수는 나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불구텅이서 폭격지고 팔일오 해방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들부수다가. 그니까 한국이 지것으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시비비양에 그 썩 썩이라 그랬잖아요. 시비비양기 가서 꼭 한국이 지것으니까 막 싸서 이겨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있지 그때에 미국에서 안 도와줬으면 일본놈들이 이런 디로 다 와서 차지하고 한국은 없어졌대요.

조사자 : 그렇겠죠. 예 맞아요. 그렇겠죠. 그때 시집 오셨을 때 그렇게 집안의 식구들은 그렇게 식구들이 있었고

구술자 : 열한 식구더라고 (열한 식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동생 시아재, 우리 두 부부. 두 부부면은 여섯 식구 아니어요. 또 시동생 둘, 시누 하나, 조카 하나는 죽고 그면 열 아니어요, 조카딸 음력 4월 달에 홍역하다 죽고 조카딸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쇠여털에 세상 떴어요 장조카 딸이. 그 조카딸만 살았으면 지아부지 그 그러니까 저거 한 거 다 그냥 그 나가실 때고 날 그런 거 다 알고 그러면은 돈 타 먹는다는데 (음 그렇죠) 네 그렇다는데 그렇게 되고 뭘 알아요. 다 돌아가고 영감도 돌아가 버리고.

조사자 : 그 시집 오셨을 때 집안은 그렇고, 마을은 어땠어요. 마을은?

구술자 : 근데 우리 영감님도 인자 여기서 시어머니가 중풍 맞아서 3년 소대변 싸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굿 현다고 나무 도지속 남한산성 무영네 이씨야 이 무용네 검부기, 남한산성 너머 검부기 요쪽에 있잖아요. 한 고개 넘어가면 불당골, 한 고개 넘어가면 또 오전리야. 오전리 산 사서 우리 외사촌 동생이 저기 우리 시어머니 친정에 한 동네 살어요. 지금까지장도 내려오며 살죠.. 그러는데 우리

외속도 막내 막내 시동상 외사촌 댁으로 막내 시동상이 오전리 색시를 텔고 결 혼식을 했어요. 그래 그 친정 땅 조금 사가지고 저기 우리 바깥양반 모셨잖아요. 오전리 짝금 (그렇구나) 요만큼 열시평이러나. (열세평) 네 고결 사가지고 모셨어요.

조사자 : 그때 시집 오셨을 때 오신 마을에는 몇 집이나 살고 있었나요?

구술자 : 이 나 사는 동네는 은행시장 요쪽에 응달말이라 그러더라고 (응달말) 네. 그때에는 한 원주민이 한 외탄 데, 우리집도 이 동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고 저기 저기도 종옥이네 한 집 종철네 종복이네 두집, 한 열댓집 됐었어요. (열댓집) 네 열댓집 됐고 저 위 올라가면 저 웃말이라고 푸줏간하고 왜 한우고기 팔고 그러잖아 요쪽으로 바깥에다 걸고. 궁전부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선부페라고 하고 저 위에 건물 하나 짓고 궁전부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조사자 : 그땐 주로 뭘 하고 사셨나요? 농사를 지었나요? 마을 사람들이..

구술자 : 우리가요? 남의 논, 남한산성 안경원 네 땅. 요 감낭구밭도 안경원 네 땅. (안경원?) 안씨고 이름은 경원이. (경원이 안경원) 그러니까 안경원. 안경원 네가 대문간에다가 소낭구, 저 서까래 감을 비어서 한쪽에 짝 대패로 깎이가지고 탁 박아놔요.(15:29) 천장 밖에는 길쭉? 땅에서 내 이 시계 보담 더 올라갈까 말까 해 딱 애 문간. 나도 가 봤어. 우리 시어머니가 된장 얻으러 왔는데 나도 쫓아갔었어요. 열일곱에 가을에 와 가지고 구정 쇠고 봄에 된장 얻으러 가면서 애 새아가 나 된장 얻으러 남한산성 가는데 쫓아갈래. 그래서 내가 네 엄니 나도 가요 나도 가요 깜죽깜죽 내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재수통으로 된장을 한통을 수북히 퍼주고요. 오만 그집 땅을 우리가 해 묵고 살아요. 이 금광동 아랫니 웃니 안경원 네 땅이야 다아. 그리고 세 묵 나뉘서 두 묵은 안경원 네 땅, 한 묵은 판 사람 땅, 그 식이었어요. (아, 그 판 사람은 누군지는 아세요?) 이 나라 땅. (나라 땅) 판 사람 땅도 있고 나라 땅, 일본놈덜 땅이지 말하자면.

조사자 :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안경원 네 땅을 부치고 살았겠네요

구술자 : 예. 그런데 그 면서기 보고 그 집이 고냥 우리가 해 먹는 이 불쌍한 거지

불쌍한 사람 땅만 다 사서 떠드라고요. 그런데 그 집 지금 폭삭 망해부렸어. (아 ~) 폭삭 망해부렸어. (아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것만 다 떠다는 건 농사지었을 때 이렇게 그걸 떠어간) 땅을 뺏어. 돈 한 몽태기씩 면서기질서 벌어가지고 다 우리땅만 사가지고 떠어버리. 저희가 해 묵는다고 뺏어. (아 자기들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그니까 산 목숨 밥그릇 뺏는 식 아니야. (아 면서기가 돈 벌어서 땅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뺏어부러. 내나라. 우리가 해묵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 좋은 거고 당장 내 눈 떠서 죄받드라고. (언제 그렇게 망했어요 그쪽은?) 폭삭 망해부렸어. (그 언제 그렇게 망했어요) 육이오 난리 때. (육이오 때. 그뵈 그 집안 식구 다 죽고 뭐 그랬나요) 뭐 죽긴 죽고 난리가 났지. 집 망하고. (망하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저기 면서기질 해먹다가 분명한 우리나라 빨갱이들이 밀고 들어왔다 뒤발질해 나갔다 밀고 들어왔다 했잖아요. 지는 대단치도 않았을 때야. 지금 몇 살이우. (저요 마흔 좀 넘었어) 아유 그런데 허허허 그런데 그렇게 밀려갔다 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허는데. 그쪽 시절에 나가서 가지고 여태 고만이에요 시아재.

구술자 : 나가 시집 오니깐요 우리 시어머니 큰 동새 우리 바깥양반 세 식구가 품팔러 다녔어. 남의 땅만 그냥 해묵고, 남의 땅 농사 지어묵고 저기 품팔러 오래면 당장 먹고 살으라고 품팔러 가는 거야. 집의 땅은 내비두고. 그때는 비료도 없어. 비료도 없고 높은 산에서 풀 뜯어다 내서 눈에 넣서 썩혀서 (아 퇴비) 응 농사 지묵던 시절이야. 거름 비료 이름도 성도 없고. 그리고 아유 고상 고상 말도 할 수 없어요.

구술자 : 그리고 해서 이제 남의 도지세를 내 가지고 농사 질라니까 남의 땅에 농사가 많으니. 그래서 저한테 왜 박정희 대통령이 살게 해 줬잖아요 서울이고 시골이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8년을 대통령 하셨대잖아. 그니까 대통령 바로 밑에서 저 일하는 놈이 지손으로는 총을 못 쏘고 그랬대잖아요. 점심 잡수고 있는데 점심 시간에 점심 이렇게 떠자시고 밥을 자시고 있는데 총으로 쏘래, 돈 얼마 얼마 주께. 싸 죽여달라 그래서 싸서 죽여버렸대잖아요.

구술자 :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는 소리가 남의 땅이라도 내가 하든 거 절대

내놓지 마라. 꼭 붙들고 있어라. 이랬단 말이여 명령을 내렸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더니 상한을 보라. 이래 쪽지를 내보낸 거야. 나라로 갇으라 땅값을. 있는 놈은 생전 잘 묵고 생전 잘 살고, 없는 놈은 생전 못 먹고 못살고 고상만 허다 죽는다 빌려먹기 빌려 살아야 한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레설랑은 남의 땅을 인자 농사 짓잖아요. 농사지면 저기 가을에 인자 저 곡석 해 가지, 일본 놈이 공출 갇으래지 또 장리쌀 먹고 살잖아 당장. 고봉 열말 묵으면 열달말을 갇어요 가을에. 가마 반을 갇어. 그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로 갇으래. 우리는 6년을 보고 갇았어요. 6년을 갇으니까 다 갇어 버리고 남의 땅 해먹던 게 다 내 땅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면서기가 안 뺏었으면 몇 자리가 더 살 텐데. 상한을 보서 더 붙들었을 텐데. 꼭 거기 중에도 상가지 집 땅만 사서 띠어. 죄 받아서 폭삭. 그리고 저는 면서기질 허다가 왜 빨갱이들 패들 밀고 들어오니까 왜 쫓아가요. 쫓아나가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태 행방불명이야. 우리 시아재도 지금까장 행방불명이고. 돌아가셨지. 살으면은 여기 와서 아재는 못 살아도 왔다갔다 하는 헛냈는데.

조사자 : 시집 와서 봤던 집 시집이 그렇게 그렇게 가난하던 가요?

구술자 : 다 가난 하지만 우리 집이 쥔 가난해 더. (얼만큼 가난한) 말할 수도 없어. 인제 남땅을 해묵는데 농사는 많고 당장은 먹어야 살으니까 저 금광동 저 건너 은행시장 건너 지금 양지동이라쨌 은응지야 거기. 동네 이름이 은응지, 은응지 부잣집이 있었어 몇 집. 또 금광동도 저기 저 바깥양반 친구들도 더러 살았어요 금광동도. 그 방앗간 집이 춘수네 춘수네라고 아버지가 춘수야 그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친목계도 현다드라고 요즘.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갔지 다 양쪽이. 그집 가서 우리가 품 팔아다 먹고. 이려고 살았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허니까 품 팔러 가는 거야 그냥. 집이 논 풀 뜯어다 일허라고 허지 않은 날은 풀을 뜯어 놓거든요 집이 논에. 알가림 해노면은 일본놈들이 공출로 뺏어가지. 또 장려쌀 먹은 거 갇지. 그리고 나면은 음력 정월 이월이면 또 떨어져 양석. 아무 많이 세 봐도 소용 없어. 지 털 빼서 뒷구녁에 낀 식이야. 관세암 보살 도로 아미타불이야. ??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우리헌 땅만 죄 뺏드라니까 그러더니

죄 받아서 폭삭 망해 버리드라니까.

조사자 : 남편 분은 시집 와서 봤더니 어떤 분이었어요?

구술자 : 우리요? (예 어땀어요 처음 봤을 때)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했지. (언제) 다 얘기 허까?

조사자 : 예 그런 얘기 다 해 주세요.

구술자 : 처음에 열일곱에 시집 왔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못했어. 뭐 쪽도리 쓰고 인자 이렇게 해서 앉혀놓대 사람들이. 인자 대례 지내고. 인자 이려고 나서는데 인자 쪽도리 씌어서 갖다 노니까는 신랑이 쪽도리 벗겨놓고 어 저기 옷 벗기고 가로 반짝 안아다 눕히대. 그러도록 얼굴은 못 쳐다 봤어. (아 그때까지도) 그 이튿날 아침에 쳐다 봤어. 시수물 달라고 세수대를 부엌에 정재에서 밥힐라고 하는데 이자 심부름 해주지 뭐 할줄이나 알아. 큰 동새가 허는데 가족들한테 세수대를 대드라고 세숫물을 달란 뜻이지. 그래 한 바가지 부어 주었지. 그리고 얼굴 쳐다봤어 조금 슬쩍. (그랬더니 어땀어요) 본동만동. 괜찮드라고.

구술자 : 그런데 시어머니 그 중풍 맞아서 돌아가시고 인자 무당집 가서 우리 외사촌 형들은

조사자 : 시어머니가 언제 중풍 맞아서 돌아가셨나요? 시집 온지 얼마나 돼서

구술자 : 나 시집, 그러니까는 우리 딸 큰딸이 62이야 지금. 생각 잘 난다. 62인데 세살 먹어서 (세살 먹어서) 응 세살 먹어서 우리 어머니가 이케 업고는 저 금니야매로 현 사람이 문정동 사는데 허러 와가지고 우리 바깥양반이 이가 나빠서 이허고 우리 시어머니 끼고 문춤(먼저) 끼시고 얘기 업고 높은 자락에서 높게 살강(선반)이 매졌는데 접시 그릇 애끼고 쓰는 그릇이 있어 몇 개. 그걸 요렇게 얘기를 업으시고 요렇게 꺼내다가 줄줄줄 줄 쓰러지셔. 그래 얘기 쑥 빼고 그냥, 방에다 모셔다 놔더니 말문이 맺고 그냥 알아버려. 불덩어리 같이. 중풍 맞느냐고 앓는 거를 무당집 가서 물어보니까 이러더래. 허주가 세서 그런다고 허주를 위해 큰 굵을 허래드래. 그래서 저기 큰굵을 했어. 3일을 했어. 근데 낫기는 뭘 나야. 열이틀 되니까 난리가 아니예요. 열이틀 되는까 몸이 싹 씻고 정신이 나고. 말을 험다는 게 공언례야. 공언에 공언애 허가 오그라들어서 말이 못혀 맥혀버

렸어.

조사자 : 공언예가 뭐예요?

구술자 : 그게 말히는 거야. 그게 말 쏘혀 나온다는 소리가 그 소리야. 그 소리만
혀. 말도 못하고. (그 소리만 하고) 응 그러며 인자 그 세살 먹은 딸을 내가 업고
밤새 맨발 벗고 걷고, 철술에다 물 한 술 해서 세수대 씻을 세 개 니 개를 죽 놔.
대변을 봐서 이기고 계시니까. 그래 그냥 저걸 아주 동동발을 하고 엘 아주 탁
들쳐업고. 애가 울면은 우리 바깥양반은 잠 못 자게 애 울린다고 소리소리 질르
시고. 나 불쌍한 거는 저리 가고 잠 못 잔 게 원통한가 봐. 소리소리 지르니까는
식구 안 깨게 하느냐고 내가 아주 업어 애를. 애기가 씻이야. 씻이 모로 쓰러져
버려. 요강을 갖다 놓고. 그런데 국수를 그렇게 잘 잡썬. 훌훌 넘어가니까. 그래
서 국수를 해서 자꾸 해 드리니까 몸이 이렇게 나고 그냥 얼굴이 이렇고 살이
찌셔. 그니까 저 품 팔러 다니던 집 할머니들이 보러 오서 불쌍해서. 우리 시어
머니가 얹전하니까 없이 살아도 마음씨 곱고 얹전하니까. 그래 와 가지고는 이
렇게 날더러 뭐를 해드렸기에 저렇게 얼굴이 뿌옇고 몸이 좋으시냐고 날더러.
우리 바깥양반이 면에서 불른 이름은 윤식이 김운식이, 집에서 동네서 불른 거
는 김장질이거든 이름이 둘이. 그러면서 그 할머니 양가네 집 할머니들이 그래
저 양재동서 와 가지고. 날 이렇게 머릴 쓰다듬으며 장질이는 장가를 잘 들어서
잘 살을 거라고. 장질이는 장가를 잘 들어 잘 살 테니 이제 두고 보라고. 나를 손
을 붙잡고 그냥 고맙다고. 어머니를 뭐를 해드려서 저렇게 뿌옇게 살이 찌시고
저렇게 뿌옇게 빨래를 해입히셔 났냐고. 새로 막 갈아입힐 때 오셨던가 봐. 그렇
게 그런 소리 들었어.

구술자 :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9월 음력 보름날 시집을 왔는데 발자
국 눈이 왔어. 눈이 올 때가 안됐는데 첫눈이 온 거야. 그니까 죄 동네 사람들이
새식구가 와가지고 잘 살으겠다고 잘 살겠다고. 첫눈이 오면 잘 산다는데 올 때
도 안죽 덜 됐는데 이렇게 일르게 첫눈이 왔느냐고 죄 그랬어. 그러더니 진짜 부
자가 자꾸 되는 거야. 나 들어와 가지고. (부자가 되셨어요 점점) 음. 그니까 박
정희 대통령이 저 상황 부어가래서 나라로 부어 난리 6년 부으니깐 다 갚아진 거

야. 다 갠어졌어 땅값을. 그래 다 내 땅 됐지.

조사자 : 그러면 그 아까 저쪽 남한산성 누구 누구 (안경원) 안경원 씨의 땅을 그때
까지 계속 지으신 거예요?

구술자 : 우리 뿐이 아니라 다들 그랬지 판 사람들도. 이 옷단대리 저 금광동 아랫
단대리 저기 안경원 네 땅 해 묵은 사람 다 나라로 부어갔지.

조사자 : 육이오 때도 계속 그것을 짓고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 땅을 계
속 지었어요?

구술자 : 짓고 내려왔지.

조사자 : 박정희가 대통령 됐을 때 그 땅이 나라에다 6년 동안 갠고

구술자 : 나라로 갠았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로 갠아라 상환을 부라 이름을 상
환이라 그랬어. (상환, 아 상환) 상환으로 갠어라. 나라로 갠어라. (나라에다 상
환 했구나) 나라로 갠어라.

조사자 : 그 안경원 안경원 (안경원이 안경원이) 안경원 씨의 땅을 왜 나라에서 그
렇게 대신 돈을 받고 그랬을까요?

구술자 :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니까. (그러면 그 안경원씨
는?) 안경원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니까는 몰라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이거
봐. 사람이 인심이 노적(?)인 거야 이때나 그때나. 인심이 노적인 거야. 왜 인심
잃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그냥 남한산성 소문이 났었잖아. 반공 구멍이 파고 그
냥 다 그냥 쓰레기처럼 엮어서 줄을 엮어서 다 쓸어 모도 다다다다다다 한쪽
에서는 쓰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음력 동짓달 음력 동짓달 그믐날 경찰들이 우
리 영감서건 다 젊은 사람들은 빨갱이들이 밀고 들어와서 데리고 간다고 피접시
켰다잖아 경상도 전라도로. 그니까는 동짓달에 갔다 동짓달 설달 정월 이월 닉
달만에 우리 영감도 집에서 이발한 저 수영이 길어서 머리도 장발맹케 이렇게 길
고 귀신 같애. 이 수영도 여기도 막 이래. 시커멓 뼈다구만 남아서 돌아왔어.

조사자 : 음 얼마만에 돌아왔는데요?

구술자 : 그니까 동짓달 설달 정월 이월 이월달에 들어왔어. 닉달만에. 걸어서 그
렇게. (육이오 때) 그럼. 그럼서 저기 우리 바깥양반이 그러고 그냥 오셔서 애들

이 밥풀을 흘리면 얼마나 배를 고했으면, 밥풀 아깝다 죄 줘 먹어라. 나는 가마 짝에 떨어진 것도 죄 줘 먹었다. 이러시더라고.

조사자 : 그때 육이오 때 그 인제 혹시 자녀분들이 몇 살이었나요? 큰 애가.

구술자 : 우리 지금 큰 아들이 65. 65인데 저 일곱살 아주 장조카 딸이 한 살 위야 여덟살. 그리고 우리 바깥양반은 피난을 보내니까 그냥 어떻게 피난가라고는 난 리고. 저 장지동서 우리집 여기서 감나무밭에 사는데, 외딴 외딴 구석에 저기 천둥이네라고 살았었어 그래서 소마차를. 장지 문정동 장지동 그러잖아. 장지리서 어머니 아버지 큰 집이 사는데, 그 집 식구들 쌀가마 싹고 다 와가지고 우리를 싹고 저기 이불 하나 쌀 당장 먹을 거 좀 싹고 기껏 분당 저 서금배미가 가서 나 흘만에 여기는 못 들어왔어.

조사자 : 피난을 피난을 여쪽으로 오셨어요?

구술자 : 음. 피난을 거기 가다가 중국놈들이 막 폭격을 내리 비행기가 폭격을 내리치고. 중국놈들이 하얀 이렇게 하얀 보재기 니모 반듯한 쪼가리 이렇게 뒤집어 써. 막 폭격 치면은. 그니까 폭격 치면은 막 내리쓰는데, 내리쓰는데 그냥 저 걸 하는 거야. 오다 가다 길에서 가. 오다 가다 길에서 죽어. 그렇게 살고 피눈물 빼고 살았어.

조사자 : 해방 됐을 때는 어땠어요?

구술자 : 해방 됐을 때. (그때 시집오시고 한 삼사년 되셨겠다) 해방된 거 해방된 거고 그렇게 살은 거지. 그 중국놈들 모도 와서 그냥 반공 구멍이 파고 그냥 죄 쉽고, 데러가라고 모두 쉽고 그러지. 그리고 쌀 감춰노면 쌀 다 파다 묵어버리고. 서금배미 가서 나흘 만에 장지동 가서 또 나흘 만에 한 열흘 넘어 오니까 쌀 다 파다 먹어부러어 없어. 그래 밥 얻어다 묵고 살았어. (육이오 때 장지동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분당 서금배미. (분당 서금배미) 분당서 조금 더 가면 서금배미가 있어. 서금배미가.

조사자 : 아까 이즘 성이 바꿨다 겠잖아요? (응) 그거 얘기 좀 해 보세요.

구술자 : 내는 방싯데 박가로 나왔다니까. 똥그래미를 하나를 더 쳤다나 털 쳤다나.

조사자 :그게 언제 때예요? 박정희 때

구술자 : 그니까 박정희 때나 마나 저기 생각해 보면 알지 뭐. 저기지. 저 도민증
 혈 때는 방금순으로 나왔는데 (도민증할 때는 방금순으로 나왔는데) 그럼. 얼마
 안 된 거지 뭐. 주민등록증도 두번째 맨들었잖아. 한번 처음 도민증 맨들고 두번
 제 또 한참 되니까는 저기 (주민등록증 만들고) 응 주민등록증으로 바꿨잖아. 새
 로 냈잖아 또. 주민등록증 잡아 없애 버리고. 또 바꿨잖아 두번째 배꿨잖아. 그
 러니까는 두번 배긴 고 시간 밖에 안되지. 저기 주민등록 혈 제는 방금순으로
 나왔으니까 얼마 안됐지. 안 그래. (두 번째 바뀔 때 박으로 바꿨다고요?) 응 (두
 번째 바뀔 때?) 응

조사자 : 그게 왜 그렇게 바꿨다고요? 동사무소가 불이 났다고.

구술자 : 불이 났었다고 그래 우리 큰 아들이. 나는 여태 그냥 인구조사 할 때 잘못
 써 가서 그랬다고 통장 반장이 잘못 써 가서 그랬나 만날 원망을 했더니, 우리
 큰 아들이 그래. 어머니 동사무소가 불이 나서서 불이 났었다고요. 그래서 불이 나
 서 서류가 다 타서 타고 엉망진창이 반은 타고 반은 남은 쪽 있고. 그러니까는
 어사무사 해서 헛갈려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그니까 우
 리 바깥양반이 그걸 곤찰하고 무척 그냥 법원으로 어디 어디 본사 어디 서울로
 어디 어디 그냥 미칠 돌아다니다 지쳐가지고 아유 애덜 결혼식 금만큼 해놨으니
 까. 어머니 도장은 아들 딸 혼인신고 할 때나 쓰잖아요. 아버지 도장은 많이 써
 도.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냥 둥시다. 그래요. 알아서 하슈.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있는 거지 뭐. 또 중풍을 맞으셨어 우리 영감이. 조 이사 가서. 중풍 맞아서 또
 5년 5년 참. 5년이지 우리 시어머니 3년. 고상 고상 나같이 더 한 사람 없는 거
 같어 이 나라에. 저기 3년에다가 5년을 더하면 8년 아니우. 소대변도 8년 친 사
 람이야.

구술자 : 지금 있는 터 안 팔아 먹고 내 생전은 고상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살았
 지만 자식들이나 내 생전 모아서 집 한 채씩 내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할라고
 이를 팍팍 깨물고 똥 오줌 싼 영감을 눅혀놓고 인형공장 자꾸공장 가방공장 ((이
 부분을 구술하면서는 노래하듯이 운을 맞췄다 평소에 얼마나 반복 생각했는지

짐작이 간다)) 또 신갈의 골프장에 떼 심고 자갈 빼내고 또 풀이 커서 풀밭 매고 응 그러고 멩기고. 또 가락시장 자리 그전에는 김장거리(?)이예요 모래사장 모래밭. 거기 또 당근밭 뽕나무밭 저기 저 미루나무밭 무우밭 배추밭 열 가지네. 그렇게 매러 멩기고.

구술자 : 또 저 지금 공수부대 있잖아 군인부대 창말 고개 너어 원주민촌 고개 너머. 그 창말 넘어가면은 여기 논골 앞에 한티고개라고 걸어서 넘어가면 안 아팠제 입쪽에서 올라가면, 접쪽에 또 까그매서 내려가면 창말 원주민촌 나오잖아요. 그리 또 동네 사람들이 질러서 가면은 군영지 별, 군영지 별 지나가면 소새울 잔버들이 김니 오금동. 감을 목가지에다. 가을에 곡식 주는 땅 안경원네 땅 감나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감 따서 팔아먹고 사이사이 밀보리 심어서 비어 먹고. (감을 그냥 따가 팔아도 되나요?) 흥시만 따서 머리다 이고. 김유전이 마른 곳 서정배 어머니가 김유전이 아니야. 나보다 둘 82이야 지금. 나는 84이고. 그런데 둘이 그렇게. 근디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저 너머 동네서 이 외판집으로 감을 받으러 와. 남의 땅이라도 감나무가 많으니까 안경원네 땅. 그래서 흥시 감을 그냥 두접 석접 이런 광우리에다 이고 첫닭 꼬끼오 올면 애기 업고 보리찬 밥 물 말아 한술갈 떠 먹고 김유전이 나 모도 판 사람 5명 가다가 4명 가다가 6명 가다가 한티고개로 넘어가서 창말 가운데로 해서 (한티고개로) 어 군영지 군영지별로 김니 앞으로 저 마천동 앞으로. 신작로 있잖아 지금도 차 멩기는. 그러면 또 약숫터가 나오지 오금동서 지나가면. 오금동 읍쪽이고 읍쪽 길 있잖아 한 길이. 그리 가면 천호동 가서 넘겨. 넘기고 와서는 점심도 안 먹고 되돌아 와. 애기 젓 먹일 시간도 없어. 포대기詹맨 채 요려고 돌려서 젓꼭지 물리고. 애기 없는 사람들이 착착 니 개 다섯 개 포개서 이 (포개서 이고) 서정배 어머니 일수 달라 해서 떼부자 막 굶었잖아 돈을. 철거민들 철거민들 이사 와서 그래서 돈 모아서 지금 만날 돈 자랑이지. 그렇지.

조사자 : 또 다른 장사 하신 거 방금은 감 장사 하신 거

구술자 : 감장사 하고. 그 일수 마누라 나하고 둘이 나물도 뜯었어 산에서. 뜯어서 삶아서 천호동으로 떡떡이 타고 왕십리 저런 디로 다 멩기면서 도구치고. 광나

루 다리로 도구치고 ((? 도매로 넘겼다는 말 같다)) 대니며 팔고. 천호동 앉아서 감도 이고 가서 소매도 하고 접으로 넘기도 되돌아 또 따서 또 내일 가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고상. (여기서 장사를 가신 게 천호동 오금동 또 뭐 이쪽) 또 송파장에 가서 대운동하고 그럴 적에 소매 하고. 또 고동리시장에 가서 소매 (무슨 시장?) 고동리시장. (고동리) 고동리라고 그러지. 저 모란 그 아래 산 밑에 저기 저쪽 건너서. 그전엔 다 걸어댔잖아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피눈물. 밤새껏 이제 종일 소매변 싸서 이겨놓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갔다 오면은 이겨놓고 계시고 담벼락도 다 발라놔. 이부자리 옷 범벅을 해 똥. 그러면 물을 디어서 댕양재기 떠놓고 동동바리로 애를 엮고 지금 62짜리 세살 목은 걸 엮고 그냥 죄 씻겨드리고. 그리고 3년을.

구술자 :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영감이 술주정 화가 들었어. 술주정 하시고 술 마시면 날 때려죽인다고 작대기 걸고 쫓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내 술주정하는 남편 디고 사는 것도 내 사주팔자 인자 밥술이나 먹으라니까 신랑한테 맞아죽겠네. 이려고는 그냥 저 저 너머 순태네라고 우리 외사촌 성님의 친언니야. 우리 터 지금 사는 터가 거기서 방 한 칸 부엌 한 칸 짓고는 살았었어. 그래서 내가 거길 뛰어넘어 가서 저기 저 그걸 팔랬어 아니 똥똥보똥(?) 내가 문첩 사는 사람이야 여기서 살 제. 사둔 간 지금 보면 사둔 간인데 외사촌 성님의 언니니까 사둔 간인데 여기서 사는데 저 지금 은행국민학교 자리예요 거 가운데가 우리 논 한 자리가. 송농 밭그릇을 논 한 자리가 거기 있었어요. 그것도 남한산 안경원네 땅인데 우리가 산 거지. 보고 가서 산 거지. 그런데 저기 셋국을 내갔는데 아래워서 일을 하는데 아유 일헌 집이서 새참을 내 왔대요. 내 왔다고 저기 우리 영감이 수령논에다가 서까래 감을 뽀주케 해서. 소도 풍덩 빠질 수도 있고 사람도 저 내가다 풍덩 빠질 수가 있으니까 수령논. 수령논에는 팍팍팍팍 모래가 솟지 물이. 거기 밭 똥도 모르고 들어가면 수르르 들어가 버린단니까. 모가지 요렇게 남고. 요것만 남상남상하고 다 들어가. 그냥 허방이야 모래. 물 팍팍 솟는. 그냥 심이 없으니까 포르르 들어. 그래서 그거 표시할라고 작대기 꽂아논 거 나 그걸로 때려 죽일라고. 산길로 질러서 요 감나무 밭에서 외딴 곳에 내가 혼자 숨고. ((다

른 집보다 새참을 늦게 내 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화가 난듯)) 술국을 ((술국인지 새참인지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봐서 반복적인 현상을 이렇게 구술하는 것으로 보임)) 칼국수를 허고 있는데 이자 늦었지. 화도 나게 됐지. 질질 끌고 오시는 거야. 내 그 순태네 순태 어머니야. 아들이 순태야. 둘째 아들은 병윤이고 순태. 막내로 아들 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들 둘 그러니까는 딸 하나 막내로 삼남매지. 그런데 그 외사촌 성님 언니가 순태 어머니예요. 내가 그랬어 지금 보면은 사돈 간인데 나는 언니라 그러고 형님이라 그러고 그래오 둘이 붙들고 울었어. 나 때려 죽일라고 수령논 작대기를 빼가지고 질질 끌고 와. 그 성님 나하고 둘이..

조사자 : 그렇게 남편분이 저기 술주정 많이 하시고 많이 맞으셨어요?

구술자 : 말도 할 거 없지. 지금도 이 못이 백이고 (결혼 초부터 계속 그러셨어요?) 결혼 전에 해서도 화 안들어서도 그렇게 손지검을 잘 해요. 잘 해. 그래서 그냥 그 뭐냐 순태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부지런히 칼국수를 맨들고 있는데 그냥 작대기로 수령논서 빼가지고 질질 끌고 그냥 응 하면서 부엌으로 뛰어들어와요. 나는 벌써 알고 뒷문으로 툭 뛰어나가는데 (술 드시고 술 주정하시는 거예요?) 술도 안들었지 그때는. 눈에서 뛰어들어 온다니까. (근데 왜 잡가지 아무 이유도 없이) 새참 늦게 내 온다고 (새참 늦게 내 온다고) 탄 사람들은 벌써 나와서 먹는데 늦게 내온다고 화가 나서. 그래서 그냥 나는 뒷문으로 뛰어 나가고 순태 어머니는 팔을 벌렸대요. 앞문에서 확 뛰어들어. 시커멓 뛰어들어 순태 언니 온 지도 몰랐지. 나만 있는지 알았지. 이렇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두 팔을 벌리니까

조사자 : 그때는 새참으로 뭘 내가셨어요? 주로

구술자 : 국수 (칼국수) 밀 쳐 맷돌에다 갈아서 밀가루 쳐서. 칼국수.

조사자 : 거기 칼국수엔 뭘 넣어요?

구술자 : 칼국수도 그냥 애호박 찹찹 썰어서 살짝 볶아서 꾸미해 가지고 가서 무쳐 가지고 깨소금 넣고 무쳐가지고 가서 꼭대기에서 살짝 뿌려. 그러면 훌훌 먹지. (그게 새참이에요 아니면 점심이에요?) 지금 고기국보담 더 맛있었어. (그게 새참이에요 점심이에요?) 새참. (점심은?) 점심은 밥 또 해가.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세번. 아침 때 저녁 때 새고, 점심에 밥 (그래도 저기 먹을 게 많았나 보네요.) 아니 그렇게 해다 줘야 일을 하지. 없으면 장내쌀이라도 내서 셋거리 쌀 내다 현다니까. 양식이 없으면 돈 없고 그러면 있자 농사지어서 가을에 일본놈 공출 주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값으면은 동짓달 선달 정월 이월 한 서너 너덧달 먹으면 또 떨어지면 또 장리 해 묵고. 관센보살 도로아미타불 타불이라니까. 백석 지면 뭘 해. 찌져 잔치하고 나면 없어 불고 없어 불고.

조사자 : 이쪽으로 시집 오서 가지고 이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구술자 : 이사 거기서 (거기가 어디죠?) 아니 여기 감나무밭에서 (감나무밭에서) 요기야 바로 요쪽에 (이쪽 그 복지회관) 저쪽에 방앗간 있잖아 평지 고 알로 다 우리 저기 집터야 감낭구밭 감나무밭. 남의 땅 안경원네 땅. 시집온 땅.

조사자 : 그리고 또, 거기서 몇 년이나 사셨어요?

구술자 : 거기서 그러니까는 우리 딸을 낳는데 14살에 14살 우리 딸이 14살에 저리 집을 뜯어가지고 저리 우리 외사촌 성님네 작은 방에서 살았었어. (거기는 어디예요?) 행은재(?), 지금 나 사는 이우제. (거 거기가 그러면) 이우제. 한 동네. (2동 그쪽) 2동이야 다 옆집이야 그니까.

조사자 : 거기서는 또 얼마나 사셨어요? 계속 거기서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구술자 : 그니까 나는 몇 년 살고 그런 걸 몰라 헛갈리는데 (대강 대강) 우리 딸 나 이로 확실하다니까. 열네 살에 이사갔으니까.

조사자 : 14살에 이사 가서 그니까 거기서 거기서 쪽 사신 거예요. 이사

구술자 : 계속 거기서 여태 사는 거야. 그 터에서 집은 다시 짓고 다시 짓고.

조사자 : 집은 몇 번이나 다시 지었어요?

구술자 : 여기서 뜯어가지고 썩은 서까래 빼버리고 죄 새로 끼워가지고 또 비어다가 섞어가지고 맞춰서 짓고 (그면 비싸게 지었겠네요.) 여기서도 여섯칸 반, 거기 가서도 여섯칸 반. (방은 몇 칸데요?) 여섯 칸 아니 아니야 일곱 칸 반이었다 거기서는. 방은 큰방 저 목재집 여덟자 반. 여덟자 짜리. 간 반. 말래 큰 말래((마루)) 간 반. 큰 방 간 반. 또 부엌 아래 부엌 간 반. (간 반은 뭐예요?) 한칸 반. 여덟자 짜리 한 칸 반. 또 부엌 아래 방 하나. 방. 그러니까 큰방 부엌 아랫방 둘.

또 거른방이 둘. 아니 거른방이 하나 셋이었는데. (거른방이) 작은방 말래 건너 작은방. (건넌방?) 그러는데 작은방 뒤로 부엌이 컸어. 쇠죽 주고 간 반을 했어. 그랬는데 간반을 나중에 방을 맨들어 버렸어 또. (방이 꽤 많았었네요? 대가족이 래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거 썰어버리고. 저기 썰어버리고 3층 주택집으로 또 지었어.

조사자 : 그건 언제쯤이에요. 따님이 몇살 정도 되서

구술자 : 그거는 우리딸 그 집터로 이사갈 적에는 14살에 갔는데 (14살에 갔고) 14 살에 갔는데 우리 그러니까는 안채 짓고 살다가 행랑채 몇 년만에 또 짓고. 그리고 살았어. (3층짜리) 지금 3층 주택으로 또 지었어. 행랑채 짓고 안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조사자 : 이집 지은 지는 얼마 안 됐나, 한 10년 됐나?

구술자 : 이집 진 제 이집 진 제도 (한 15년 됐나?) 이 집 진 제가 한 그러니까는 한 20년 다 돼 갈 걸. (한 20년요) 어 20년 다 돼 가.

조사자 : 그러면 두 번 이사를 한 번 이사를 가고, 집은 한 세번 정도 크게 지셨네요?

구술자 : 네. 네. 이 집은 내가 시집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미루낭구 있잖아요. (예 미루나무) 미루나무 방천 논두렁 밭두렁 부잣집에 땀기면서 하나씩 얻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미루나무 큰 목재를) 얻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비어 날랐다. 내땅 그래 가지고 껍질 까가지고 목수 얻어서 집을 지었대요. 여섯칸 반. 잘 지었어. 그러니 이거 뜯어서 저 너머 가서 (그대로 맞춰) 잘 지었지 아조. 그담에 몇 년만에 또 행랑채 짓고. 그러다가 또 싹 썰어버리고 (그래도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네요) 3층 주택으로. (집도 있고) 아니 그니까 처음 거기 집으로 왔다가 우리 두 양 조카 크니까는 침에 현대 둘째 며느리라고 좋았더니, 인자 우리 시아재가 가가지고는 그렇게 행방불명이 돼서 안 되시니까 널문리 사람이 와 가지고 장수는 그때 사람이 소련이 잘 살게 됐다고 소련으로 간대 3일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거야. 815해방이 됐다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불구덩이서 불구덩이서 어떻게 용케 목숨이 붙어 왔네요. 그리고 우리집이를 찾아

왔어요. 이 감낭구밭에 살 적에. 와서 연락을 해 주드라고. (그 아까 저기) 그때
 까장도 남의 땅만 해먹었지. 815해방 된 뒤로 까장.

조사자 : 그러면 그 아까 그 논

구술자 : 그리고 치마끈을 풀라가며 내 결심으로다가 그렇게 늘은 거야. 여기서는
 집터가 112평 (112평) 집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성남시청 놈은 다 도둑놈들이
 다 내 말이. (누가 도둑놈이라고요?) 성남시청 놈들이 다 도둑놈들이다. 내말이
 그랬어요. 내말 들어봐. 다 도둑놈들이다. 응 원주민 땅들 다 뺏아서 저희가 응
 비싸게 다시 팔아먹고. 좋은 자리는 집 다시 지어서 팔고, 또 한지 띠 준 거라곤
 달나라 별나라 꼭대기 팔아도 돈 안 나갈 데, 싼 데, 한지 띠어서 주고. 눈뜬 도
 둑놈들이다. 내가 그랬다고. 내 말 딱 맞거든.

구술자 : 그리고 아 여기서 들와 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4년 큰일 돌아가서 장
 사지내면 큰일 한번이죠. 3년을 품을 팔아다가라도 고여놓고 다섯채씩 고여놓고
 바깥에서 3년을 지내요. 이날에는 지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서 한번 치루죠. 3년 치루죠. 4번 아니예요. 시어머니 돌
 아가서서 증풍 맞아서 3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서 장사 치루
 고. (또 3년상 하셨어요?) 또 3년 하니까는 4년 큰일, 8년 아니어요. 8년이지.
 시동상 둘 장가들어 하나 장가들었지. 또 하나 장만이 시동생 장가들었지. 종오
 시동상 또 장가들었 둘 시동. 또 시누 하나 시집보냈지. 그면 11번 큰일을 하네
 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상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사니까는 고상하
 고 일귀놓고 살았더니 내 자식들이 커서 다 장가들고 시집보내게 되고 우리 바깥
 양반이 증풍이 맞아서 신 아홉에 증풍 맞아서 63에 5년 만에 장뎡이가 썩어서
 이 뼈 땅에다 드러논 오늘 드러누었으니까 등창이 나면 죽는데 풍맞은 사람이 이
 뼈 닿는 데 마도 들떠가지고 파리가 이런 물이 잡혀. 장뎡이가. 이쪽 놀르면 이
 리 밀리고 이쪽 놀리면 이리 밀리고. 밀려 물그덩물그덩 물이. 들떠서 썩는 거
 야. 냄새가 나고. 구테기도 난 사람이 있다는데 뭐. 여름에. 그렇게 돌아갔어.

조사자 : 그 아까 천호동 이쪽으로 장사를 다니신 건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셨어
 요?

구술자 : 그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집에 살 때) 이집에 살 때 땀기고 그러니까는 우리 막내가 지금 열 아니 마흔여덟인지 일곱인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큰아들하고 또 우리 막내 아들 하고 가만 있어 봐요 우리 큰딸하고 큰아들하고 우리 막내하고 둘씩 둘씩인데, 쥐띠고 우리 큰딸하고 아니 우리 큰아들하고 큰딸하고 닭띠고 우리 둘째 아들로 둘째는 용띠고 혼자예요. 용띠고 또 우리 막내아들하고 막내딸하고 쥐띠 걸요. 쥐띠 거야. 둘씩 둘씩이야. 쥐띠고 용띠 우리 아들 하나만. 그런데 그 너머 가서도 여기 와서 감을 따다가 죽 말래다 늘어놓고 팔러대냈어요. 여기 땅 해먹은 동안은

조사자 : 그러면 주로 이렇게 돈 돈은 장사 다니시면서 벌으신 거겠네요?

구술자 : 천호동 가서 벌면요 쌀 한말에 90원 할 때야. 90원. 10원짜리 9개. 그때 배시는 600원 천호동 이고 가면 한 접에. 배시라고 이만하잖아요. 배시라고. (배) 배시 (배시?) 감 이름이 배시야. 쟈 큰 거 둥근 감 이만한 거. ?? 텅어리만 해. 그거 한 접에는 600원. 고종시 뽕죽뽕죽 한 거 장지(?)는 400원, 또 저기 참수시도 400원, 또 당수시 잘잘한 거 퐁그랏고 씨가 많아. 그건 침당가 먹는 거야. 울거먹는 감 석접 녀접을 이고 가. 석접 반 녀접을 천호동 모가지가 부러지도록 한 광우리씩 이고 가. (거기 다 이고 가면은 사먹는) 그거는 300원.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천호동 가게서 받아서 팔아 소매로 팔어. 싸게 받아서. 그리고 땀겼어. 그 김유전이도 같이 그러고 땀겼어. 그 김유전이도 고상 많이 했어.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그 신랑을 노총각 장가도 못 보내고 가난한 집 토담집 그런데 친정에서 머슴을 뒀어. 여기 사람이 머슴을 가서 살았어. 그랬는데

조사자 : 그분 이야기는 지난 번에 다 들었거든요.

구술자 : 응 나중에는 저기 저 사람이 암전허다고 데릴사우를 했어. 그래서 저렇게 복받고 잘 사는 거야. 고상 많이 했어. 나하고 감 나물 이고 팔러 땀겼어. 그 얘기 험디까? 나물 팔러 다녔다고.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거짓말 안 허잖아.

조사자 : 농사일은 안 하셨어요? 그 장사만 다니셨어요?

구술자 : 그 감 한 저 물을 동안에 잠깐이지. 감은. 저 장사는. 농사 그냥 지었지 그냥. 보리를 안 빗어, 보리타작을 안했어, 콩보리 다 콩타작을 안했어, 벼타작을

안했어. 모든 거 없이 다 했어. 다 했어.

조사자 : 은행동 이쪽에 사람들이 지금 언제쯤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구술자 : 여기 많으, 그러니까는 여기 침에 개발되면서 많아졌지. (개발된 계) 그럼. (70년) 그건 자세히 모르겠네. 따져보면 알 텐데. 어사무사해. (그 전까지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아 많지 않았지. 군데군데. 저 건너 은행지에 한 여남은 집, 요기 한 열댓 집, 저 웃말 한 대여섯 집, 군데군데 서너집 그 저 군데군데 군데군데 (그렇게 있다가) 그럼 그래서 이렇게 왜르르 터져서 지금은 이 남문 알로는 웃니 아랫니 따로따로 있고 광주 남한산성 합쳐서 지금 써먹고 그렇잖아요. 그래 됐어

구술자 : 근데 댜데 뭐 좋은 일 좀 있을라고 그래 남을 도와줄라 그래 뭐야. (어 아 니 그러지는 못하고. 아까 말했듯이 책 그냥 책 만드는 거예요) 으응. 도와준 거 같으면 열성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참 저기 이려고 살다가 우리 바깥양반 중풍 맞아서 누워계신데 소대변은 밤에만 치고 낮에는 인형공장 그렇게 자꾸공장 공장으로 댜기고 밭 매러 댜기고 골프장에 댜기고.

조사자 : 아, 공장 다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구술자 : 그러니까 자꾸공장 가방공장 저기 인형공장 또 이불 홀이불 박는데 안해본 거 없어.

조사자 : 공장에 다니신 거 이쪽의 동네가 좀 커져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얘기죠?) 그렇지. 많았을 때지. 그렇게 공장 다니면서 우리 바깥양반 소대변 쳤어 밤이면. 그런데 인자 야간 하고 오면 12시가 다 돼. 8톤 8톤 짜리에다 우리들을 잔뜩 싣고 대니며 하대원 창곡동 구종점 보통골 다 돌아 내려놓고 우리집 앞에야. 그 8톤짜리 차 기사야. 그러니까 마지막 번에 날 텔고 와서 저기 집이야 바로 지금 동사무 앞에. 그러니까 맨 나중 싣고 와. 그니까는 맨 나중 와 (그 8톤 트럭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싣고 다녔어요) 어 아니 8톤 왜 저 큰 버스보다 조금 적은 거 있잖아. (아 그거) 버스 (버스로 그렇게 회사 버스가 그렇게 다녔어요?) 어 아니 그 사람 차야. (그 사람 차) 그 사람 차라고. 차 있는 사람이 사람을 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돈 벌라고. 그 차 타고 다니면 우리 집앞에 동사무소 앞에 살았었어.

조사자 :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일하러 가셨는데.

구술자 : 아 그냥 어디 할 거 뭐 있어. 그냥 구종점 구종점 인형공장 인형공장 그런 데로 멩기고 그냥. 뭐 안 멩긴 데가 어딴어. 이러저리 다 멩겼지. 가락시장은 저 뒤야 사거리까장 성남 사거리까장 걸어나가서 그 빨간 합승 있었잖아 그때 시절에 그거 타고 잠깐 가락시장 갔다 수원 저리 나가는 차. 사거리서 내려가지고 또 걸어오는 거지. 걸었어 걸었어.

조사자 :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자녀분들.

구술자 : 많이 못 시켰지. 그때 시절에는 (여기 학교가 근처에 있었나요? 초등학교) 어 나 시집오니까 저기더라고. 송파장 봤어. 여기 장도 없었어. 고등리 대왕 고등리장 송파장 (송파장 고등리장 하고) 그림. 그랬는데 학교는 지금도 시청 고개 너머 좀 위에 보건소 있지 보건소 맞은쪽에 전낭구 있고 왜 지금도 있잖아 국민학교. 그거 일본 정치부터 있었어. 나 시집올 적에 나 시집 왔는데 있더라고 (성남초등학교) 어 남한산성 파출소 나 시집오니까 면사무소 국민학교 지금도 있잖아 국민학교. 그제 일본 정 나 시집오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큰 딸하고 큰 아들은 그리 멩겼어. 남한산성 국민학교 마치고 또 (남한산성 국민학교) 응 지금도 있잖아 국민학교 (남한산성 국민학교) 응 (이름이 학교이름이 남한산성국민학교예요) 예 남한산성국민학교 저기 우리 큰아들 큰딸은 멩겼어. (산성 내부에 있는 거) 예 지금도 있잖아요 (있죠 남한산초등학교) 파출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그럼 여기서 거까지 완전 산을 넘어 다녔겠네) 그럼 거까지 지금 길로 걸어멩겼어 걸어멩겼어. (성내로 들어가서 학교 공부하고 다시 나오고.) 조위 약수터로 조곤 남한 내까장 길이 있잖아. 그길로 걸어멩겼다고. 걸어오고 걸어가고. 무슨 쪽지 하나만 뿔러면 그길로 걸어가서 띠고. 남한산성 면사무소 가서. 파출소 볼 일 있으면 걸어서 그리 올라가고 그랬어. 그리고 여런 디 파출소 뭐 아무것도 없었어. 저기 송파 있고. 송파장 보고. 송파가 여기서 20리야. 걸어 멩. (송파가 20리) 그렇게 멩겼어. 아무 것도 없었어. 산골 군데군데 원주민 몇 집씩 있고. 논밭 있고 산 있고 그 그렇게 살았어.

조사자 : 할머니가 그러면 언제부터 좀 편해지셨어요? 집안 살림이 언제부터 좀.

구술자 : 아 이 뭘 알아. (1:04:18)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환 부어라 해서 상환 부고 나니까는 좀 인자 나아진 거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그랬잖아. 나라로 부어가라 해서 나라로 부어갔잖아. 남의 땅 해먹다.

조사자 : 그때 한번 조금 좋아지시고 또 여기 그러면 개발할 때쯤 또 형편이 좋아지셨나요? 개발할 그 당시에

구술자 : 뭐가 좋아져? 논밭 시청에서 다 논밭 논밭은 전이라 그러고 집터 하나만 준다니까 그냥. (그거 저기 보상 안해 주고요?) 집터 하나만 주인네 맘대로 하게 주고 논밭은 전이라고 그래서 내 도둑놈들 이름도 잘 짓네 그랬어. 논밭은 그냥 뺏어버려. 논 한평에 350원 주고. 밭은 340원 30원. 20원 띠어 또 밭은 더 싸다고. 그렇게 뺏었어.

조사자 : 그래 그때 논 얼마나 논 얼마하고 밭 얼마를 뺏겼어요?

구술자 : 우리 농사 지어 먹던 거 다. 몽땅 그림 (지어먹던 거 다) 그림. 몽땅. 근데 집터 요 감남구밭에서는 112평, 또 저기 지금 이사 간 디서는 외딴 디서 못 살것다고 이사를 가자고 우리 바깥양반도 그래 이집을 뜯어가지고 옮겨짓고 가서 산다니까 지금. 그터 이사갔다니까. (그때 논밭) 그런데 그 터는 217평. (217평) 얼마나 늘었어. 곱이 더 늘었지. (논밭을 그렇게) 아니 17평이 뭐야 237평. 지금 집터가. 그래서 집터를 6동으로 쪼갠잖아. (아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차지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 가지고 저기 내 친구 터가? 각각 사자니까 안 산데. 그런데 그 터 때문에 우리가 안 사면 딴 사람이 가로채잖아. 그래서 그거 한 데 끼어서 사서 그집 40평 띠어줬지. 사가지고 한 10년도 14년인가 살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곡식 받아먹지도 않고 세금도 우리가 한테 다해서 우리가 다 내고. 곡식도 안 받고. 그냥 도지도 길보리 曷^{ᄇᆞ} 서 말씩 서 말씩 해줬다 그러더라고. 서울 종종 땅인데 샀다 말이야.

조사자 : 논밭이 이렇게 시청에서

구술자 : 인자 그만해.

조사자 : 가져가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구술자 : 현 소리 또 허고 현 소리 또 허면 뭣해? 인자 그만해 진저리 나. (어 그래

요?) 힘들어.

조사자 : 힘드시죠, 좀 힘드시죠! 어 어 여기서 사시는 건 편해요. 요즘은? 요즘은 어떠세요 생활이.

구술자 : 그러면 ... 더 편하지...

조사자 : 저분은 누구예요.

구술자 : 우리 아들하고, 큰아들은 저기 수원가 살고 둘째 아들하고 살어. 저 분은? ((이 부분에서 구술자는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귀속말로 속삭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구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

조사자 : 뭐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살아오시면서 그러면...

구술자 : 우리 할아버지는 중풍 맞아서 5년 만에

조사자 : 그 얘기는 하셨고요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구술자 : 인자 다 했어 그러면.

조사자 : 그니까, 그 평생 살아오시면서 잘 살아오신 거 같아요?

구술자 : 고상하다가 나중에 잘 좀 살만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중풍 맞아서 삼년 고생하시고, 우리 바깥양반 또 저리 이사 가서 원아홉에 중풍 맞아서 예순셋에 세상을 오년 만에 뜨시고, 뭐 잘 살 거 뭐 있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조사자 : 자녀분들은

구술자 : 다 결혼시켜서 나가고 시집가서 잘 살고 (잘 살고 계시죠, 자주 찾아오시나요?) 아 그럼 자주 오지. 어머니 보고 싶으면 보러 오지.

조사자 : 예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술자료

은행동 김유전 녹취록

일러두기

- * 조사자와 구술자만을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전사하였다.
- * 구술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문단을 나누고 구술자 표지를 첨가하였다.
- * 호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어구는 따로 문단을 나누지 않고 괄호 () 속에 전사하였다.
- *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는 이중괄호 (()) 속에 표준어를 병기하였다.

구술자료

은행동 김유전 녹취록

구술자 : 김유전

조사자 : 장노현

* 2009년 11월 2일 은행동 김유전 할머니 서사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술자 : 인자 공부 할라구 책을 저런 종이를 그냥 되배지를 그전에 민패 썼어요.

그거를 꺾매 가지고 가고 연필을 요만한 도막을 어서 하나 얻어가지고 하루 저녁 나갔다 이틀 저녁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패시는 거야. 기집애 바람날라구.

조사자 : 어디로 나가서 공부 하실려고 했는데요?

구술자 : 거기는 양학 했죠 양학 핵교. (청중 : 양학이라고 사랑방 있었어) 네 그러니까 못나갔죠 뭐. 못나가고 (공분 하고 싶으셨어요?) 아유 그럼 배우고 싶고 울고 그랬죠. 그러다

조사자 :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구술자 : 12살 (12살 때?) 네, 12살 때

구술자 : 그러나 이제 13살 되면서 직졸 찐다고 20명이 공회당이라는데 틀을 놓고 짰어요. (직조?) 공부는 못 해두 아니 올맹이더라구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짜는데, 그런데 실을 노나주는데 공부는 못했어도 공부한 사람보다 정신이 더 좋고, 뭘 그런 거 어디 흠쳐거리지도 았구 그럴 사람이라구. 너는 그러니까 니가

반장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것도 쓸지도 몰르고 그러니까. 막 말루만 허래 그럼 자기네가 쓴다구여.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반장을 해가지구 직조 짜는 실도 노나주구 그러다 이제 한 13살 14살꺼정 그걸 했는데,

조사자 : 그게 공장이었어요? (공장에서 했죠.) 혹시 일본사람이 하는 공장이었나요?

구술자 : 이른 공회당이라구 큰 곳간 있는데 거기서 직조 틀을 놓고 직접 짰어요.

구술자 :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13살 14살꺼정 했는데, 인저 우리 영감 누이가 살었어 동네에. (청중 : 왜정 때 아니라여?) 네? 왜정 때죠. (청중 : 일본 사람들 하고 그래 공장 짜고 그랬었어) 누님이 우리 영감 누님이 살었어 동네서.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 친어머니가 인저 자기 누이가 동생을 날 중맬 스는 거지. 그러니깐 우리 아버지 히고 어머니 히고 저이가 저렇게 얌전하니까 동상도 착할 거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홉 살에 자기 아버지를 잃었대요. 남의 집 가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서 시집을 해서 여기서 방을 그냥 저것두 안주구 세두 안주구 얻어들었었어요. 얻어들었는데

조사자 : 그러면 그 쪽 신랑 쪽은 원래 여기 사시던 분이었나요?

구술자 : 신랑 쪽이 여기죠. 인자 자기 고향이지. 네. 그런데 시집을 왔는데 솔도 없고 방은 하나 얻었는데, 일본정치 때라 솔 그런 걸 사질 못했어요. 사춘 시누네가 가보니까는 대문 밖에 그 흔 솔 하나가 있더라구. 그래서 성님 그 솔 좀 쥐, 나 걸구 밥 좀 해먹게,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걸구 그리구 해먹는데,

구술자 : 그리고 일본 정치 때 쪽 했는데 양식이 있어요 뭐 있어요! 영감이 땡김 일하면 보리쌀 한 되를 양아종((양아종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에다 주더라구요. 양아종에다 주면 그걸 먹다. 인자 한 달 보국단이 나온 거야 (뭐가 나와요?) 한 달 보국단, 영감이 보국단이라고 전에 있었어요. (청중 : 보국대라고 갔어요) 일본 정치 때 한 달 가서 어디가 일하는 보국단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올은 거야. 나는 당신 가면 굶어 죽을 테니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루하루 별어다 주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인제 친척집이 화장실 불이 나서 거기 가서 5일

을 일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뭐 곡식을 달래서 갖다 놓는다구. 그런데 거기는 곡식을 면서길 땡기고 그래서 일본 정치 때 배급두 몰래 우리 영감이 저녁에 몰래 저다 주구 그랬어. 그러니까 인저 가서 그래니까 순을박에다 쌀보리 한 되를 쥐 보낸 거야. 그걸 가지구 맷들을 얻어다 싹 갈아가지고 한 달 올 동안에 한 움큼씩 물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인제 한 두 그릇 넘게 끓여요. 하루에 낮이면 그거를 한 모금씩 마셨어. 그러니까 하두 그러다 보니깐 사람두 안 봐는 거야. (칭중 : 그렇지.) 아유 나는 사람이 안 보여 일어나 땡길 수도 없구. 근데 언니가 왔어, 언니가 와서 애~애~ 우리 언니는 남한산성서 사는데, 애~애 우리 집이 가자 그래서, 아이 언니 나 못가! 나 먹은 게 체서 토하구 그래서 못가, 이제 부러 그러는 거죠.

조사자 : 그 때 언니는 어디 살았는데요?

구술자 : 남한산성. (남한산성 안에) 남한산성 안에서 살았죠. 근데, 나는 굶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못 가는데, 그렇게 핑계를 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먹니? 아유 그 전에는 먹은 게 체면 식소다 그거 밖에 없었어요. (식소다?) 그래서 그걸 뭐 언니 나 약 먹었어. 소다 먹었어. 그럼 쪼끔씩 가라앉을 거야,

구술자 : 한다 한다 이제 봄이니까 나물을 뜯어다 팔러간 거야, 저 왕십리면 여기서 한 50리 되여. 천호동이 40리에여. 나물을 뜯어다 이구 팔러가서 집이 가서 아유 나물 좀 사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젊은이가 왜 이렇게 이걸 팔러 다니우 그래. 쪽은 이만하게 찌구 아 그럼 15살에 시집 와서 16살이니 아유 그래서.

조사자 : 왕십리에 가서 나물을 팔았어요?

구술자 : 팔었지. 집집마다 땡기면서 나물 사세여 나물 사세여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문을 두들기면.

조사자 : 나물은 어디서 캐셨어요?

구술자 : 나물은 이제 산에 땡김서 뜯죠. (뜯어가지고?) 응. 뜯어가지고 그러면, 나물 사세여 나물 사세여 그러면 인저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열어줘요, 근데 아유 왜 이렇게 젊은이가 왜 이렇게 이걸 팔러 땡기우. 그래서 이리저리해서 저 신랑이 보국단을 가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걸 뜯어가지구 왔다 그러면 들어오래 가지

구 밥두 뒷말래에다 밥두 주구. 또 일본 정치 때라 옥수수 그걸 주구 나물두 사
요. 그럼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담그지 인지. 담귀서 그걸 싹 같아요. 멧돌에다
저 콩 갈듯. 그래가지구 죽을 씹먹었어. 그래구 인지

조사자 : 그 때 왕십리 가서 그거 팔 때 왕십리는 풍경이 어땠나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나요?

구술자 : 많이 살았죠. 여기는 다섯 집이 살았어 나 살 적에. (시집 와서?) 네. 시집
와서. 원래는 (여기가 감나무골?) 감나무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단대 단대동이
라고도 그랬어요.

조사자 : 그 때부터 단대동이라고 했어요?

구술자 : 응! 단대동이라고 그랬지, 감나무골은 야중에 들 감나무골 감나무골 했
지.

조사자 : 원래는 단대동이라고 했어요?

구술자 : 예 원래는 단대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자 : 다섯 집 밖에 안 살았어요? (다섯집 밖에 안 살았지) 신랑분 집하고 포함
해서 다섯집?

구술자 : 신랑집은 난 남의 세 들었었지 집두 없었지 (아, 세들었구나!) 그래서 그
러다 이제 솔방울을 여름이면 따다 두 가마를 따가지구 이렇게 두 가마 이렇게
묶으면 머릴 델 수가 없어서 널빤지를 대요. 널빤지를 대 묶어서 그 가운데 이구
가면 두 가마를 이구 가. 그러면 거 그전엔 지금은 쇠곡동이라 그러는데 거 반고
개라 그랬어. (무슨 고개요?) 쇠곡동이라고 지금은 그래는데 (쇠곡동 세곡동?)
응 그런데 그전엔 반고개라 그랬어. 그걸 이구 인지 솔방울 사라 그러면 풍선을
이렇게 돌리는 데서 솔방울을 사요. 조사자 : 무슨 풍선을 돌렸어요?

구술자 : 뭐 이렇게 저 솔방울 집어넣구 이렇게 뭘 돌리더라고.

조사자 : 아 풀무? (청중 : 아 그거 풍노, 풍노!)

구술자 : 그러면 사더라고. 그러면 그게 한 가마에 두 가마에 20원 200원이야.
100원이지 200원이지, 인지 그걸 해가지구 영감이 나하구 9년 더 잡셨어. 영
감이 위해주는 바람에 산 거야.

조사자 : 한 달 만에 그럼 돌아오셨나요? 보국단.

구술자 : 한 달 만에 돌아왔죠.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조사자 : 어디로 가셨는데요? 보국단을?

구술자 : 어디로 간 건 몰라, 그 때만 해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영감이 있어두 장사를 한 거야 그렇게. 장사를 하구, 낭구장사두 허구, 나물장사두 허구, 두부장사두 허구, 하하하하하.. 남의 집에 가서 보리방알 찢어주면 종일 찢어주면 찢어서 널었다 까블러서 또 두 번 찢어주구 그러면 점심은 먹구 와여. 그냥 거저 찢어주는 거야 품값두 안 받구, 밥 얻어먹을라구 (점심만 먹구?) 네! 그러면 저녁에 밥 한 그릇을 줘요. 그럼 그걸 영감 갖다 줘야잖아 하하, 그러니까 밥을 한 그릇을 가지구 왔어

조사자 : 아니 그럼 남의 집에 어디 가서 그렇게 품을 팔 테가 있었나요?

구술자 : 사춘 시누네 이런 집이가 넉넉하게 사니까,

조사자 : 사춘 시누네는 어디서 살았어요?

구술자 : 한 동네 살았어. 다섯 집서, 그러니까 찢으면 저녁에 밥을 줘, 그러면 성님 나 이 밥 가지고 갈까봐 낮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됐어, 성,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영감을 주면, 왜 당신 먹지 그래? 아 나는 거기서 먹구 왔다구, 성님이 밥을, 그러구 당신, 사춘 동상이야, 성님이 당신 갖다 주라구 이거 주더라구,

구술자 : 아니 그러구 했는데, 일본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술을 달래는 거야. 대문 밖에 버리던 술을. (청중 : 그걸 왜 돌려 그래?) (해방 됐는데?) 해방 됐으니까 술 사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성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러니까 성 돈 생기면 술 사오면.. 아 지금 해방 저거 됐으니까 술 살 수 있지 않아? 그래!

조사자 : 몇 년을 그 술을 한 5-6년 썼나요? 그러면

구술자 : 아니 5-6년 안 썼어. 그래서 해서 인제 한 동이들일 사온 거야. 물두 끓인다고 큰 걸 사온 거야. 그걸 갖다 줘어요. 인제 띄어다 요만한 지금 양은술 같이 그런 테두리 술이야. (그건 어디 가서 사오셨나요?) 그건 송패장에 (송파장?)

응 송파장, 여기서 송파장을 봤어 5일만끔씩. (5일에 한 번씩 송파장에 가서?) 인제 거기 가서 그걸 한 동이들이를 걸구 거기다 물 데어 끓여 퍼 놓구 또 거기서 밥 해먹구. 죽 쑤먹죠, 밥이나 제대로 해 먹어요? 그렇게 해 먹는데, 그 뭐 오죽 허겼어요? (그렇죠!) 오죽 허겼어? 그래서 내가 빼가 부서지나 내가 못 사나 ((못 사나))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잣말로 내 빼가 부서지나 내가 못 사나 한번 해보자! 내가 속으로 난 자식을 나 같이 고생을 시키면 어떡허랴? 인제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드라구.

구술자 :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겨울에는 그냥 소나무 잎사귀 떨어지면 솔잎이라고 그래요. 솔가리라고 그래요. (솔가리!) 그걸 겨울에면 밥을 요만큼씩 싸가지고 땡기면서 이전 나는 농사를 어른 농사를 지었지. 어른 저 도지로 몇 가마씩 주구 그 눈을 해먹으면 그렇게 주기루. 그래서 인제 가서 물이 얼으면 쫄쫄쫄쫄 내려오는 골창이 있어요. 거기다 돌맹이를 걸고 냄비를 놓고 거기서 물을 퍼붓구 밥을 끓여 먹구, 쪼일 나무를 가리를 굽는 거야, 굽어다 행주치마에다 보따리에다 여다 길에다 부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지잖아요. (청중 : 그렇지 갈비 갈비) 가리 가리. (솔가리) 그러면 영감이 낭구를 석짐을 저 송파에다 마차루 사러와, 개울게다 하루에 석짐을 해다 거기다 부리는 거야. 그리고 인제 날 나 찾아 올라오는 거야. 당신은 집에서 점심을 잡숫구 그럼 가리를 이렇게 해다 놓으면 묶어요. 묶어서 두 동 묶으구 나 한 동 이구. 인제 내려와서 나는 새벽같이 그걸 송파장으로 가리를 팔러가는 거야. (송파장으로?) 그러면 그거 집집마다 땡기면서 낭구 사세요 낭구 사세요 이래는 거야. 그러면 산대는 사람 있구, '안사여!' 이러는 집도 있구, 여 들어와 보라는 집도 있구. 그제 200원이야, (한 집에?) 네! 그런데 한 줍이 아니라 한 단이지 이렇게 묶은 게,

구술자 : 그럼 배가 고파 죽것는 거야! (청중 : 한 동이라고 그래) (아 한 동!) 배고파 죽것으면 건빵 하나면 1원이야. 낭구는 200원이구, 이제 건빵 한 봉을 사가지고 오다 어디 와서 물을 마시고 그걸 좀 먹어두 살것드라구! 그러다 오다 그것 두 못 사먹는 날은 여기서 친정서 여기 넘으려면 고개예요. 그러면 와다 드러눕다 소나무를 보면 저 소나무를 꺾어가지구 꺾질을 까서 그 물만 굽어 먹어두 살

것다. 그런 생각이 난다. 이렇게 보다는, 아휴 저저 내가 산 가질 꺾으면 먹을 건 많은데 소나무가 병신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 한 거 꺾어가지고. 봄이니까 물이 올라서. 그럼 까면 까지더라구, 그래서 그거를 득득득득 드러누워서 소나무 꺾질 까가지구. 물이 올라서. 그럼 사람이 거기는 안 덩겨요. 그전에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담벼락에 드러누워서 그거래두 이렇게 굶어서 먹구 일어나서 오면 조금 또 나아요. 그렇게 살았답니다.

조사자 : 송파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구술자 : 송파장에 가든 (한나절?) 어우 한~ 두 시간 걸리는 거 같애. (가는 데만) 그래가지고 낭중에는 혼자 이구 내릴 수가 없으니까 지게에다 두 단씩 지고 가는 거야 (할머니가요? 직접) 응 지게에다 져야지. (지게질두 잘 하셨겠네요?) 그럼! 아니 질수도 없는 거 지는 거지. 이구 내리구 누가 여주구 그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지게에다 지는 건 낫더라구. 두 단씩 지구 인저 친정이 그 동네두 내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래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뭘 친정엘 들어가랴? 죽어두 내가 그냥 살지. 어디 가서 뭘 친정에 가서 달래구 그러긴 싫다. 내가 사는대로 살아보자 이래구는. 두 단씩 지구 가든 한 단 이구 가는 거보담 곱절 벌어요잖아요. 200원씩이면 400원 벌어가자구 오는 거야. 그렇게 벌어가자구 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조사자 : 그렇게 사실 땀 좀 먹고 살만했나요? (예?) 먹는 건 좀 충분.

구술자 : 차차 차차 좀 나아져서, 동네서 그전에는 동네 10월 보름날이면 이렇게 회의를 해요. 갓 여기 네 동네야. 웃던대 던대 은응리 논굴. 이장이 인저 (다시 웃던대) 응 웃던대 던대 (던대) 은행 은행동 (은행동) 논꿀 (논굴) 그런데 그 4부락에서 이장이 하나야. 이장이 하나면은 10월 보름날 저걸 해요. 회의를 하면 베 ((벼)) 한말씩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베 한말 가지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등수도 안 드는 거야. 등수도 안 들고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살다~ 이제

조사자 : 회의할 때 무슨 회의를 하나요? 어떤 내용을?

구술자 : 동네서 어떻게 허란 그런 회원가 봐 가보긴 여자니까 안 가보니까 모르...

조사자 :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근데 뭘 가지고 가야지?

구술자 : 베! 베! 베 한말씩 농사 지었다구. (그걸 가지구 가야) (청중 : 이장 모급이라고 있어요. 이장 모급) 월급이야 이장 월급이야.

조사자 : 이장 월급? 아~~ 그걸 주민들이 가지구 가서 주는구나.

구술자 : 그래서 그해 봄 계울계 나면은 또 농사 질래믄 그냥 일을 하면 일꾼들이 있으면 밥광우리 왔다갔다 하면, 나는 뭐 집이 들어와야 밥이 있어? 그러니까 앉아서 김매다 어디 우물이 있어유. 눈 가상 같은데 물이 있어요 들에두. 거가 가서 물도 좀 마시고 앉었다 하다.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요만큼씩한테 고고를 부비면 요런 게 있어요. 물 마시고 고고래두 두어개 까먹으면, 그거 똥다 캐믄 많이 썰 건데, 왜 그걸 요만한 것두 죽겼으니깐 우선 배고프니까. 배에서 소리를 캅~캅~질러요 속에는 낫알이 없으믄. 그냥 속에서 그냥 꿀~꿀~해요. (벅속에서?) 네 (청중 : 그럼요 배가 고프니까 창시가 꿀~꿀~그러지요.) 그러니까 고걸 까먹구 물을 마시구, 그렇게 살아 나왔어요.

구술자 : 살다 인저 집을 짓는데 소나무를 여기서 산에서 막 비어다 기둥두 하구 그래요. 서까래도 하구 집 질래믄. 그걸 비어다가 나무 혈수간에다 한해 깎어놓구. 그 깎어놓는 것두 목수를 또 얻어서 깎어놓는 거야. 또 한해 일으켜 시우고 (기둥을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시우고 또 그걸 방을 놓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짚만 깔구 거적대기만 깔어두 냉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에다 가마! 가마도 쳤거든요. 가마두 이렇게 치구. 자루 이렇게 가마 치잖어. 그걸 이렇게 문에다 달어요. 그러면 그게 문이 없으니까. 그러다 배깁에서 불을 때서 화로에다 담어다 놓으면 아래는 짚 깔고 가마떼기 퍼면 안 추워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조사자 : 그해 해방 이후에 사신 거죠? 언제 사신?

구술자 : 아니 해방 안됐어.

조사자 : 해방 전에 그렇게 세 들어 살다가 집을 하나 지으실려고?

구술자 : 집 짓구 살려구 그걸 그렇게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는 저 높은 산에 갔다 놔두 살 년이라구, 저 년이 끝끝해서 얻으러 친정에 뭐 달란 말도 안 하고 그래로 굶으면 굶는대로 살구 저러다 굶어 죽을런지

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래두 픽 웃구만 오지. 동네 노인네들이 장기를 뚜덕뚜덕 하면서 아유 사람노릇 못해 사람노릇 못해 이렇게 말렸으니 어떻게 사람노릇을 해우? 그래요. 그래믄 그냥 가만히 있다 어떤 적은 또 울어요. 눈물 쏟아지니까 그 소리 들으면 눈물 쏟아지니까. 딱하고 내가 우는 거야.

구술자 : 근데 그래두 영감이 우해줘 살은 거야. 영감이 저기 어디 언덕에 갈려면 업구 가. 또 이런 조석을 해두요 나 보고 물 떠오라구 그래요. 자기 밥 털어서 내 밥에다 꼭꼭. 나는 이렇게 밥을 퍼서 자기 밥은 좀 많고, 나는 이렇게 많은 거 같 이 가운데 들어가구 가상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밥이 많은 걸루 알라구. 그럼 물 떠오라구. 그럼 밥그릇을 가져가 떠 오는 거야 내가. 그래~두 나는 못다 먹는 다구 털어주구. 그래서 그 정으루 사는 거야 (금슬이 아주 좋으..) 그 정으루 산 거야. 죽으면 같이 죽자구, 나는 너 버리구 못 죽는다구 그래, 돌아간 지 26년이 됐어요. 내가 선일굽에 혼자 됐어요. 그래두 살어서 같진 안더라구요. 살아서는 같이 가자구 했는데, 죽은 길은 안 데려가더라구 하하하하. 그래 내가 산소에 가 두 지금두, 여보 당신은 혼자와 못 있는 대더니 어떻게 나를 안 데려가구 이렇게 살우 애래요. 그렇게 살았답니다. 나 고생한 생각하면 지금 자식들 보고 얘기 못 해요. 얘기하면 자식들이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 엄마 그 옛날 고릿작 얘길 뭘 하나 이럴까봐 안 해요. 여기서 속 소리가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조사자 : 해방이 되기 전에 그렇게 사셨고 해방되고 나서는 살림이 좀

구술자 : 해방 되서 낫구. 인제 그렇게 나물장사 떡장사 무릇장사 낭구장사 감장사 다~ 하니까, 땅을 해마다 사게 되는 거야.

조사자 : 땅을 좀 사셨어요? (응!) 이쪽 근처에다가? 네.

구술자 : 땅을 사서 8000평을 사서 이 동네 4부락에서 1등처럼 하고 살았어요.

조사자 : 아유~~얼마동안 모아 땅을 사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그냥 또 한 해마다 그 농사두 더 팔구, 또 내가 땀김.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안 잤어 일하느라구. (일하시느라구?) 빨래두 개울에 가서 밤에 대 층해 빨아다 아침에 떨어 널어요. 낮에 일할라구. 그러게 그 다섯 집 중에서 낮

에 일 아침에 일 나가다 이집이 대문 닫았을 거야 벌써. 그럼 와보면 싸리문이지, 싸리문을 벌써 닫아걸구 나간대. 그러니까 그럭허구 뺏어 널구 와서 이제 낮에 들어오면 그걸 만져 비슬비슬해서 뺏어두 널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하하하하.. 지금 이렇게 몸이 전수 너무 못 먹구 너무 일을 많이 허구 이래서 골아서 허리두 아프구 다리두 아픈데 우는 안 되요. 내가 왜 이렇게 젊어서 했나 생각은 안 들어가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 잘 먹구 사니까. 이렇게 먹구 사니까.

조사자 : 그 전쟁 통엔 어떻게 사셨나요?

구술자 : 전쟁 통에는 저 저~ 미국사람들이 그냥 내가 여기서 살다 친정을 가면 길에서 몰래 가두 붙들어가요. 붙들어 가면 별별별별..

조사자 : 붙들려 보셨어요?

구술자 : 그럼 붙들렸죠. 그 사람 어떻게 한눈 팔면 뛰어가지고 저 눈굴이라는 집으루 들어가요. 들어갔다 살구 그랬어요. 전쟁 통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조사자 : 여기두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구술자 : 네! 또 폭격을 해서 우리집이 사는 집이 다 기둥을 뚫구 나갔어요. 내가 탄 데가 잤거든. 탄 데가 잤는데 그날 저녁 잤으면 나두 또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문 트럭이랑 다 뚫구 나갔어요 폭격을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생한 얘기는 열다섯서부터 열두 살부터 고생한 거야 친정서부터. 친정서부터. 현대 사람들을 잘 만나서 직조 짜도 먹을 거 갖다 주구 반장이라구. 자기네가 먹을 것두 싸다 줘요. 실을 좀 낫게 주나 해서. 하하하 아무 것두 내 이름자두 못 써두 그렇게 맡겨요 (청중 :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암산으로도 뭐) 자기가 자기가 볼펜 가지고 쓰는 거 보담 내 머리가 (더 빨라요?) 더 잘 맞춰요. 내가 기일을 해두 자기들이 계산하든 내 계산이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죠. 하하하하 지금두 그냥 밥 먹고 사니까. 근데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어,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이 그 쌀을 밤에 저다주구 그랬는데 닷새 일한 거를 쌀보리쌀을 순을박에다 갖다 주니 (어디다가요?) 순을박에다 쌀보리쌀. 우리 영감을 5일을 가 일을 했는데 (5일 일 했는데?) 그 집 화장실이. 우리 집안이야. 지금 있어 내가 늘 소린 안해두. 거기 불이 나서 가서 지어주었지. 보국단이 나왔으니까 내가 울구 그러니까 참 거기

내가 일 해준 게 있으니까 가 뭐 달라면 줄 거야. 쌀두 저다주구. 순을박에다 보리쌀 두 되 보낸 거야 (보리쌀 보리쌀) 보리쌀 날 걸 찢지도 않은 거, 소 쇠죽 퍼 주는 순을박.

구술자 : 내 근데 그런 거를 살면서 입술 소리내면 못습니다. 입술 소리내고 누구 네가 날 그렇게 했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세상은 그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 이니까, 그런 거 그렇게 입에 발르게 자꾸 그러면 못 써여. 내 말은 안해 그렇지. 근데 그 지금 사람들 같으면 없는 사람두 나중에 있을 적두 있다. 자기넌 이렇게 없나 이러구 이해가 가는데. 그걸 몰른 거야. 자기 있으면 꼭 움켜쥐고 생전 있고 없는 사람은 생전 없는지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었어.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외레 우리 성님들에게 잘 해요. 묵두 쓰면 갖다 주구 일 부러 내가 가서 성님 어째구 어쨌수 어째구 어쨌수 이러구 갖다 주구. 그냥 감두 따면 갖다 주구. 내가 그런 분을 더 잘해야 되는 거야. 당신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알밋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더 붙쌍하게 알구 더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해야 내가 사는 거야.

구술자 : 그래서 메누리가 아무것도 없는 메누리가 들어왔어. 그랬는데 (며느리? 큰아들 며느리) 예 저희가 연애 걸어.

조사자 : 그게 언제쯤 며느리 맞으셨어요?

구술자 : 나는 몇 살인 줄 모르고 며느리가 스물네 살에 들어온 거야. 근데 아~무 것도 없고, 어머니두 아버지는 멘장(면장) 보고 어머니는 선상 있었대요, 자기 친정어머니가 선상이구 (선상? 아! 선생님) 또 제 아버지는 멘장이구 (면장이구) 그래두 집안은 좋은 집안인데) 집안은 좋은 집안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아들 보구두 그랬어. 그 며느리를 내가 잘 그늘려야 내가 밥을 먹구 살겠다. 그러니까 아들 보구 아무것도 없구 저렇게 굴러댕기는. 너 이참에 니가 연애 걸어서. 이제 누가 중매했대 연애 걸어 그러니까 너 재를 한 눈을 팔면 안돼.....((전화)) 그러구 인제 그 며느릴 내가 다 그냥 해 가지고 온 거 마냥 집안 보는덴 해주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지금 무척 잘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르던 메누리두. 그걸 내가 그늘려야 잘. 그 어머니 아버지 잊어서 돌아다니다 그렇게 했으니 자기가

남구두 해다 때구 그랬대 전라둔데. 그 소릴 들으니까 나두 어려서 고생하던 생각을 하니깐 그 며느릴 그늘러야 내가 밥을 먹을 거 같애. 하하하하 그래서 이런 며느릴 내가 잘 그늘러야 내가 복을 받지 밥을 먹지. 그 며느리가 그렇게 지금 잘한답니다. 하하하하하.

조사자 : 그러면 큰 며느리 보실 때는 집안이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나요?

구술자 : 그 때는 그래도 밥 먹고 살았어요.

조사자 : 아까 논을 8000평까지 모으셨다고 했는데?

구술자 : 네, 8천평 했는데, 성남시 되면서 들어간 거지 그제. 성남시 되면서 들어가서 천평에 200만원씩 (청중 : 돈을 많이 받았지) 줬어요. 근데 돈을 우리 아들이 양아들인데 양자 보낸 거야. 낳기는 내가 낳는데. 근데 그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큰 집이가 큰 집이가 시아주버이가 옛날에는 집안이 아들이 없으면 내가 동상이 나면 양잘 주는 거야. 그렇게 줘 보냈는데. 큰 집이가 아무 것도 없구. 큰 집이가 다 돌아가구 해서 내가 (다시?) 응 아들며느리는 거리 있지 호적이. 나는 저 외톨로 있는 거지.

조사자 : 아무튼 친자식이잖아요?

구술자 : 친자식이죠. 그러니깐 그 아들이 다~ 집장사 한다고 버리구 단대쇼핑 저 시장 한다구 버리구 태양유리 한다구 버리구 하하하하 집장사 한다구.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나는 인저 내가 이렇게 그 때도 열무를 땀기면서 팔았어. 열무 이구 저 달나라 저런데 이구 땀기면서 열무 사세요 팔았어. 열무를 60단씩 이구. 이렇게 앓아 섰으면 뽕뽕 돌아가면서 언덕에서 영감이 이렇게 었어준 거야. 그 열무 사세요 열무 사세요 땀기다. 아들은 이걸 곱절로 버릴는지 모르는데 나는 또 이렇게 허지 이랬더니. 그래도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구 헌다 이랬더니. 그 아들이 지금, 다른 아들들은 다~일두 잘하고 그러던 아들은 다 안됐어도, 우리 아들은 그래도 지금 밥 먹구 살어. 밥 먹구 살아요. 하하하. 저 마을금고 이사장은 스물여덟 해를 봤어요. (마을금고 이사장올?) 어 그러다 작년 봄에 사표 냈어. 자기가 판거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골빠지게 일을 하고 그렇게 했어두 소원은 안돼. 밥 먹구 사니까. 지금 내가 내가 그렇게

고생 허구 밥을 못 먹구 그러면 내가 왜 젊어서 골을 이렇게 뺏나 이러는데. 그만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냐? 하하하하 그렇게 살았어요.

조사자 : 방금 전화온 막내.

구술자 : 막내딸이에요. 딸들두 잘 해요. 사우두 딸들이 가서 죄 잘 살아여. 딸덜두 잘 하구 손주들도 잘 허구 손주 사우들두 30만원 20만원씩 용돈 쓰라구 줘. 우리 할머니 같으려는 자기 어미를 가지고 그런대 우리 할머니 반만 닮으라고 그런대. 우리 할머니 우리 집안에서 생전 큰소리 안내구 말 안하는 분이라구. 자기 어미는 며느리하고 맞질 않아. 자꾸 다투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다구 그래. 그런데 그것두 손주딸이 와서 저 어미 보고 그래, 저 어미가, 어머니 제 얘기 아빠가요 저 어미 보고 할머니 반만 닮으라고 그랬대.

조사자 : 여기 은행동 이 쪽 지역에 아까 시집오실 때는 다섯 집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집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점점 은행동에 좀 모여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구술자 : 인저 그건 몰르지. 그 기억은 몇 해 된 건지.

조사자 : 몇 해 된 건지는 모르지만.

구술자 : 여기 철거민들이 들어오면섬 자꾸 늘었죠.

조사자 : 철거민들 들어오실 때? 철거민들 들어온 게 한 70년대 쯤인데, 70년 (70년 됐어요?) 아니요 1970년. (몰라) 그 때 쯤인데, 그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철거민들 들어올 때 상황을.

구술자 : 철거민 들어올 적에도 내가 아무 것도 내 이름두 쓸 줄 몰라두 이렇게 철거민 들어와서 인제 8평씩 타요 (8평씩?) 집터를 타면 그걸 2천 원씩 팔어 먹어요. (철거민들이?) 철거민들이. 인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2천 원씩. 내가 2천 원씩 사요. (몇 개나 사셨어요?) 그니까 그렇게 2천 원씩 사구 또 일 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며는 보름만큼씩 월급을 줘요. 그 전표를 하루에 8백 원씩 품값을 인제 표루 줘. 그럼 전표 장사도 한 거야 내가. 글두 몰라두. 전표. 저녁 되면 그냥 우리 집으로 나래비서 들어와요 그 전표 팔러. 우선 그걸 보름 만에 나오니까 먹고 지낼 수가 없으니까 팔아야 먹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사요. (다 사들였어

요?) 자꾸 사가지고 집장사도 하구 그렇게 땅장사도 하구 전표장사도 하구 안 한 건 없어. 배우진 못했어두.

조사자 : 어떻게 그걸 사면 돈이 될 거라는 걸 (청중 : 그건 머리가 좋으니까)

구술자 : 그걸 타서 내가 저녁이면 기산((계산)) 맡아가지구 보름 만에 영감이 사무실로 그걸, 보름 만에 전표 가져가면 돈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내 기산하고 맡더라고요. (머리 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하고?) 네 그거 몇 장에 얼마라는 기산을 머리 속에 기산을 해놓으면 잊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 인자 그냥 그렇게 살구. 그 집터 2천 원씩 해가지구 5천 원두 받구 3천 원두 받구 8천 원두 받구. 또 2만 원에 땅 기약해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두 먹구. 땅장사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두 몰라두 그냥 덩벙뵤벙 기산에 이게 맞으면 허나 부다하고 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때는 50만 원인데두 여기서 50만 원 수표를 못 바꿨어요. 서울가 바꿨지. 50만 원이 이제 옷돈 엮어 주더라구. 2만 원에 기약((계약))을 걸었는데 땅을, 누구 어떤 사람이 내 50만 원 주께 넘겨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아주 기약할 때 그랬지 당신 아무리 많이 줘두 해약헌대는 각서를 써다우 안 헌대는. 아 나이두 만약에 내가 그 50만원 그 사람이 해약하면 아니 2만 원인데 4만 원만 주면 해약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 당신 아무리 많이 줘두 해약 안한다는 각서를 써 다우 그랬어. 인저 각서를 써줘. 그걸 가지고 영감하구 50만 원을 서울을 바꾸러 가는데,

구술자 : 인제 애들을 딸 하나하구 아들 하나하구 서울 학교를 넣는데, 방을 4만 원 짜리를 그냥 조그만 거 전세를 얻어줬어요.

조사자 : 그게 어딘가요?

구술자 : 서울서 인저 저 (서울 어디, 기억이 잘 안나시나) 어디라 그랬나? 김포라 그랬나, 아 김포두 아니야. 마포. 그랬는데, 아니 그게 50만 원이 4만 원에 전세도 얻어주는데 50만 원이 큰 돈 아니예요. 근데 은행엘 영감하구 부대를 가지구 인제 부대를 셋을 가져간 거야. 가 바꾸러 갔는데 은행에서 그러드라구. 조심하시라구 여기 나가며는 저번. 조심해 가지구 가시라구. 그래 인저 거기서 택시 타고 천호동으로 나왔어요. 천호동 나와서 천호동서 택시를 문을 열고 나오재니깐

웬 남자하구 여자하구 당신 뭘 어찌구 어찌구 그래요. 그래서 영감 보고, 아유 얼른 저 작은 집이 가자구! 그리고는 뛰들어갔어. 근데 그거두 남의 집이야, 옷장사들 옷 파는 집이야. 거기 가서 늦도록 있었지 어떡해요. 나오질 못허구. (무서워서?) 그럼 그 사람이 쫓아오니깐, 응 그러니깐 거기 와서 인저 들어앉았다 늦게 그냥 우리 친정이루 왔어. 친정이루 왔다 거기서 친정어서 밤에 우리집으로 왔는데, 10만원올 거기서 방을 다시 얻어주는데, 크게 가게간이 있구 그러는 거야 전세를 얻어주는데, 그러니까 40만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구 인저 또 전표장사니 무슨 저거니 다 한 거야 그거 가지구.

구술자 : 나중에 애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다, 공부를 하니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돈 대기도 어렵더라구, 그러니까 고추 따다 팔어두 거기 가주고 거길 갈려면 갖다 줄 돈이 안돼. 그래서 이저 어디 가서 부대 클르는 걸... 지금 전화 오는 우리 막내딸하고 부대를 클르니까, 하루에 둘이 클러두 30원이야. (부대를 클러요?) 부대를 클러서 그걸 감어다 주는데 부대 저런 부대 쌀부대 같은 거, 그걸 클러 가지구 그전엔 감어다 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막내딸하고 둘이가 클러두 30원 밖에 못 벌어. (하루에?) 네 그래서, 에이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아무 짓두 몰라두 일수를 해 봐야겠다. 일수를 헨 거야. 한 집인 만원을 주구 한 집인 오천원을 준 거야. 그래 가지구 인저 일수를 했어요. 근데 이저 내가 마흔살서 70살까지 했어. 칠십살까지 한 거야. 40살서부터 30년을 헨 거야. 응 일수를. 그래서 해서 인저 아니 나만해두 70살이면 늙으잖아. 그러니까 젊은 것들이 그냥 휘집고 젊은 사람이 주니까 내 돈 쓰러 들겠어. 노인 6부 주면 나는 3부 준다고 3부루 줬어 내가. 3부 줘서 많이 주면 6부주는 것보다 더 버는 거야. 그러니까 3부루 3부를 줘가지구 놀아서 그거 해가지구 딸 시집 보내구 아들 장가 들이구 하하하하 내가 쓸 거 이러구 챙기구. (청중 : 참 머리 좋아) 응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구술자 : 그러니까 일은 말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집에서 안 놀아요. (청중 :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구) 응 하던 습관이 있어 가지구 그제 벌써 다섯 시 되면 잠이 안와요, 초저녁에는 자요. 그러니깐 그러는 거야 메누리두, 너

는 초저녁 일 하루 새벽 자구, 나는 초저녁에 자구 새벽에 일하구 그래는 거다
 그러는 거야. 하하하하 그렇게 일 없어도 일어나서 인저 내가 5시에 일어나서 6
 시에 나가서 밥통에 쌀 씻어가지구 좀 담귀주면 조금 불어지면 밥 얹혀놓고 찌개
 얹혀놓고 이러면 자기가 7시 반에 일어나서 차려먹는 거야 메뉴리가. 그렇게 사
 는 거예요. (청중 : 지금도 메뉴리 그렇게 해준대요.) 메뉴리가 스물네살에 들어
 와서 지금 육십하나야, 같이 살았어 여태. (여태?) 응 여태 지금꺼정도 그렇게 해
 주구. 토요일 날이면 쓰레기 해 주구 다. 하루 걸러 쓰레질두 아침 일찍 일어나
 서 죄 쓸구 흠치구 그래요. 지금두 그렇게 놀진 않아. 일허던 식이 있어서. 놀
 으면 답답하구, 허구 싶어서 못 배기구 그렇게 해요. 하하하 (청중 : 그래도 건강
 을 따라주고 그렇게 일을 했으니 뭐..) 네

구술자 : 우리 아들보고 배포만 크고 저런 아들이 뭘 허느냐고 그러던 사람들이 우
 리 사춘 수피마켓 조카야 그러던 사람은 자기두 죽구 집안 다 떨어먹어두 우리아
 들은 새겨두 점잖은 사람만 새기구. 아주 저 아버지 연세만 잡순 분들만 크랍이
 이렇게 저서 땡겨, 지금꺼정두 마을금고에다가 저 아버지 연세 잡순 분이 3억씩
 이렇게 갖다 넣는대요. 그러면 그거 갖다 돈 넣을래면 아 불르면섬 나는 당신이
 우리 아들보담 더 믿으우 그런대요. 그래가지구 밥 사주구 이기가 그래서 여름
 에 우리 보신탕해서 그냥 갖다 줘. 하하하하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육십
 데리구 욕심을 부리구 김포 가서 무슨 집을 몇 채씩 짓는다구 우리 조카 그. 우
 리 아들은 누구 해꼬지 붙이거나 욕심 베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기 있으
 면 있는 거 가지고 먹거든, 그런 사람은 에레 욕심 베리구 너무 그런 사람은 못
 살았잖아. 하하하 못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욕심 부릴 것두 없구, 나 있으면
 있는 거 가지구 그대로 먹다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거야. 많음 뭘 해요. 한 세상
 살다 먹을 만하면 그거 가지구 사는 게 좋은 거야. 욕심 베서 저 아동바둥 더 욕
 심낼 필요가 없어. 하하하하하.

조사자 : 지금 그러면 사시고 계신 텐 원래부터 사시던 텐가요? 아니면

구술자 : 응! 원래부터 살던 . 바로 그 집이 옆에서 그리 100평에 짓구 나갔어요.
 100평에 짓구 나가서 지금 방이 네 개 다섯 여덟 갠데 세 식구 살어. 세두 안줬

어. 지하도 큰 방 이층에두 방이 세 칸데두 안줬어요.

조사자 : 왜 안줬어요?

구술자 : 아유~ 아들이 세 주면 다 귀찮다구! 그냥 편안하게 살자구! 응~밥 먹구 살면. 그래 밥 먹구 살면 된다. 남 줄 돈만 없으면 사는 거야. 그러자 그래서 안줬어요. 그것두 주며는 뭐 8천만 원이나 7천만 원 세줄 수가 있대요 이층두, 그런데 안주구 그냥 살어여. 그러니까 거기꺼정 다 무는 거야. 무슨 겨울에는 얼을 까 봐 불 때잖아요. 다 무는 거야.

조사자 : 처음에 천막촌에 사람들이 천막치고 살기 시작한 이후에 주변이 천막이 좀 없어지고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 쯤 뭐 그런 기억이 나시나요?

구술자 : 그거는 안나요. 몇 해된 건 몰라. 천막 제 친구 밀가루두 사서 가면 내가 (청중 : 89년도, 내가 서울에서 88년도 서울 왔다가는 시골에서 서울 왔다가는 89년도에 이리 내려왔거든요, 여 오니까 전부 다세대 집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구. 전부 뭐라 납작납작하게 지은 천막집이래요.) 전표 장사할 때 그거 팔아서 밀가루 사다 그냥 밀가루루 저녁 해 먹을라구 그거 팔러 댕긴 건데, 내가 댕기다보면 밀가루두 그냥 망을 망을 망을 이렇게 이렇게 물에다 개가지구 그냥 물 끓여가지구 거기다 풀어먹구 그러던데 뭐, 그렇게 살더라구.

조사자 :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생각나는 거 좀 얘기 해 주세요!

구술자 : 하하하 (밀가루하구) 밀가루를 그 전표를 팔아가지구 하루에 8백 원이면 저 그게 떼는 게 한 7백 몇 십원 줘요. 60원인가 이렇게 띠요. (밀가루를요?) 아니 내가 전표를 팔 적에 그 사람이 8백 원 가지면 7백 20원인가 이렇게 가져가요. 내가 80원인가 60원인가 이를 먹는 거지. 그 돈을 주구. 난 보름만에 찾으니 까, 그걸 가지구가서 밀가루를 사다 밀가루를 버물 버물 버물 수제비두 이렇게 안 떠넣어요, 국수담... 버물 버물 버물해서 그냥 물 끓이다 술술술술 넣어서 주걱으로 저어가지구 그래서 퍼먹더라구. (양념도 안하구요?) 양념같은 거 소금 같은 거 넣는지 안넣는지 그건 몰라. 그러구 다.

조사자 :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

데, 다른 분들은 뭐 하면서 사셨나요?

구술자 : 다른 사람들두 품 팔아 가면서 일하면서 품 팔러 댕기구 일 하구 그래서 먹구 살었죠. 나두 시에서 장다리밭 저런데 매면 그 2천원이에요. 점심 싸 가지구 가요. 그럼 점심 싸가지구 가서 그 장다리밭도 매요. 매면서 그래두 보험을 들어서 한 달에 3만 얼마 모(모아)가는 그런 걸 댕기면서 품 팔아가지구 그걸 부어갔어요. 열두 해를 부어갔는데 천팔백을 타 먹었대. 아들이, 올해 2백 또 탔어. 그게 만기가 되가지구 타는 데 (보험?) 보험(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왜 지금 생명보험 뭐 다 들잖어. (보험!) 나 노후대책 보험이지 그게 나 늙으 죽도록 타 먹는 거야. 우리 동네서 세 사람이 들었는데, 나는 그걸 아무짓을 해 봐두 부어봤어. 그 사람들은 다 해약하구 안 부어가두. 그런데 그걸 1년에 100만 원씩 타는데 1800 탔다구 그러드라구. (지금까지?) 그런데 그냥 접때 가 타는데 금방 이백십 얼마 주더라구. 1년에 백만 원 타는 걸 안타면 거기 수당이 붙구 그래가지구 그렇게 주더라구. 그래서 인저 그렇게 해서 장다리밭두 그렇게 매러 댕기면서 그렇게 허구 (밭 매시면서 그렇게 보험을 드신 거구나?) (청중 : 별어가지구 그걸 다 넣은 거야) 그걸 부어갔어 그냥 어떡허든지 그냥 내가 이걸 부어가야지, 늙어서라두 그렇구 혹시 필요할런지 모르니깐 그러군. 부어가니깐 그걸 그렇게 요긴하게 잘 타더라구. 2년만끔씩 가서 타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 것두 배운 건 없어도 그냥 이 몸뚱이로 다 벌어 그냥 산 거야 그게 골빼서. 그냥 첫닭이 울면 아우 아마 밝나부나 뭐 어디 시계가 있어요? 전깃불도 안 들어 왔었잖아요. 전깃불도 우리 메뉴리가 스물네 살에 왔는데 그 때 전깃불 안들어 왔어요. 그 뒤루 들어왔지 메뉴리 얻은 뒤루 들어왔어, 그래 가지군 그렇게 살았어요.

조사자 : 며느리는 그러면 며느님이 오신 건 천막촌이 안 만들어졌을 때 이전이죠?

구술자 : 그 때 천막촌 좀 있었죠. 다~ 그럼 있었지 그럼, 전깃불 안들어 왔으니까. 결혼을 허는데 그 날 새벽에 등불을 댕기며 내가 뭐 했잖어.

조사자 : 뭘 하셨는데요 등불을 들고?

구술자 : 아 그래두 등불 댕기면서 그래두 뭐 부쳐가구 그랬잖아요. (청중 : 잔치

장만한다구) 잔치 장만하면서 뭐 부치구 내일 헐라면 오늘들 와서 제 여럿이 부치잖아여. 그러니까 그 간식하러 다니느라구. 등불 들구 땡기면서, 등불 땡겨야지 뭘 뵈요? 뵈지 않는걸.

조사자 : 그럼 낮에 준비하시지 밤에 준비하셨나요?

구술자 : 낮에는 여럿이 동네 사람들 와서 부쳐놓으면 그거를 인저 내가 아등그러 담아 놔야 내가 그날 싸가지구 가요. 10월 보름날인데, 음력으로 10월 보름날 때 느리를 얻었는데, 눈이 오고 춥구 베추가 제 얼구 그랬어요. (10월 달인데?) 10월 달인데두 그 때는.

조사자 : 근데 어디로 가서 결혼을 했어요?

구술자 : 천호동 (천호동?) 천호동 가서 예식장에 가 했어요. (아, 천호동을 갔구나) 천호동 예식장. 그러니까 여기서 떡이구 김치구 다 부치구 다 해가지구 가는 거예요. 관광 두 대에 대서, 관광버스 땡쥌. 그 때만 해두 관광버스가 여기 들어왔어.

조사자 : 왜 천호동으로 가셨어요?

구술자 : 여긴 없었쥌.

조사자 : 여긴 없어서? 여 근처 사람 다 천호동으로 갔나요?

구술자 : 근처에 뭐 없었어요 근처에 분당이니 무슨 저런데 하나도 없었어. 없었어요. 천호동을 걸어 땡겼어. 감 장사두 녀접씩 이구 감낭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더 벌었어. 감을 녀접씩 이구 인저 영감이 저 고개를 저다줘요. (어느 고개요?) 저 우리 친정동네 저 행정학교 있는데 고개가 여기서 비탈에 여기서 넘어가는데 (그 고개 이름이? 뭘지는 모르세요?) 한티고개라고 했지. (한티고개? 아~) 그런데 그걸 저다 주면 인저 저다줘서 여주면 이구가다 저 마친동이라는데 가서 쉬면 둘이 내려주고 둘이 여 쥐야지 혼자 못 이어. 4백개를 이구, 이구 거기가다 저 오금리 가면 자전거를 가지고 받으러 나와요 천호동서. (자전거를 가지고?) 받으러 나오면 거기서 2백겔 넘겨요. 2백겔 넘기고 2백겔 이구 들어가서 (직접 파시고?) 길에다 놓고 소매해요. (아 소매하고!) 길에다 놓고 소매.. (2백개만 넘기고?) 2백겐 도매로 넘기쥌. 2백개를 넘기면 저녁에 깜깜해지고 무섭잖아요.

그럼 영감이 등불을 데려가지구 그 한티고개라는데 와 가지구 우~ 군홀 해요. 우~우~ 이제 내 목소리가 오나 안오나 그걸 들을라구 우우~하면서 등불을 들구서 넘어노는 거야, 그럼 나두 마주대구 우~우~그러죠. 그러면 가며는 광주리죠, 광주린데 들을라구 그러구. 또 업자구 그래요. 업자구 그래요. 아유 여보 괜찮어 괜찮어 괜찮어. 정일 그 고생했는데 업어 다리 아파 업어 업어, 아유 광주리는 어떻게, 아이 광주리를 옆에 들어, 들으면 땀길 수가 있는냐구 얼마나 큰데, 그러면 어떤 땀 조금 업혀도 오구. 그리구 와서 밤에 자다 새벽에 또 이구 팔러 가는 거야. (청중 : 고생을 그키해도 그래두 그키 알아 주시니까, 그 재미로 사는 거야) 우리 영감이 얼마나 위했는데요,

조사자 : 우~ 그런 소리는 서로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되셨나요?
 구술자 : 제절로 했지, 약속도 안됐는데, 인기척이 나며는 내가 그렇게 만나 보느라구 우~우~ 그래요. 그럼 나두 우~ 그러구, 등불이 저~ 높은데 좀 뷔어요. 번쩍번쩍..그럼 살거 곁에 (아 그 등불이 보이면?) 발발발발 떨구 전에 여기 오면 눈이 오면 짐승 발자국이 터벅터벅 나구, 어떤 땀 짐승 우는 소리 우후후후 이렇게 우는 소리도 나왔어요. (무슨 짐승인데요?) 무슨 짐승인지 모르지. 그렇커구 우는 소리가.. 아 다섯 집에서 그 산골 그냥 개구덕에 그냥 아주 돌 사닥다리만 땀기다시피 했는데, 그럼 (청중 : 개울인데 뭐 여가 전부 개울..) 그렇게 살았답니다. 산 사람이라면 기가 막히구

조사자 : 남편 분은 그러면 장사 나가신 동안에는 집에서 (땀 일하구) 땀 일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구술자 : 일 땀기구 땀 일하죠, 나 감장사 할 적에는 벼도 베려다니구, 벼도 베려다니구 우리 밭에 콩두 꺾기도 하구 그런 거 허죠.

조사자 : 은행골 이쪽에도 논이 많이 있었나요?

구술자 : 이렇게 토랑인데 토랑 접쪽으로 논 있고 입쪽으로 논 있고 있었어요.

조사자 : 그 논은 누가 다?

구술자 : 그 논은 처음에는 논 서마지기를 얻었어. 논 서마지기를 인저 그거를 해서 떨 적에 그 땅임자가 와서 노나요. 땅임자가 그 떠는 날 (수확할 때?) 수확할

적에는 와요, 그러면 그걸 논 서마지기를 얻었는데, 그걸 가래질을 해서 논뚜렁에 물이 안 새나가게 이렇게 해는데, 헐 수가 있어? 그래서 이장 집에 쫓아갔어. 쪽은 이렇게 찌고 쫓아가서 나 배급패 좀 해달라고 그랬어, 아무래도 굶어 죽었구, 논 서마지기를 얻었는데 가래질을 해야 할 텐데 가래질은 인저 사람 셋이 해요, 줄을 이렇게 붙들고 가래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러는데 밥 좀 해주게 배급쌀 좀 달라 그러니까, 누구유? 그래 인저 우리 영감 이름을 묻구서, 한동네니까 알잖어, 이름 이름을 불렀어 아무개 병인이 처라구, 영감이 병인이야, 병인이 처라구 그러니까. 그러우 그러더니 배급 납작보릿쌀 두대허구 쌀 두대허구 저 수진리가서 타라구 배급표를 해주더라구. 인저 이장이야 이장이.

조사자 : 수진리에는 그 배급을 해주는?

구술자 : 배급을 주는 집이 있어요.

조사자 : 그게 정부에서 주는 건가요?

구술자 : 정부에서 주는 거지, 일본정치 때, 그거 주구 모래 가래질 하라구 구래, 그래서 그래라 그러는데 가래질을 하니깐 양애쩍??에다 보리쌀을 한되 쥐 보내는 거야. 하루 종일 한계 보리쌀 한 되야. 지금은 하루 일하면 여자들도 순 우리 손주메느리 10만원 받아 하루에, 그랬는데 그 때는 보리쌀 한 되야. 종일 가 일하고 저녁에 올 적에 보릿살 한 되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수진리를 가다 드러눕구 물 있는데 가서 물을 마시다 또 이렇게 ???(54:25) 배가 고프고 어지러우니까 못 가겠어. 가서 쌀 두 되하고 보리쌀 두 되하고 해다 그 가래질을 한 거야. 하하하하 가래질해서 처음 농사지어. 그렇게 지어 나왔어요. 지어 나와 가을에 인저 수확을 헐라니까 타작한다고 하니까 온 거야. 또 그 사람은 밥을 또 좀 반찬도 좀 낮게 해주어야하는 거야 점심을 땅 입자라구. 그럼 해주면 저울로 달아가지구 순 저울로 달아가지고 반 짤라 놔요. 반은 저희가 가져가고 반 주는 거야. (5:5로 나누네요?) 네! 두 개루 노누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고생하구 살았어.

조사자 : 그래두 지금 얼굴은 편하신데요? 편안한 얼굴

구술자 : 나 그렇게 산, 열다섯 살에 시집와서 그래두 영감이 위해주는 맛에 업구

땡기구 그런 멋에 살았나 봐.

조사자 : 영감님 돌아가시구 그러면 좀 많이 생각나시겠네요?

구술자 : 그러게 산소에 가. 추석에도 가서 그랬대니까! 당신 나없으면 못산대더니
당신 나 버리구 와서두 이렇게 사는 거 보라구, 왜 안테러가냐고 그랬대니까요
하하하하 아유

조사자 : 지금 이 동네는 어떻게 살기 편하세요?

구술자 : 여기요? 그럼 편하겠지 뭐, 내가 이 동네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저기 저
기서 살아요. 은행시장 바로 위 (그 동네?) 거기 원주민이야 나는.

조사자 : 거기 살기 편하세요? (편하지요.) 거기서 여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집에
서 여까지 거리가 좀 되나요?

구술자 : 여기서 다리두 아프구 허리 아프구 네 번 쉬구와.

조사자 : 얼마나 걸리세요?

구술자 : 다른 사람은 잘 올라면 한 15분이면 올 거야. 근데 난 다리가 아프구 그래
서 한 20분 더 걸리더라구

조사자 : 거기서 여기가 제일 가까운?

구술자 : 아니 다른 데두 있어요. 다른 데두 평전이 있는데, 여기는 먼점 땡기던 데
구 그러니까 친구분들도 더 잘 알구 그러니까 거기서 오라구 그래두 이리 오는
거야. 친구분 아는 데로 오느라구. 그래서 이렇게 이저 그렇게 사는 거지. 하하
하하 많이 고생했는데, 어디가 고생한 얘기도 못하구 살었어. 쟁피두스럽구

조사자 : 뭐 고생하신 게 쟁피스럽긴 뭐가 쟁피스러우세요?

구술자 : 쟁피스럽죠. 남들은 다 호강스럽게 부모 앞에서 잘 살었는데. 나는 부물
못 만난 거야. 치고 보면 (부모를 못 만났다고 생각올?) 그렇지. 시집을 일찍 와
두 그렇게 어려운 집으로 왔으니까. 영감은 자기 아버지 아홉 살 먹어서 남의 집
으로 땡기다 응 집으로 땡기다 남의 집 머슴 사는 걸, 작은 누이가 말해준 거니
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맺어줬으니까 어떻게 안가 옛날에. 시집오니
까 이불두 없는 거야. 이불두 없는데, 다섯마 일본정치 때 다섯마 까만 거 광목
광목을 주더라, 광목을 주니까 우리 시어머니 시집은 이불 훌이불 뜯어가지구

빨아가지구, 또 우리집 영감이 작은 집에서 머슴을 살았으니깐, 그 목화솜을 주더래, 그래가지구 그 광목하구 한테 이렇게 꼬매서 그 이불 주더라구, 그러니까 그거 덮구 인저 조카딸도 우리 시아주버니가 푹푹하지만 조카딸도 지금 조카딸이 무척 잘해요. 조카딸이 칠십 살이 됐는데, 그것두 저 어머니가 하나 둘두 모르고 뭐냐면 그것두 데리고 있지, 우리 아들두 있지 우리 딸들두 있지 어떻게 지나하면 이불을 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구 이렇게 자구 이렇게 자구 (사방으로?) 그래야지 어떻게 자요? 다들 잠을 잘 수가 있어? 발을 서로 뺏는 거야. 그렇게 자구 살았어요.

조사자 : 친정은 원래 좀 살만 하셨나요?

구술자 : 친정은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구 시집을 적에 옛날에는 속저고리 걸저고리 입는데 속저고리도 못 입고 겹저고리 하나 입고 그러구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난 친정집 그 공부만 했어 봐요. (친정 덕을 많이 못보셨구나?) 공부를 했으면 나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장사를 하면 적잖아요 외상을 주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적어가면 할 텐데 적을 줄 모르니까. 저런 5일만큼씩 장이 섰었어요. 그럼 내가 공부만 했으면 그 우리장서 뭘 보따리를 사가지고 가서 길바닥에 팔고 아는 친구들 오면 외상 좀 적구 그러면 그 고생 안했죠. 그러니까 순전히 공부를 안했으니까 이 골루만 빼먹구 벌은 거야. 일 쉬운 거 나무장사 목장사 떡장사 나무장사 감장사 꼭 힘든 건만 허다 열무장사 호박장사 토마토장사, 토마토도 여덟 관씩 이구 다니면서 팔았어. 여덟 관이면 많어요. (엄청 많아요?) 둘이 여주고 둘이 내려주면 도마도 사세요 도마도 사요, 동네로 땡기며 저 아랫동네로 땡기며 (아랫동네는 어디로?) 인저 철거민들 들어올 때야. 그 때는 철거민 들어올 때야. 그렇게

조사자 : 철거민들도 그러면 팔러다니면 잘 사고 그랬나요?

구술자 : 사요, 배고프니깐 사 먹구, 김칫거리도 잘 사요. 우선 사야 해먹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고만 허시지.

조사자 : 그럴까요. 조금만 한 두 가지만 더 여쭙 볼게요.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해 본 경험이다 이런 거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

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말고? 손주 분들이나 아들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는 늘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또 있는 게 있나요?

구술자 :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너희들은 너희들은 딸들 보고 항상 그래요. 너희들이 억울하게 살지 남은 억울하게 하지 마라, 또 손주들 보구두, 애들이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사니까 없는 사람이 뭐라구 그래두 배척을 하지 말구 너희들이 고개 숙이구, 너희 고개 숙이구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알고 그냥 하지, 고개 번쩍 들구 어찌구 어쩐니 그러지 말아라, 사람은 있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을 위해 가며 살어야 되는 거다 편안한 거다. 있다구 고개 들면 못써, 그런 소릴 허죠. 항상 딸들 보구도. 나 교회 나가요 권사예요. 교회 나가니까 애들이 너희들 ..

조사자 :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구술자 : 나 교회 다닌 지 우리 아들이 그제 나쁜 애들하고 술 먹구 노름하구. (젊었을 때?) 네. 그래서 지금 메누리하고 동갑이에요 육십 하나, 예닐곱에 내가 이웃에 애들 댕기는 애들보구, 애, 우리 정배예요 우리 아들이요, 양자를 보낸 건데, 애 정배 좀 데리고 교회 좀 나가라 교회 좀 나가라 그러면, 개가 가요? 개가 가요? 그러면, 아니 아니야 데리구 가면 가 그리곤, 가서 애 주전자를 하나 새걸 걸어놔요. (청중 : 난 시간이 되서 가야 돼요.)

조사자 : 할머니 가실려구요? (청중 : 할아버지가 편찮아 가지고) 할머니 내일 모레 저하고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청중 : 전 안 돼)

구술자 : 그래서 인저 교훤 댕기려면 잘 안 가구 그러더라구, 그러면 일요일 날이면 이거 새돈이다 현금 갔다 내라, 이거 새 돈이다, 주전자 걸어놓고 새 돈만 좀 주전자에다 넣는 거야. 아들 장로예요. 지금 장로덴.

조사자 : 할머니는 그럼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는데요?

구술자 : 나는 댕긴지가 인저 한 30년 되요. 영감 살어서 댕겼으니까. 영감 돌아간지가 26년이야.

조사자 : 그러면 그 이전에 아들님은 교회를 다니게 했고. (그럼) 교회도 안다니면서 아드님을 교회를 다니게 했구나.

구술자 : 교회도 안땡기면서 아들이 나쁜 짓 하나씩, 이걸 교회다 놓야 애가 나아지겠다. 술도 안 먹구 사람 되겠다 하구 는 거야. 인저 안에서 감잘 캐며는 자전저를 하나 새 걸 사준거야, 감자를 캐면 바구니에다 쥘 굵은 걸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이래구, 또 도마도 따도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감을 따도 이거. 그러니 차차 차차 땡기더라구. 그러더니 인저 안땡기다 땡기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땡겨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로님 땡글었어유.

조사자 : 그래서 아드님두 나쁘게 안 나가구

구술자 : 그러게 아들두 뭐 욕심두 안내구 남한테, 남한테 나쁘게두 안하구, 밤낮 목사님이 말씀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나 그런 말씀 들으면 다 착해져 하하하하, 메느리두 권사 나두 권사 큰딸도 권사 큰사우두 장로 우리는 다 친정이구 뭐 조카 손자메느리구 손주딸이구 다 믿어유. 믿는 집안이야. 다 믿는 집안하구 혼인했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유?)

네 일부러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하자구, 지금꺼정두 아들이 내가 허저면 허저는대루 해유. 안 됩니다 이 소리 안해유.

조사자 :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 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할머니가 보시게에?

구술자 : 그러게 우리 영감 돌아가서, 집안이 안믿잖어. 그러니까 영감 돌아가서 술병들을 들구 와서 붓는다 그래,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되면 술이 되유. 내가 못 붓게 했어. 절대 붓지 말라구. 내가 붓지 말라면 붓지 말라구. 아주버님도 붓지 말구 시동생도 못 붓게 했어. 그래서 그냥 치렀지. (제사 안지내는 걸로?) 제사 안지내구, 산소가 중정산이야, 그러니까 집안이 다 땡잖아유, 별초를 할려면 한 30명씩 땡유. 그러면 우리 집안이 안 믿는 집이 죄야, 그러니까 술을 가져와서 추석이구 정월이구 먼저 우리 영감이 조금 손위니까 우리 시아주버니가 제일 위니까 시아부버니 붓구 인저 저희 아버지 붓구 우리 영감 붓구 그래더라구 그래서 내가 한날은 추석에 가서 땡데 니들 이리 오너라. 그리구 애덜아 내가 이러는 소리 섭섭하게 하지 말어, 우리 산소엔 절대 술 붓지 마라. 너 너들도 기분 나쁠 거

다. 너희 아버지 산소에 술 가져와서 우리 아주버님부터 붓니까 너희 아버지보다 우리 아주버님이 순위니까 먼저 부울 거 아니냐 그럼 기분 나쁠 거니까 절대 붓지 말고, 너희 아버지 산소에나 부어 그래서 그것들도 통 안 부어요 안붓구. 그래가지구 집안이 다 망했잖어. 그리고 우리는 좀 밥 먹구 살구 더 낫구, 그러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 가지구 말 안해. 믿는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뭐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어떻게 뭐 말을 해! (그렇구나!) 네 하하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만 허죠.

조사자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평동 구술대상자 조사 카드

1. 구술대상자

이름		남, 여
출생연도/출생지		
현거주지		
학력		
직업		
가족관계		
태평동 거주기간	년부터 년까지 (년간)	
약력		

2. 조사 관련

사전 접촉	조사자		
	일시		
	장소		
1차 인터뷰	조사자		
	일시		
	장소		
2차 인터뷰	조사자		
	일시		
	장소		

장노현(張魯鉉) _ jnohyun@hanmail.net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소설과 디지털서사를 전공했고, 이후 문화콘텐츠와 인문정보학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한국문화 대표사이트인 '디지털한국학' 사이트를 기획·개발하였고, 2000년대 들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초기 기획 및 개발을 이끌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디지털서사 연구와 구비문학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획과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하이퍼텍스트 서사》《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다매체 환경에서 문학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모색> <소설 속 지명정보 활용방안 기초연구>, <디지털 서사의 서사구성 원리>, <인문학적 문화콘텐츠와 창의성> 등 다수가 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cf.or.kr /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은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2005년 10월에 있는 성남아트센터 개관 준비에 집중되었으며, 개관과 함께 문화도시 정책부서인 문화기획부가 2020년까지의 3단계 15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재단 정책사업을 펼치게 된다.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포함한 5대사업을 통해 '시민이 도시를 창조하는 주체다!'라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한 세밀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된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은 책으로 발간되어 30여권에 이른다.(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야기북' 시리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장노현 박사와는 2007년도에 '사랑방문화클럽'의 클럽 대표들에 대한 '서사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2008년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와 2009년도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작업해 오고 있다. 향후 성남문화재단의 '이야기북'은 스토리텔링 클럽이나 집필 커뮤니티(writing communitie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창작자가 되는 것이다. 동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네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성남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살아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이야기다.

“ 뭐 별건 아니었고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노래자랑 대회도 좀 하고. 주로 그런 행사였어요.
꽤 좋았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마당에 가득 찰 정도였고,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스폰을 받고 동네 가게 이런 데서 스폰을 받고
우리가 인제 요걸 하는데 꽤 이게 힘들더라고요.
3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안했더니
지금은 이제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7월가요.
한 3년 정도 중단됐다가 지금 이제 시에서 매년 그거 하고 있어요.”

-은행골에 남겨진 아이들_지용씨 이야기 중에서



9 788996 340348 03600
ISBN 976-89-963403-4-8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은행동 이야기북 3
2009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9 788996 340348

ISBN 976-89-963403-4-8